한국전쟁시기

양양군의 군정 통치에 대한 고찰

양 양 문 화 원

한국전쟁 시기

양양군의 군정 통치에 대한 고찰

양 양 문 화 원

••• 발간사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양양은 산자수명한 고장입니다.

역사 및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문화재를 비롯한 많은 자료 들이 전란으로 훼손되고 멸실되었으며, 특히 6 · 25한국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1950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38° 선을 경계로 남과 북, 즉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졌으며 6 · 25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공산진영의 38° 선 이북이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이 되면서 유일한 군정(軍政)지역으로 주민들은 수많은 변화를 몸소 겪게 된 특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데 모아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들이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한국전쟁시기 양양군의 군정 통치에 대한 고찰"란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정사(軍政史)를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은 이곳 군정 지역의 특수성과 군정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가능한 일이고 책무라 서두르게 되었으며 책자 발간을 위해 원고를 비롯한 현장 조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향토사 연구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하여 그동안 묻혀 지고 잊혀져 가는 현대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되며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더욱 깊이

있는 자료를 발굴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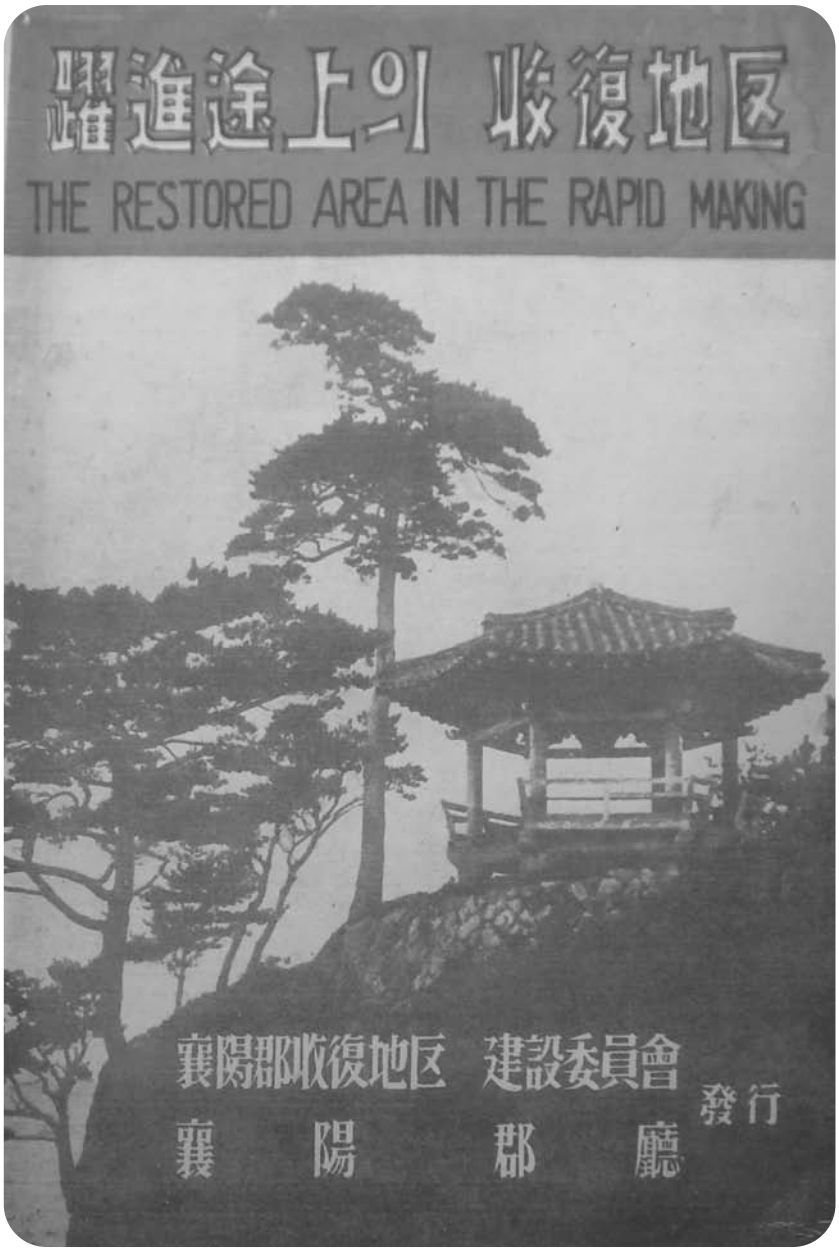
당시상황을 증언해 주신 분들 또한 한정되어 있으며 당시 군정이 실시되었던 지금의 속초시나 고성군의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상 조사의 한계가 있어 함께 조사하여 수록하지 못한 점과 증언 대상자들의 연로로 인하여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며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에 의하지 않고 지역의 향토사연구원들이 모은 자료를 통하여 책자를 발간함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책자를 통하여 잊혀져 가는 현대사의 한 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책자 발간을 위하여 공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해 주신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양양문화원장 윤 여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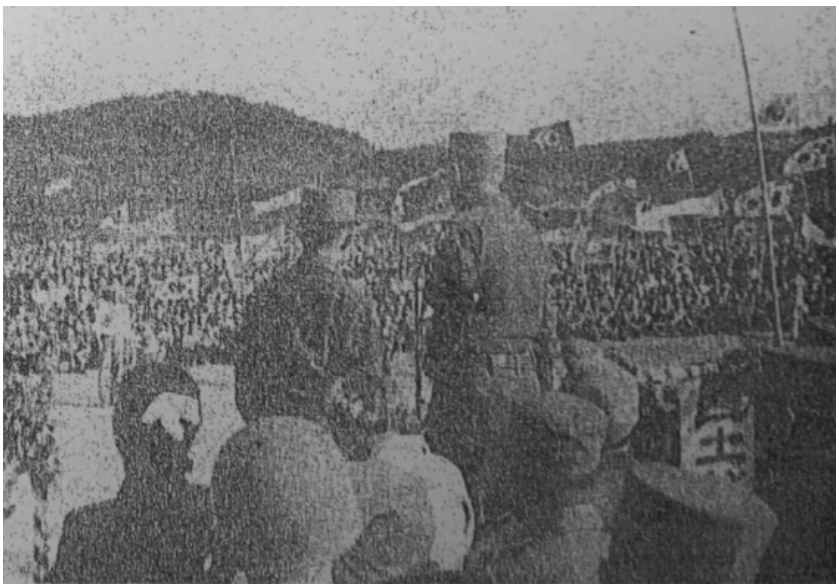
약진도상의 수복지구 (1953. 7. 5. 발행)

1 국군 창설과 활약상

사단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1953. 6. 15)

사단기를 수여하는 이승만 대통령 (1953.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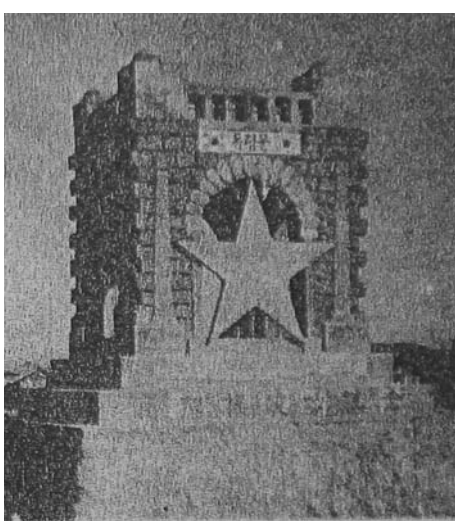
민중대회에서 훈시하는 이승만 대통령 (1953. 6. 15)



민중대회에서 강연하는 맥스웰 테일러 미8군사령관 (1953. 6. 15)

2 건설

일면작전 일면건설 (195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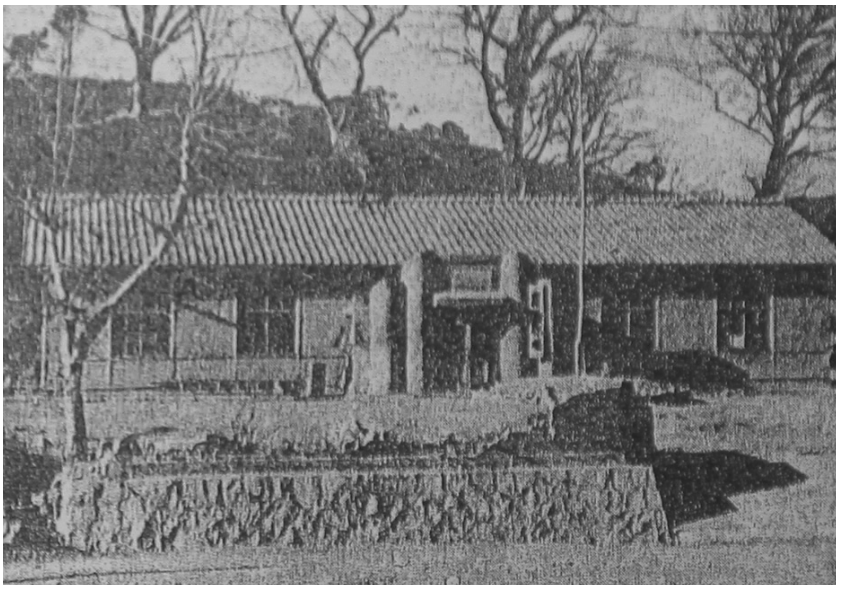


양양남대천목교 준공 기념탑 (195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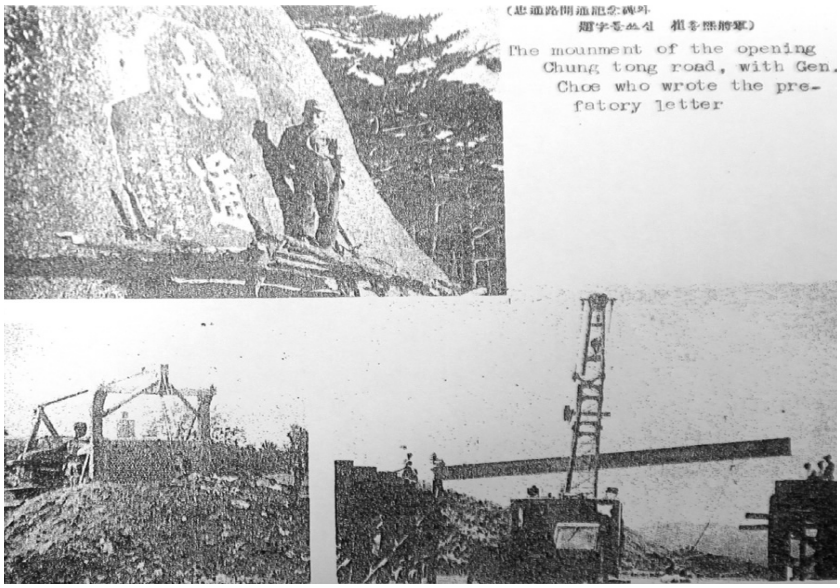
독립문 (1953)

공병단이 준공한 양양남대천목교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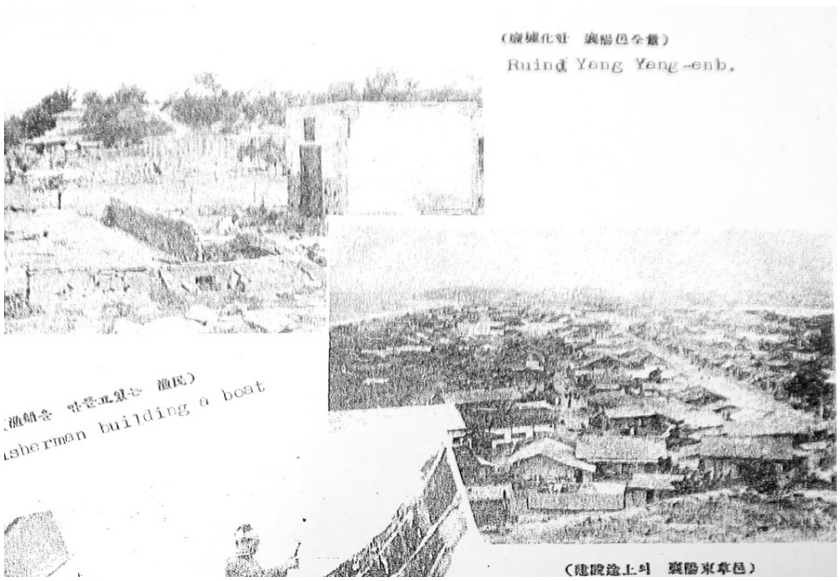
공병단이 2개월만에 완공한 물치쌍천교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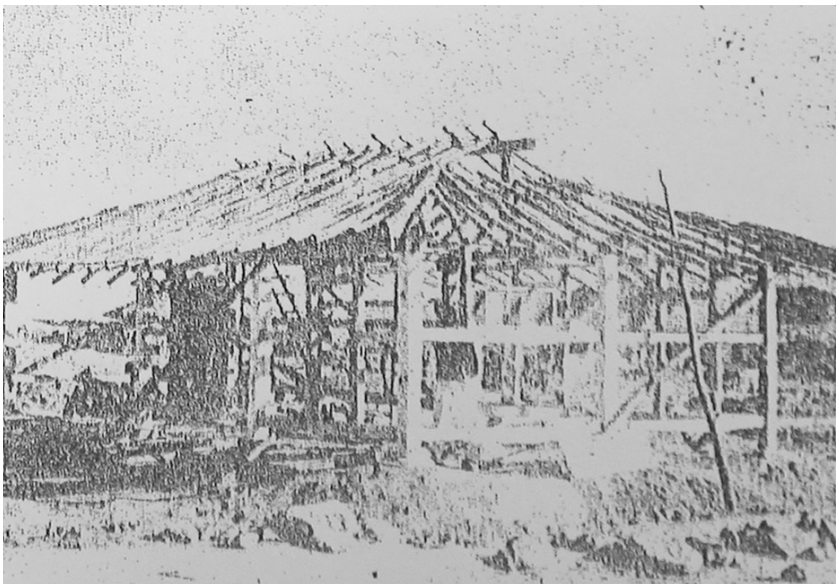
개축한 양양군청 (1954)



공병단에서 건설한 충통로(미시령) 장비와 작업 현황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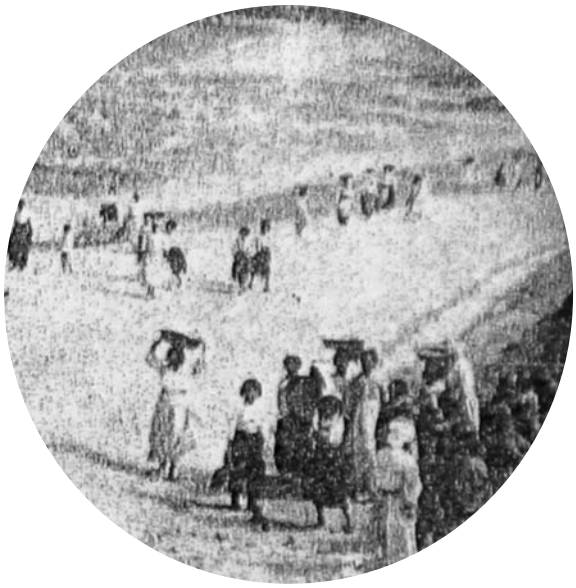


폐허가 된 양양전경과 건설 중인 속초읍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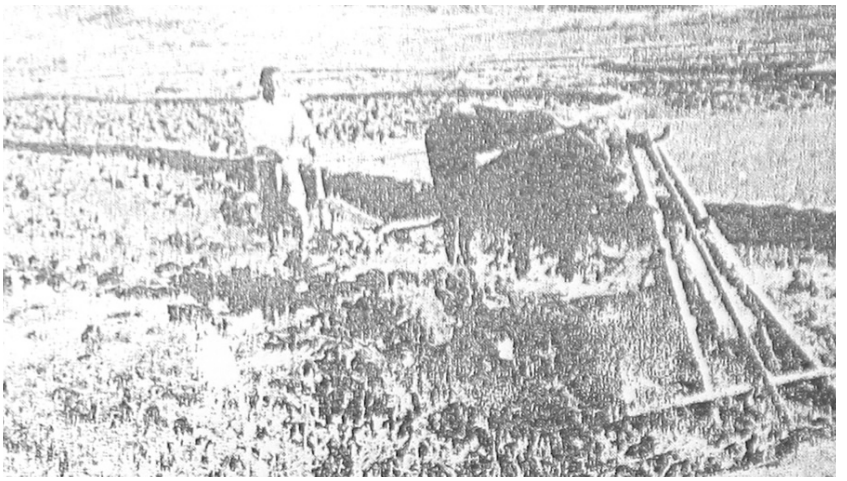
주택 건설 모습 (1951)

한국청년동맹원의 근로봉사로 학교 건설 (1951)



도로 개수에 동원된 부녀자들 (1953)

3 주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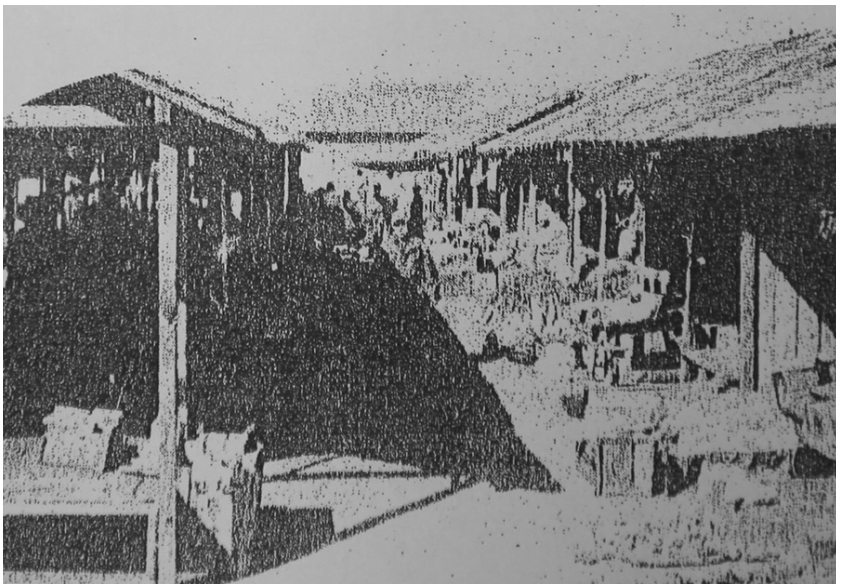


빼앗긴 땅을 이제야 찾았다 (1951)

장병들이 벼 타작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1951)

고기를 잡는 어부와 미역을 말리는 아낙네들 (1951)

미역을 다듬는 어민들 (1951)



양양시장 상가 전경 (1954)

신 · 구 화폐개혁 실시 (1953.2.17)

구휼미 배급 장면 (1953)

구휼미 배급 장면 (1953. 낙산보육원)

구휼미 배급 장면 (1953. 서면)

구휼미 배급 장면 (1953. 강현면)

구휼미 배급 장면 (1953. 손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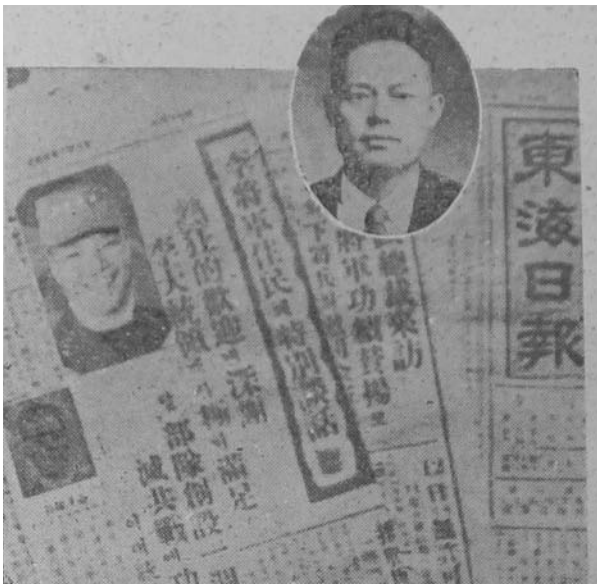
구휼미 배급 장면 (1953. 속초읍)

구휼미 배급 장면 (1953. 토성면)

구휼미 배급 장면 (1953. 죽왕면)

구호미 배급 (1953)

부녀자들이 디딜방아로 밀을 빻고 체로 쳐서 밀가루를 만드는 모습 (195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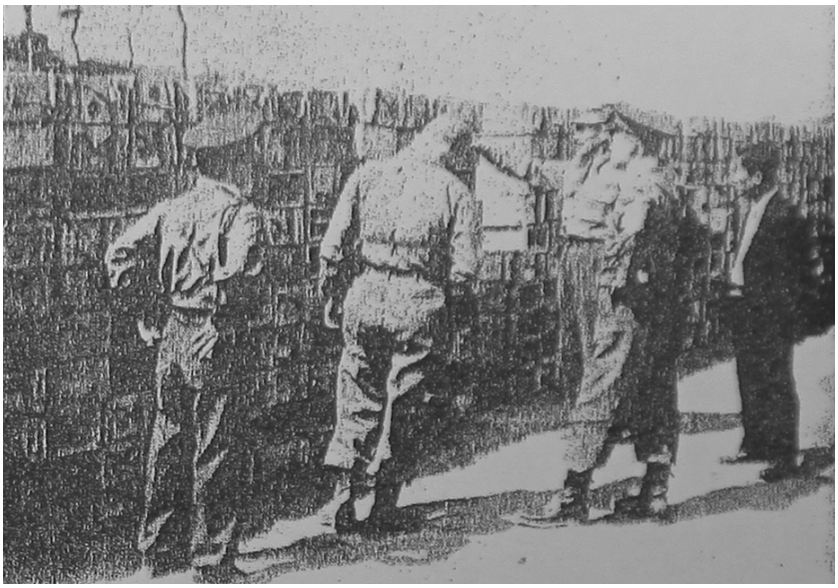


유일한 언론기관인 동해일보와 박태송 사장 (1954)

4 교육

양양중학교 전경과 수업 중인 학생들 (1953)

이형근 군단장으로부터 포탄 상자를 받고 있는 박종승 민정관 (1953)



기증 받은 포탄상자 4천개 (1953)

책걸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 (1953)

양양군 교원 단기 강습소 제1기 졸업 (1952.4.15.)

양양군 교원 하계연수 (1952.8.1.)

양양군 제2차 단기 양성소 수료 (1954.5.19.)

5 보건의료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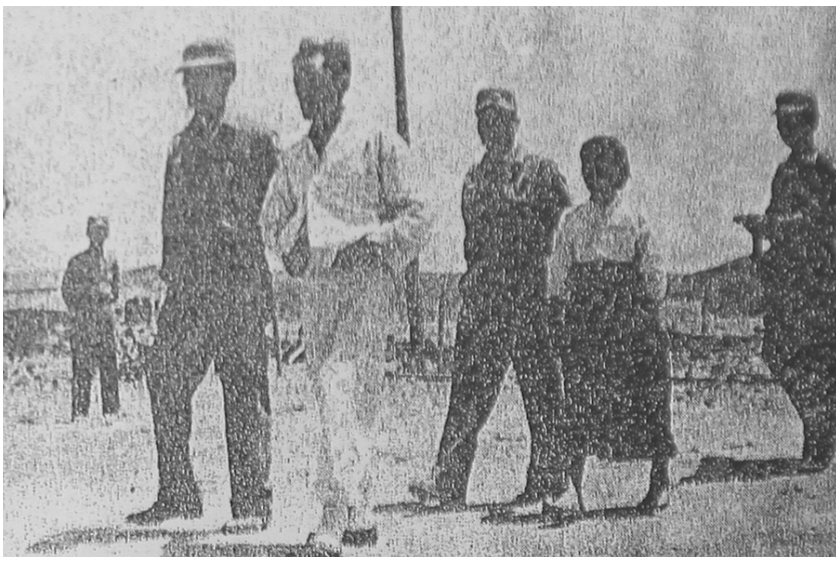
치료와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주민들 (1953)

방역을 위해 주민들에게 DDT를 살포하는 모습 (1951.3.20)

예방접종 모습 (1952.11.22)

6 치안

치안대 활동 (1954)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호송중인 모습 (1954)

갑오년을 맞이한 치안대원 (1954.5.1.)

양양치안대 제4기 훈련생 (1952.2.3.)

양양치안대 제5기 훈련생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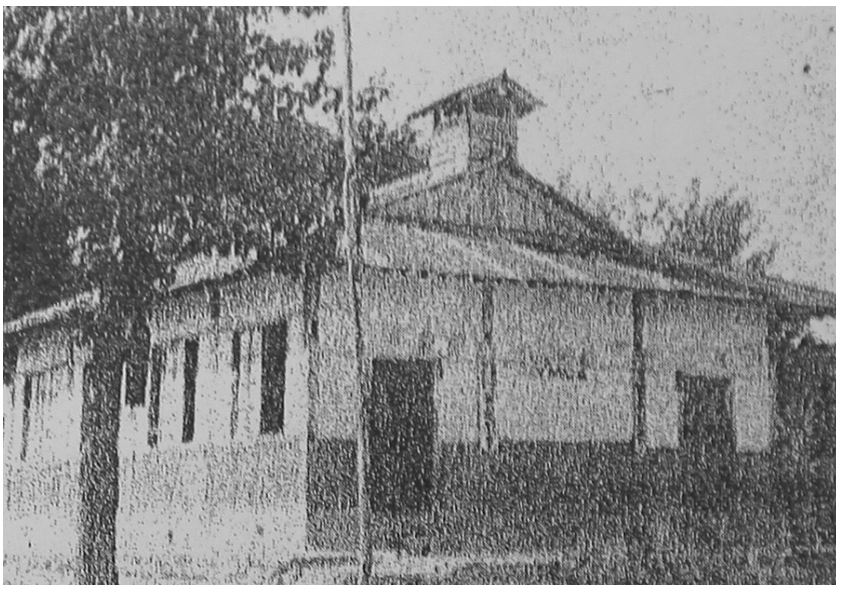
양양치안대 손양지대 대원 (1953.1.)

7 종교

위문품을 받고 있는 양양고아원 원생들 (1953)

양양고아원 모습과 머리를 깍고 있는 원생들 (1953)

낙산고아원 모습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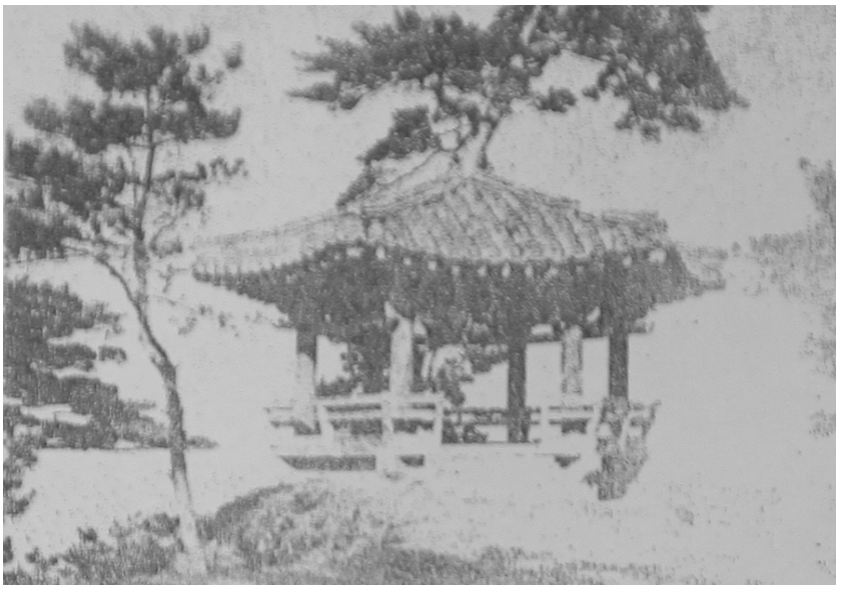
새로 세워진 양양교회 (1953)

8 명승고적

방화로 소실된 낙산사 재건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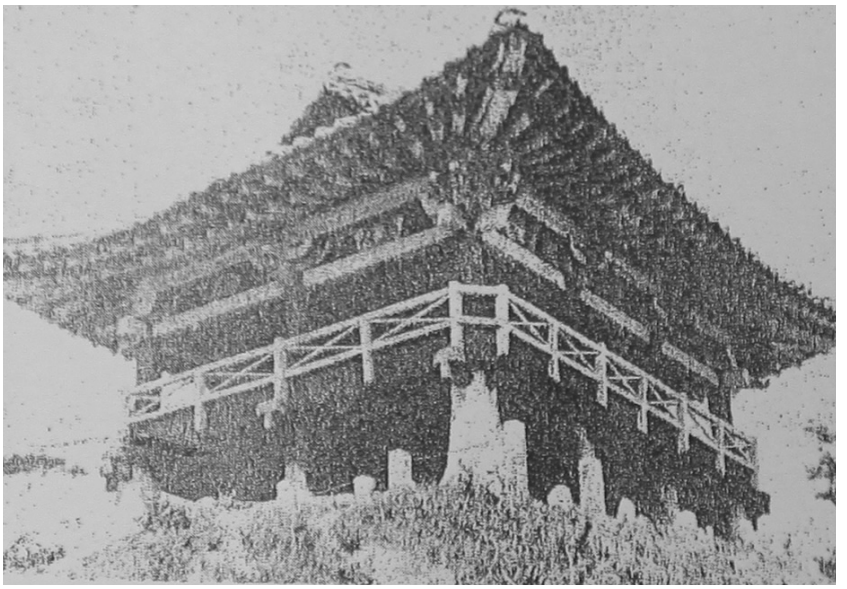
이승만 대통령 낙산사 낙성식 시찰 (1953.4)

재건된 낙산사 원통보전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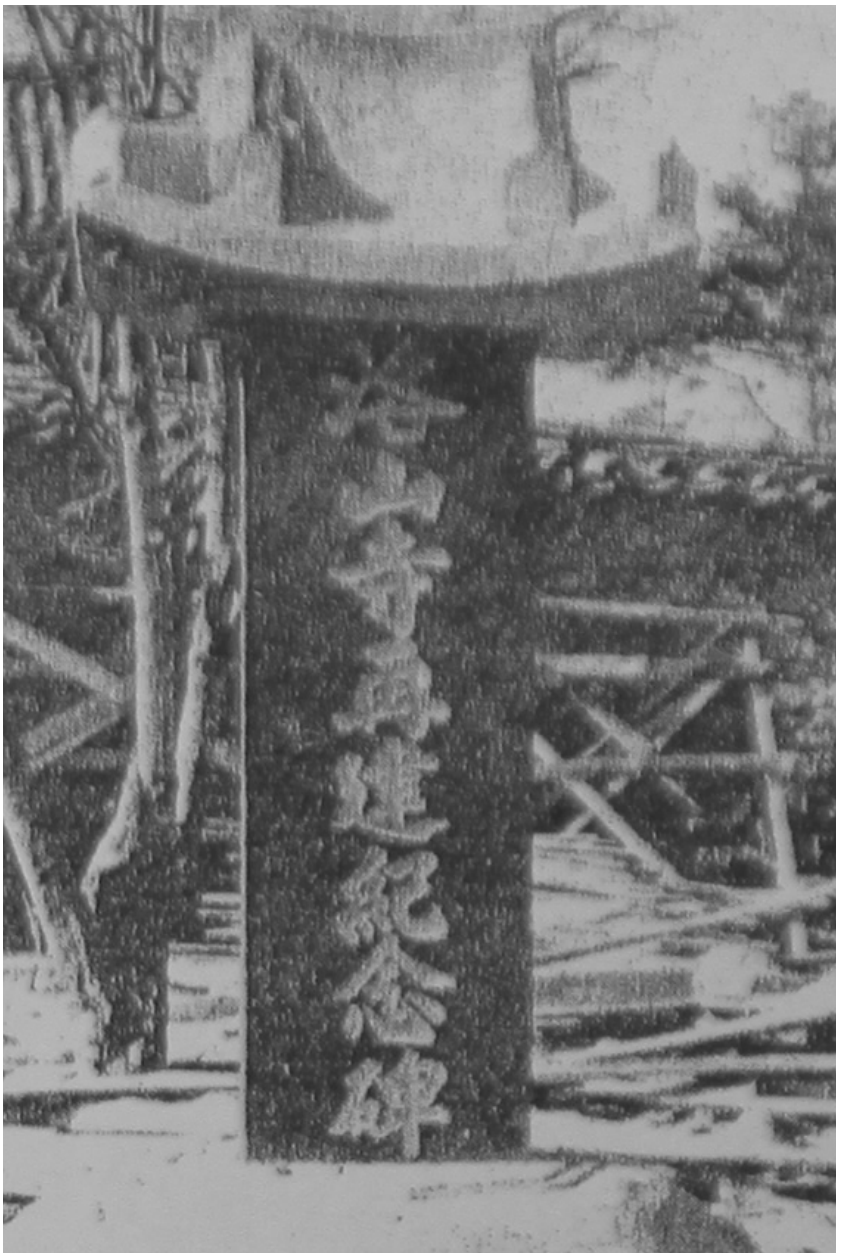


의상대 전경 (1953)

청간정을 시찰하는 이승만 대통령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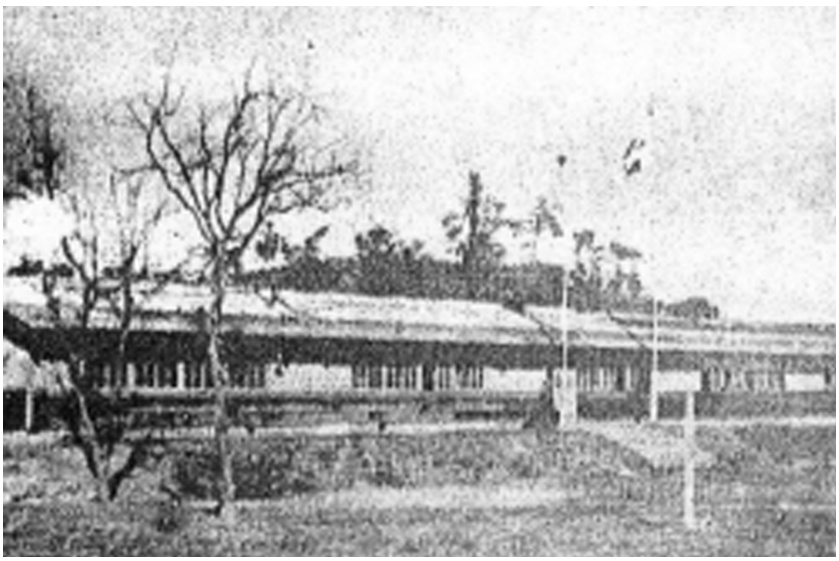
재건된 청간정 (1953)



낙산사 재건 기념비 (1953)

9 건물

양양군청 (1953)



재건된 양양중학교 (1953)

10 군작전

38도선 돌파 (1950.10.1)

군수물자를 지게로 보급 (1951.2.4)

11 향토사연구소 활동

원고편집모습 (1)

원고편집모습 (2)

차례

Ⅰ. 머리말 ---------- 46

Ⅱ. 군정지역의 정책 ---------- 48
1. 양양에 대한 군정의 배경 ---------- 48
2. 군정의 시기 ---------- 50
3. 유엔군의 참전과 작전지휘권 이양 ---------- 51
4. 군정의 필요성 ---------- 53
1) 군사전략적 거점 ---------- 53
2) 사회주의사상 순화 ---------- 55
5. 군정의 통치권 ---------- 56
6. 군정의 운영체계 ---------- 60

Ⅲ. 민사군정 ---------- 61
1. 개요 ---------- 61
2. 군정 시 군정조직 ---------- 62
3. 산업단체 ---------- 66
1) 수산기관 ---------- 66
2) 금융기관 ---------- 67
3) 교통 · 통신기관 ---------- 67
4) 보건의료기관 ---------- 67
4. 군정목표 ---------- 67
1) 생활안정과 향상 ---------- 68
(1) 기초생활보장 ---------- 68

(2) 귀농선 설정 ---------- 71
(3)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 ---------- 72
(4) 교통 · 통신 · 신문 ---------- 74
(5) 의료구호시설 ---------- 74
(6) 명승고적의 복구 ---------- 75
(7) 치산치수 ---------- 78
2) 교육의 재건 ---------- 79
3) 산업의 진흥 ---------- 84
(1) 토지등록대장 및 소표작성 ---------- 84
(2) 농경지 이동과 분쟁사건 조정 ---------- 85
(3) 수리 보 및 저수지 수축 ---------- 85
(4) 농업행정 ---------- 86
(5) 비료 입하 상황 ---------- 86
(6) 농기구 입하 ---------- 86
(7) 축산행정 ---------- 87
(8) 종축장 설치---------- 87
(9) 가축 치료소 설치 ---------- 88
(10) 돈 페스트 예방접종 ---------- 89
(11) 토지수득세 징수 및 배급 상황 ---------- 89
(12) 어업행정---------- 90
(13) 산림행정---------- 91
(14) 양잠행정---------- 92
(15) 상공행정---------- 93
(16) 도량형기 개량 ---------- 94

(17) 전매품 도입 ---------- 94
5. 종교시설 및 고아원설립 ---------- 94
1) 종교시설 ---------- 94
2) 고아원설립 ---------- 95
6. 육군부대 창설 ---------- 96

Ⅳ. 민사행정 ---------- 98
1. 읍면행정 ---------- 98
2. 관재행정 ---------- 98
3. 사회행정 ---------- 99
4. 노무행정 ---------- 100
5. 세무행정 ---------- 100
6. 치안행정 ---------- 102
1) 경비조직 ---------- 102
2) 사찰활동 ---------- 104
3) 범죄발생 현황 ---------- 105
4) 수사상황 ---------- 108
5) 보안상황 ---------- 108
(1) 교통사고 미연방지 ---------- 108
(2) 환경청결 ---------- 109
(3) 접객부 일제동록 실시 ---------- 109
(4) 영업감사 ---------- 109
(5) 무기휴대요망 ---------- 109
7. 각종통계자료 ---------- 110

Ⅴ. 맺음말 ---------- 112

[부록1] 군정 때 겪은 이야기 ---------- 118

1. 포로수용소 탈출 ---------- 118
2. 미군부대와 공병단에 이발봉사 ---------- 120
3. 이승만대통령의 사진 ---------- 123
4. 세금을 배낭에 가득 ---------- 124
5. 성주엽 대멀내 방간 ---------- 126
6. 미국 군사고문단 지휘소 ---------- 127
7. 급수차가 물을 뽑아가도 ---------- 132
8. 치안대에 사환 ---------- 133
9. 치안대 훈련소 조교 ---------- 134
10. 미군부대 하우스보이 ---------- 135
11. 군함이 어린이 놀이터 ---------- 136
12. 하루에 쌀 2되 ---------- 137
13. 군함에서 고철을 뜯어 ---------- 138
14. 양양고등학교를 설립 ---------- 140
15. 첩보부대가 침투 ---------- 141
16. 남한에서 제일 긴 다리 ---------- 143
17. 동 파이프를 뜯어서 ---------- 146
18. 학교가 불에 타서 ---------- 147
19. 여운포 들판이 ---------- 148
20. 고무신이 아까워 ---------- 150

21. 돈을 몸에 품고 ---------- 151
22. 1군단 민사처 ---------- 152
23. 기차정거장 빈집 ---------- 154
24. 비행기를 녹여 지게로 ---------- 155
25. 숯을 굽는 기술자 ---------- 157
26. 몰수당했던 땅 ---------- 159
27. 영어 배우려 하우스보이 ---------- 160
28. 책상은 포탄상자 ---------- 162
29. 조모가 사망하자 동내분들이 ---------- 164
30. 비행기 잔해 ---------- 167
31. 방간 집에서 공부 ---------- 168
32. 강현국민학교 교감 ---------- 170
33. 명륜중학교 수학교사 ---------- 171
34 학교수업은 천막 ---------- 172

[부록2] 군정의 체험수기 ---------- 175

1.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소장	이종우(李鍾寓) -- 175
2. 양양교육청	전 교육장	김종극(金鍾極) -- 195
3. 강현면사무소	전 총무계장	장영철(張英哲) -- 201
4. 양양군재향군인회	전 지회장	최지훈(崔祉勳) -- 218
5. 양양무공수훈자회	전 지회장	최홍제(崔弘濟) -- 223

Ⅰ. 머리말

한반도 동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양양은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은 인제군, 남쪽은 강릉시 · 홍천군, 북쪽은 속초시와 인접하고 있다.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는 태백산맥(太白山脈)이 가로놓여 동서로 나뉘며, 예전엔 신라와 고구려의 변방이었던 지역으로 고려시대의 '안축(安軸)' 은 양양은 전란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서 덕과 재주를 지닌 인물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양향교를 지어 인재 양성에 힘썼다고 전한다.

조선시대 세종지리지(1454) 양양도호부 편에 의하면 부 서쪽 인제경계는 지세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요새(要塞)라 하였고, 성종 23년(1492)조산에 대포수군만호 배치와조선 시대 강원도를 방위하기 위해 만든 군사 조직인 진관(鎭管)편성표에 양양도호부는 국방체제상(國防體制上)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양양의 3 · 1운동은 1919년 4월 3일 밤부터 준비하여 4월 3일~4월 9일까지 7일간 전개 하였는데, 각 읍 · 면에서는 장꾼을 가장해 일반서민들이 양양읍 장터에 6,000여 명이나 모여들어 치열한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전국에서도 이 지역 만세운동은 높게 평가 받고 있다.[1)]

"본군은 원래 1읍 8면으로 구획되어오다가 8 · 15해방 후 38°선으로 최남단인

1) 『설악신문』(양양 3 · 1만세운동 재조명, 2003. 3. 3)

현남면과 현북면 일부가 정치적 분할로서 강릉군에 임시 편입 되여 1읍 7개면이 5년간이나 공산치하에 있다가 국제연합군의 북진으로 탈환되어 현 제1군단 관리 하에 자유세계의 원조로서 정치 · 경제 · 교육 · 문화의 모든 부문에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었다." [2]

미군정(美軍政)이라 하면 1945년 해방시기부터 1948년 8월 대한민국 단독정부 출범 전까지 실시된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는 모두 세 번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오늘 관찰하고자 하는 군정은 한국전쟁 당시 양양군만 실시된 세 번째 군정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38°선 이북지역인 강원도 7개 군[3] (양양 · 고성 · 인제 · 양구 · 화천 · 철원 · 김화)과 경기도 2개 군(연천 · 북포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으로 원주민 모두를 강제 피난(避難)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의 접근도 일체금지 되었다.[4] 그러나 유엔군대표인 미군은 양양군에 한해 예외로 휴전이 이루어 질 때까지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면서 미군정이 실시되었다.[5]

속초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 전선에는 미8군 제10군단을 비롯한 국군 1군단, HID, 동해사령부, 해병대 등 작전부대가 전진 배치됨으로써 군부대를 지원할 많은 민간인 군노무자가 필요했었고[6]

처음으로 점령한 사회주의 지역에 대해 사회주의적 요소와 적성(赤性)을 제거하고 민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글은 38°선 이북 양양을 중심으로 실시한 바 있는 미군정지역(美軍政地域)에 대해 당시 양양군에서 발행한 『민사현황(民事現況)』과 『약진도상의

2) 『민사현황』 (양양군, 4286(1953). 5. p. 1)
3) 한모니까, 「한국전쟁 전후 '수복지구' 의 체제 변동과정(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2009. 8. p. 184
4) 『속초문화』 제17호, 속초문화원. 2001(김귀옥, 「속초와 군정(1951.8~1954.11)의 인연과 현대적 의미」 p.50. 재인용)
5) 『양양군지』 (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pp. 305~306)
6) 『속초문화』 제17호, 속초문화원, 2001(김귀옥, 「속초와 군정(1951.8~1954.11)의 인연과 현대적 의미」, pp.50~54. 재인용)

수복지구(躍進途上 收復地區)』,『양양군세일반(襄陽郡勢一班)』, 『수복연감(收復年監)』등은 한국전쟁 시기 38°선 이북 양양군의 실정이 담긴 귀중한 군정사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부족한 부분은 미군정시기에 양양에서 겪었던 주민들의 면담을 채록(採錄)한 자료와 그 밖에 양양군의 미군정 통치와 관련된 학술지와 보전된 논문을 바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Ⅱ. 군정지역의 정책(軍政地域政策)

1. 양양에 대한 군정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은 피점령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최고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를 통해 피 점령지 정치 · 경제체제의 개혁, 즉 점령국에 자국체제의 이식(移植:어떤 사상이나 문화 따위를 다른 나라로 옮겨 영향을 미침)을 시도했고[7] 소련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배타적 분할 점령 방침을 한국 · 일본 등에 적용했다.

미국이 한반도 점령정책은 남한을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지대로 만들고 일본과 더불어 남한에 대사회주의(對社會主義) 전초기지를 수립하는데 있었다. 이를 『주한미군사(駐韓美軍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38°선 이남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일본군 및 민간인을 철수시키는 것. 둘째,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이를 위해 일제통치와 한국정부수립 사이의 간극(間隙)을 메우기 위해 미군정을 수립하는 것, 셋째, 한국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점령함으로써 다른 세력이 한국 상황을 배타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미국이 독립 한국정부수립에 관여하기 위한 것. 그런 미국의 입장과 정책은 한국전쟁시기 점

7) 박찬표, 1997,역사학연구회 편집 재인용
8) 김귀옥,『경제와 사회 여름호』46호,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미군정 통치와 반성)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p. 32 재인용

령 및 군정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8]

이승만 정권의 경우 1950년 9월 이전까지 북한에 대한 기본입장이나 점령정책은 '실지회복' 이라는 구호 외에는 없었다. 1950년 10월에서야 이 정권은 내무장관을 통해 발표한 시정방침은 "북한지역의 모든 사법 · 행정은 대한민국 주관으로 하는 시정이 실시될 것이며 각 도별로 계엄사령부 관하에 민정관을 파견하여 말단 행정을 담당케 하며 지사, 군수 등 행정관을 배치할 것" 이라고 피력했다.[9]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희망이 현실화되기에는 미국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 합참본부는 1950년 9월 말경 「9 · 27훈령」을 '맥아더' 사령부에게 보내 북한점령정책을 내놓았는데 미국의 북한점령정책의 주요 원안은 다음과 같다.

> 가급적 외국군의 참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북한공산군의 무장해제와 잔적 소탕은 한국군 에 위임하며 유엔군은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군사작전과 점령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 으로 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북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10]

미국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통치권은 미국이 대표로 하는 유엔군이 장악하는 원칙 하에서 한국군의 협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곧 10월 2일 미국무부 극동국의 북한점령계획에서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3단계 점령계획안은 유엔의 주도로 한반도에 전체 선거를 실시 후 점령군을 철수하고 통치권을 통일 한국정부에 점진적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주권은 남한정부가 갖고 있다는 이승만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침은 그대로 관철되었다. 점령지역에서 통치권은 유엔군, 즉 미국이 장악하되 남한의 경찰, 월남단체가 사실상 군정을 집행한다

9) 『동아일보』(1950. 10. 14, 재인용)
10) (Schnabal, 1972, 182)

는 미국의 간접적인 통치방식이 한국전쟁 동안 관철되었으며 점령지에 대한 군정실시 결정은 1950년 7월 7일과 10월 12일 유엔소총회 결의였다.

동년 7월 7일 결의로 유엔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주도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 통합사령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게 했다.[11]

1950년 10월 12일 결의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38°선 이남으로 제한된다는 점과 통합사령부가 잠정적으로 북한점령지역 통치를 맡는다는 점이다. 군정체계는 군사적 명령체계와 일치하였다. 통합사령부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 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미 군단, 그리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 한국 군단에 의해 현지 군정이 실시되었다.[12]

2. 군정의 시기(軍政時期)

한국 현대사에서 모두 세 번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그 첫 번째 미군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이남은 1945년 9월 9일부터 미군이 진주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시기이며, 두 번째 미군정은 6 · 25한국전쟁 기에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지역을 일시 점령하던 시기인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대략 45일간 실시되었다.[13]

이때는 전쟁 중이므로 주민들도 전쟁에 휩쓸려 생존을 위협받고 피란생활이나 동굴 속에 숨어 힘겹게 지내던 시기이다. 세 번째 미군정은 당시 38°선 이북지역 중 양양군지역에서만 군정을 시범 실시한 6 · 25한국전쟁 중인 1951년 7월 4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3년 7월 27일까지로 보며, 실제는 한국군으로부터 민정이양이 된 1954년 11월 17일 인수하기 전까지 3년 4개월이다.[14]

---

11) 『역비논단』(한모니까, 유엔군 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이양, 군정체계, 2006. p. 362)
12) 『역비논단』(한모니까,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이양,「역사비평」역사비평사, 2008. p. 364)
13) 『양양군지』상권(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p. 305)
14) 『양주지』(양양군, 1990. p. 149)

3. 유엔군의 참전과 작전지휘권 이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하루만인 6월 26일 04시(한국시간) 유엔은 "북한군은 즉각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한강철교 폭파 직후인 28일 04시(한국시간) "유엔군파병"을 결의 유엔의 신속한 참전결의에 따라 '맥아더' 원수는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4사단이 7월 1일 이동하여 7월 5일부터 한국전에 참전하였다.[15]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유엔군사령부 설치결의안을 7월 7일 채택했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지휘하게 되는 통합사령부의 발족이 이루어진 것이다.[16]

한국정부도 유엔의 7.7결의에 따라 국군의 작전권 이양문제를 검토한 끝에 7월 13일부터 육군본부도 미 제8군사령부와 합동회의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합동작전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유엔은 미국에게 유엔군사령부 설치와 사령관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유엔기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5일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위임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것이 미군에게 국군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6 · 25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15) 『월간신문 (나라사랑)』국가보훈처, 2014. 7

16) 결의안 요지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해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유엔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제 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설치하고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3개 사단중 제24사단에 이어서 제25사단, 1기병사단이 부산과 포항으로 7월 22일까지 이동하여 참전하였다.

이후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전선을 정비하고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동년 12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1951년 1·4후퇴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강원도 삼척까지 후퇴하였다가 1951년 3월에 재 북진하여 양양지역은 다시 수복되었다.

> 전시 작전권 이양문서
>
>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연합의 군사적인 공동노력으로 말미암아 귀하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과 그 인접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국제연합군이 귀하의 작전 지휘 아래 편입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본인은 현재의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을 귀하에게 이양함에 있어, 직접 귀하 자신이나 대한민국 내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동 작전지휘권 행사에 관하여 귀하에게서 권한을 받은 특정 또는 각급 지휘관들이 동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이양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 대한민국 국민은 귀하의 작전 지휘 아래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도 또한 우리들의 공동의 전투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우리들이 자랑하는 조국의 독립과 통일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가증스러운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힘을 뭉친 국제연합에서 위임된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고명하고 탁월한 무인에게서 받게 된 사실에 대해 긍지와 고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 · · 〈생략〉 · · · [17]

17) 『중앙일보사』 편.(『민족의 증언』1983, p. 304 재인용)

4. 군정의 필요성(軍政必要性)

미군정이 시작되던 1951년 7월 4일 유엔군이 점령한 38°선 이북지역은 강원도의 양양군과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김화군과 경기도 2개 군의 연천군과 북포천군이다. 그 지역 가운데 전선과 접하지 않은 양양군에만 민간인들이 거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양양지역에만 군정을 실시했던 것일까? 좀 더 구체적인 군정 실시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1952년 38°이북지역인 양양과 속초지역을 방문했던 첩보원 '오스본(J. Osborne)' 의 보고서를 보자[18] 이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점령과 통치의 목적은 한마디로 각종 '실험' 이다. 즉 주한 미군은 그 지역에 대해 정보실험과 교육실험, 공산주의 행정연구, 피폐한 지역 재건 등을 목표로 군정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군사전략적 거점(軍事戰略的據點)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이 지역이 군사 · 전략적 거점의 중요성이며, 둘째는 과거 공산주의 지역의 사회주의 요소 제거 및 재건문제에 대한 실험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후방군수지원을 위한 특성은 수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군정의 실시를 필요로 했다.

속초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전선에는 미 제8군사령부 제10군단을 비롯한 국

18) J.Osborne, "Field Report on Yang Yang Gun. North Korea"Liaison Officer.USIS.1951.),pp. 19~222.김귀옥 위의 글 재인용 "나는 이 지역이 많은 정보실험과 교육실험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곳을 계속해서 공백지역으로 내버려두는 상태에 대해 의문시한다. 물론 그 곳은 철의 장막이 몇 마일 뒤로 밀리게 될 러시아제국의 주변부에 속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행정연구와 공산주의 지역의 재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군 1군단사령부, HID 동해사령부, 해병대, 커크랜드(Kirkland)특수임무부대, 아벤리(Avanlee)부대, 토치라이트(Torchlight)부대, 켈로(KLO)첩보부대 등과 같은 미군과 국군 유격대가 주둔해 있었다. 따라서 적게는 몇 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속초를 거점으로 동해안 지역에 급작스럽게 배치되어 군부대를 지원할 여러 종류의 민간인 군노무자가 필요했다.

〈민간인 군노무자 활동〉

속초에는 100여단 군노무단 부대(부대장 오광선 대령)가 창설되어 몇 천 명이 복역(服役)하다가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9월에야 해산되었다. 노무부대는 수송, 보급, 잡역을 겸한 1인 3역을 담당하였으며 전후방에서 국군뿐 아니라 미군에도 배속되어 수많은 탄약과 식량, 무기를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하였다. 특히 무더웠던 날씨에 치러졌던 산악 고지 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무단소속의 노무자 외에도 속초의 미10군단은 급작스럽게 4곳의 부두를 만들어 미군의 군수 물자를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엄기호 증언 재인용) 하역 및 운송을 '상호운수주식회사' 라는 미군의 용역하청회사가 담당했다. 이 회사에는 평균 500~600여 명의 노무자가 고용되었다.

노무자의 70~80%는 월남인(피난민) 이었으며 국군 1군단도 수많은 민간인들을 임의로 고용했다. 1951년 7월 4일부터 양양군에 미군정을 실시하였지만 원주민(原住民)이 아닌 타 지역민들은 임의로 양양군에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되었고 연고 없는 이주민들은 추방당하는 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했다.

그런데도 군부대는 군 후생사업(軍厚生事業)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월남인[피난민]들이 포함되었다. 민간

인들의 임무는 첫째 군부대의 부식으로 쓸 어류를 잡아주는 일, 둘째 원산 앞 여도, 함북의 성진 앞 양도 등의 도서에 주둔해 있던 국군이나 유격대, 첩보부대 등에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일, 셋째 육군첩보부대(HID)나 미군부대, 육군 소속 첩보부대 활동을 지원하는 일, 즉 첩보원들이 북한지역에 침투 하거나 작전을 수행한 후 돌아올 때 배로 실어주는 일 등이었다.[19]

월남인[피난민]들이 1951년 이래로 양양군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다와 관련된 '군 후생사업' 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일제강점기 양양군 속초에는 어업종사자는 20% 미만이었으나 그들에 비해 농업종사자는 68%로 훨씬 더 많아 속초는 농업지역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955년 직업별인구를 보면 속초 전체인구 2만 3,699명 가운데 농업인구가 4,901명(20.7%) 어업인구는 5,666명(23.9%)이었다.[20]

특히 월남인[피란민]들이 주로 거주했던 속초 청호동의 경우에는 거주민의 과반수가 어업에 종사했다.

양양군에 수많은 군부대가 들어오자 동부전선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선에 전직 어부출신의 노무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노무자로서 월남인(피난민)의 상당수가 충원되었다. 또한 양양군, 특히 속초가 군사전략적 거점이 되자 그와 동시에 수송산업과 같은 기간산업이나 군인, 민간인을 상대로 한 상업 등도 필요했다.

2) 사회주의사상 순화(社會主義思想 醇化)

종래 공산주의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적성(赤性)을 제거하고 순화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기획은 군정을 요구했다. 유엔이 점령한

19) 김귀옥,『경제와 사회 여름호』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2000. 손봉만(남, 90세, 청곡2리), 면담(2015. 4. 17)

20) 『읍세일람』(속초읍난민구호상황, 1955. p. 14)

38°선 이북 양양지역은 역사적으로 3·1운동으로 민족사상이 급진적으로 팽배하여 주민의 자주정신은 계몽되어 군내 청년회와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순수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으나, 소련에 유학파가 귀국하면서 사회운동은 소련 예찬파가 군 내 모든 기관을 점유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주민에게 파급되어 있었다. 이렇게 5년간 사회주의 혁명[민주개혁]을 맞던 중 한국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1946년 토지개혁을 통해 5정보 이상 되는 지주의 토지는 모두 무상 몰수되어 모든 농민에게 일정한 점수에 따라 무상분배 되었다. 또한 한인 소유 중 소규모 상업이나 수공업의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허용되지만 일본인이 소유했던 산업의 경우에는 국유화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일부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북한 영토를 점령하고자 희망했던 유엔군이나 이승만정부로서는 점령지역 주민을 어떻게 순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21]

5. 군정의 통치권(軍政統治權)

1950년 6월 25일 이후 계속 전선이 급변하다가 1951년 6월경이 되면서 현재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교착(膠着)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38°선이 그 단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즉 서부 전선에서는 북한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북방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중·동부 전선에서는 유엔군과 국군이 경기 일부와 강원도 38°선 이북지역을 점령하게 된다.

이때 점령한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1951년에서 휴전 때까지 남북한 정부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었고 유엔군사령부의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이 지역의 행정권은 현지 군 지휘관[사단장]의 명령아래 민간인 출신의 민정관이 임명되어

21) 김귀옥『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12]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 198~205)

관장하고 있었다."[22] 실제 1군단 군정사령부에서 민사를 담당하였던 당시 민사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유엔군 수복지역[23]인 양양군에는 계엄지역으로 선포되었고 군단장이 계엄사령관을 겸했다. 군정이 실시되면서 대한민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나는 1951년 초겨울부터 AG로 일하다가 1952년 민사처가 승격되면서 처장을 맡게 되었다. 내가 있을 때만 해도 민정관은 군단장이 임명했다. 미8군사령부 10군단은 국방군 1군단에 대해 작전지위권을 가졌고 미고문단을 파견했고 민사에도 미 고문관을 파견했다. 고문관은 최종결정을 했으나 한국 민정관은 미고문관과(1군단) 민사처장의 감독을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민정을 수행하여 민정실무에 대해서는 간섭받지 않았다.

민사처장의 상황설명에 따르면 1954년 이전에는 38°선 이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고 미 8군은 1군단에 대해 지휘권을 가졌으며 유엔군 고문관은 최종결정권자로서 국방군이 군정을 통솔했다. 그런데도 군정 자체는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육군3사단 38°선 돌파 기념〉

1950년 10월 1일 05:00(일요일) 국군 3사단은 제23연대(김종순 대령) 3대대(허영순 소령)를

22) 『고성군지』(강원도 고성군, 1986, p. 195)

23) 『역비논단』(한모니까,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 정책과 행정권이양 P. 361) 수복지구라 불리는 지역은 한국전쟁 전에는 38선 이북으로 북한에 속했고, 전시에는 유엔군의 점령상태에 있었으며, 전후에 한국 정부로 이양된 지역이다.

선봉으로 역사적인 38°선 이북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양양 38°선 지역에서 인민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그날 10시경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구겨진 태극기를 펴들고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북진하는 국군에 환호했으며[24], 이로써 5년간의 공산치하에서 고초를 겪던 양양군민들은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또 10월 2일 오후에는 제3사단 지휘소가 양양으로 이동해 왔다.[25] 이때 지방 유지들은 10월 4일 치안확보를 위하여 군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진공상태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였다.

군자치위원회 구성은 1950년 이전 공산주의가 싫어 월남했던 반공주의자들이 유엔군과 함께 들어와 치안대 및 반공단체를 만들고 당시 단체구성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지역에 남아 있던 반공주의자로 구성되었다.[26]

1950년 10월 유엔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했을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38°선 이남으로 제한되었다.[27] 이승만 정권의 점령정책은 '실지회복(失地回復)' 이라는 구호와 1950년 10월 12일에서야 내무장관을 통해〈북한 시정방침〉을 발표했다. 그 방침은 북한지역의 모든 사법 · 행정은 대한민국을 주간으로 하는 시정이었다. 하지만 미 합참본부는 1950년 9월 말경 〈9 · 27훈령〉을 맥아더 사령부에 보내 북한점령정책을 내놓았다.[28]

그 내용은 북한공산군의 무장해제와 잔적소탕은 한국군에게 위임하며 유엔군은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군사작전과 점령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

24) 『속초시사』(속초시사편찬위원회, 2006. P. 336)
25) 『23연대 전투사』 (백골전우회(왕선구), 2006. 4)
26) 이종우(남, 82세, 손양면 수여리) 면담 (2015. 9)
27) 이한길『양양의 6 · 25비화』(양문화원, 2009. p. 261)
28) 김귀옥,『경제와 사회 여름호』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미군정 통치와 반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p. 34

이런 계획에 의거 미국은 양양군에 대한 통치권(sovereignty)을 행사해 나갔다. 미국은 유엔군이 점령한 이 지역의 민정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아래 두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UNCURK)이 지역민과 한국정부 모두에 대해 권고나 상담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 지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정치안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10월 12일 유엔소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통치권 및 행정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그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1950년 12월 28일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삼척까지 피난하였다.

1951년 3월 27일 국군의 진군으로 재 수복 된 후 민간인들이 입주하게 되자, 1951년 7월 4일 미 제8군사령부 행정명령 제34호 부령에 의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1951년 7월 5일 군자치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군민정관에 박종승(朴鍾勝), 치안대장에 '김민하(金敏河)' 를 추대하고 행정적 질서유지와 국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협력사업 및 난민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51년 8월 1일 제1군단 관하 『지방자치행정잠정규정』에 의하여 군청을 양양면에 두고 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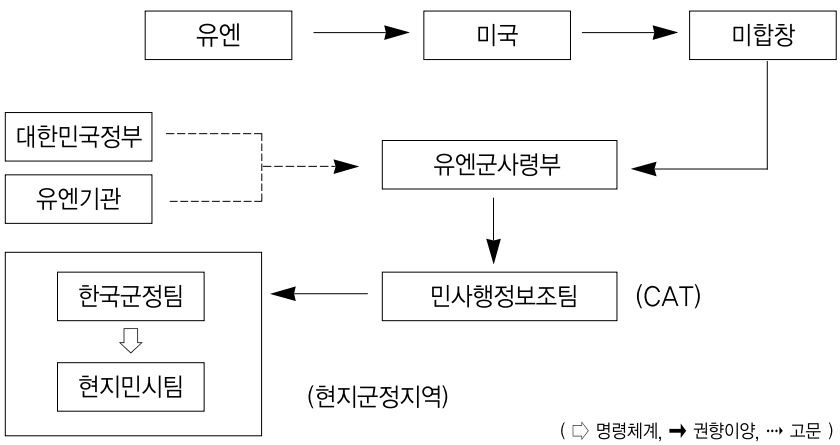
〈1 · 4후퇴 시 피난민 대열〉

29) 김귀옥,『경제와 사회 여름호』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미군정 통치와 반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p. 36

6. 군정의 운영체계

양양군 지역에 대한 유엔군정의 통치구조는 군사지휘체계와 일치한다. 유엔은 한국전쟁발발과 함께 미국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로 하여금 군사력 및 각종 원조를 운용하도록 했다. 미국은 1950년 7월 10일 극동사령관이던 '맥아더' 를 통합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맥아더' 는 1950년 7월 25일 도쿄총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그 후 극동사령관, 통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미국합동참모부로부터 부여 받았으며, 미8군에도 한국의 지상군 작전책임을 명하였다.[30]

〈미군정 통치구조〉



(출처: 김귀옥,「속초문화」17호(속초와 군정의 인연과 현대적 의미, 2001. p. 52)

30) 한모니까,『역비논단』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이양,「역사비평」역사비평사, 2008. p. 364

유엔군사령관은 이 지역 내 군정의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 아래 미8군사령관, 민사처장, 군단장을 통해 직무를 수행했다. 맥아더는 이 지역 내는 물론 북한 점령지역까지도 관할하는 군정의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유엔군사령부 내 한국민사원조처장(Commanding General, Korean Civilian Assistance Command : CG KCAC)은 한국에서의 모든 민사군정 기능을 관리하고 군단과 사단에 민사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의 지시를 받았다. 미8군 민사처가 민사군정 수행을 위한 명령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미8군사령관(벤플리트 장군 1951년 4월 14일 미8군사령관 취임)에게 조언했다. 미8군사령관은 그 책임을 휘하 미군단장에게 위임했다. 미군단장들은 군정장관의 직책을 다시 한국군단장에게 위임했다. 이 지역은 명목상 유엔군사령부의 내 민사행정보조팀(Civil Assistant Team)이 군정에 대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구체적인 집행은 한국 제1군단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만, 유엔군 민사행정보조팀(CAT)은 현지 군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되 한국 군정 팀에 집행권을 부여하여 형식적으로는 고문역을 담당하며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으며 군정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육군 제1군단 군정사령부였다.[31]

Ⅲ. 민사군정(民事軍政)

1. 개요

민사군정(民事軍政)을 실시하기까지 4283년(1950) 10월 1일 '대한민국군(大韓民國軍)' 이 본군에 입성(入城)하게 되자 군・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 진공상태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왔다. 동년 12월 28일 중공군의 남침으로

31) 『현산문화』23호(양양문화원, 2011. pp. 18~35)

국군이 후퇴하게 되자, 남하 피란하고 4284년(1951) 3월 27일 유엔군과 국군의 재 진군 수복으로 속속 민간인이 입주하였다. 동년 7월 5일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행정적 질서유지와 국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협력사업과 '난민구제사업' 을 하여 오던 중 한국 제1군단으로부터 『유엔군정법령』적용에 따르는 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4284년(1951) 7월 4일 군 · 읍 · 면 각기 민정관을 배치하고 행정체계를 구성하였다.[32] 민사행정의 경과는 4284년(1951) 8월 1일 제1군단관하『지방행정잠정규정(地方行政暫定規程)』에 의하여 군청을 양양면에 두고 군정관 휘하에 내무과, 산업과, 세무과, 치안과를 두고 내무과에서는 읍면행정, 학무, 사회, 회계, 서무를 관장케 하고, 산업과는 농산물 내 수산물생산 장려, 양정, 농정 임산, 상공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세무과는 직세, 간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치안과는 치안과장이 대장이 되어 치안대를 구성하고 읍 · 면에는 지대를 설치하여 경무, 사찰, 수사, 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왔다. 읍면에는 서무, 사회, 호적, 회계, 산업 등 읍 · 면 자치행정을 운영하였다.[33]

〈옛 양양군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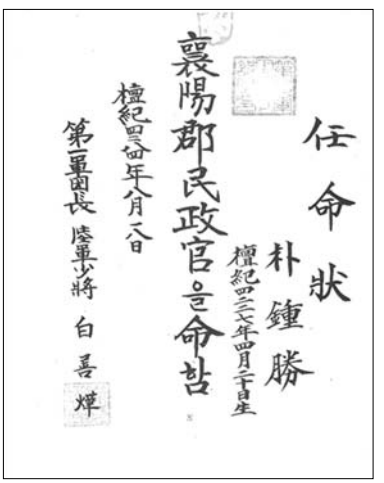
2. 군정 시 군정조직(軍政時郡政組織)

1951년 7월 4일 미 제8군사령부 부령『행정명령제34호』에 의거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양 · 고성지구에 주둔해 있던 국군 제1군단이 군정을 맡아 실시하게 되었다.

32)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3~4)
33)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3~4)

군단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현지 민사 팀 이었다. 이에 따라 양양의 8개 읍면은 수복이후 주민 총수 7만에 이르고 38°선 이북지역 총면적 (고성 · 간성지구 제외)은 582km²에 달하였다.

양양군내 전반에 걸쳐 1951년 7월 5일 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7월 10일에는 군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년 8월 1일에는 군 관하지구『지방자치행정잠정규정』을 공포하였다. 본 규정에 의거 각 이장 읍장을 선거한 다음 동월 10일에는 군(郡) 민정관(군수)을 선출 초대 민정관 박종승(朴鍾勝, 1951. 8. 10~1954. 11. 17, 3년 4개월 재임) 씨가 당선되었으며, 9월 19일에는 각 읍면 협의원을 선출하였다.[34]


任命狀
朴鍾勝
檀紀四二八七年四月十日生
襄陽郡民政官을命함
檀紀四二八四年八月八日
第一軍團長 陸軍少將 白 善 燁
〈양양군 민정관 임명장〉

선출방법은 학교를 다녔거나 북한에 부역하지 않은 사람 중에 북한을 반대한 학식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여 뽑고 이를 다시 사단장이나 민사처장의 추천을 받아 군정장관(제1군단장 백선엽)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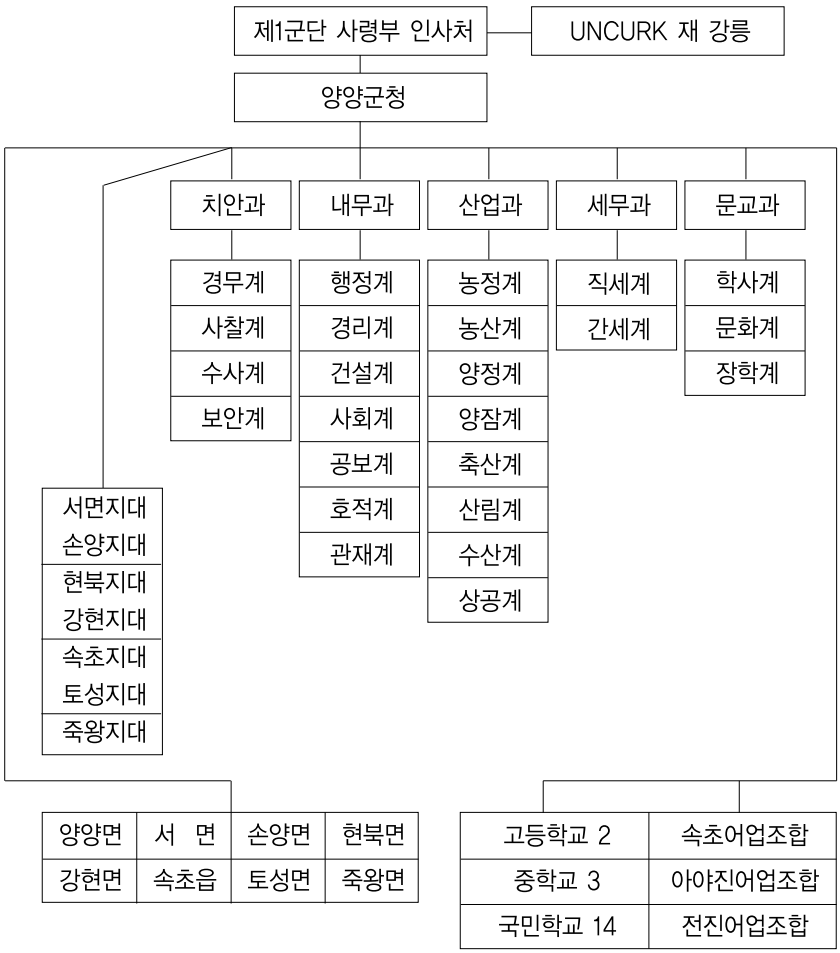
민정관(民政官)의 대주민 권한행사는 군부(軍部)의 영향력 아래서 가능했으며 민사군정 (民事軍政) 프로그램은 미군에 의해 기획. 지휘된 것이었다. 주택 및 공공시설은 미 제8군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과 자재를 받아 한국 군단의 공병대가 건설했다. 농기구, 농우, 의류 등 구호물자는 주로 유엔군사령관 산하 한국 민사원조처(KCAC)로부터 나왔다.

이와 같이 38°선 이북 양양지역에는 미군통제 아래서 한국군의 명령으로 군

34) 『현산문화』제23호(양양문화원, 2011. p. 20)

정이 실시되었으며 이곳에 한국 정부의 영향력은 없었다. 피란민들은 가는 곳마다 등록토록 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그 신분증으로 배급도 타고 통행할 때는 검문도 받았다.[35]

〈민사행정 체계도〉



(출처 : 양양군청 민사현황 1953)

35) 『민사현황』(양양군, 1953. 5.)

〈표 1〉 양양지역 군정 조직

기 관		권한 및 역할	자문기관	구 성
제1군단 사령부		· 군정의 전면에 등장 · 민사처를 통해 민정 실시	–	–
1군단장= 군정장관		· 군단장이 군정의 최고기관 · 민정부 설치를 명령 · 휘하각급 민정관을 지휘감독 · 포고를 발해 행정을 운영	민사조정 위원회	· 군정장관의 자문기관. · 군단참모로 구성
민사 팀		· 군정장관의 보조기관, 군정 실시 (행정상의 감독 및 활동) · 민사담당관들 대부분이 민간통치의 사전 훈련을 않은 직업군인 장교	–	–
민정부	군민정관 (군수)	· 부책임자로 부군수가 있음 · 휘하에 내무, 치안, 산업, 세무, 교육의 5과가 구성 · 휘하에 치안대 구성(사법 경찰권은 없음) 사상범은 CIC, 일반사건은 헌병대, 재판은 군법회의에서 시행.	군협의회	· 군정장관의 자문기관 · 면협의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 · 권한 : 군 예산, 결산을 의결. 단 군정관의 결재를 받음
	읍 · 면 민정관	· 동리장(洞里長)이 선거 선출	읍면 협의회	의원으로 구성. 정원은 1읍면 3~8명

(출처 : 양양군청 군세일반 1952)

〈표 2〉 군 행정구역 일람표

읍 면	리 동 명	계
양양면	군향, 성내, 구교, 연창, 송암, 청곡1, 2구, 포월, 조산, 사천리, 기, 감곡, 화일, 거마, 임천, 내곡, 서문, 남문1. 2구, 월리, 정손리	21
서 면	상평, 수상, 범부, 북평, 용천, 수, 내현, 서선, 장승, 논화리, 송천, 공수전, 영덕리, 오색리	13
손양면	하왕도, 송현, 상수여, 하수여, 금강, 송전, 가평, 오산리, 학포, 도화, 수산, 동호, 상운, 여운포, 하양혈, 상양혈, 밀양, 주리, 우암, 삽존, 와리, 상왕도, 간리	23
현북면	하광정, 도리, 말곡리, 상광정, 중광정, 기사문리	6
강현면	정암2구, 물치, 강선, 하복, 중복, 상복, 장산, 회룡, 석교, 간곡, 둔전, 물갑, 사교, 금풍, 침교, 적은, 방축, 광석, 답리, 전진1, 2구, 용호, 정암1구	24
속초읍	속초1, 2, 3, 4, 사진, 장천, 도리원, 이목리, 노리, 척산, 청대, 논산, 부월, 외옹치, 대포, 내물치, 하도문, 중도문1, 2구, 상도문1, 2구, 장항리	23
토성면	천진, 청간리, 아야진1, 2구, 교암, 백촌, 운봉, 학야1, 2구, 도원1, 2구, 성대1, 2구, 용암1, 2구, 신평, 봉포, 용촌1, 2구, 인흥1, 2, 3구, 성천, 원암리	24
죽왕면	문암1, 2구, 송암, 야촌, 삼포1, 2구	5
계		139

(출처 : 양양군 군세일반 1952)

※ 당시 현남면과 현북면 일부는 강릉군에 귀속(歸屬)되어 있었음.

3. 산업단체(産業團體)

1) 수산기관(水産機關)

1951년 12월 10일 제1군단 관할 '수산물통제에관한잠정규정' 에 의하여 수산관리소를 설치하였다가 4286년(1953) 5월 31일 해체시키고 동년 6월 1일 각 어

촌 부락에 어업조합원이 집합하여 조합 총대위원이 선출되었다.[36]

2) 금융기관(金融機關)

금융기관은 1953년 5월 25일 남한으로부터 금융조합이 들어와 구호, 조작, 현금보관 등 업무개시로 강릉금융조합 속초출장소를 설치함.[37]

3) 교통 · 통신기관

교통으로는 6 · 25전쟁 전까지는 동해북부선(1937년에 양양광산 자철을 운반하기 위해 안변~양양 간에 개설한 철로임)이 개설되어 기차운행이 되었고 우편국도 5개소나 있었으나 전란으로 파괴되었다. 육로로는 왜정당시 양양에서 강릉까지 여객 버스가 매일 6회 왕복 운행하였다. 당시 속초건설회에서 1군단과 협의하여 군용차를 민간인승용자동차로 대체(代替)하여 38°선에서 귀농선 문암까지 운행하였다.[38]

4) 보건의료기관

구호병원은 양양, 속초 교암에 3개소가 있었고, 민간병원은 군단의무부에서 면허증을 교부받아 각 읍면에 배치되었다.[39]

4. 군정목표(軍政目標)

잠정적인 행정조치로서 본의 아닌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군정목표를 다음과

36)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37)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37)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39)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둘째 교육의 재건, 셋째 산업의 진흥으로 결정하고 주민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고자 자녀교육도 이곳 학교에 입학시키어 수복지구 자녀들과의 어깨를 견주고 공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군·민(軍民)간의 위화감(違和感)을 해소하는 반면 일반 주민들에게 군(軍)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노력하였다.[40]

·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 교육의 재건
· 산업의 진흥

1)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1) 기초생활보장

육군 제1군단사령부에서는 '일면 작전, 일면 건설' 이란 구호아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병부대에서는 국유지에 집터를 마련해 주고 경계측량과 집터공사 지원을 했다. 또 건축용 재료 확보는 대부분 전쟁 전에 벌채한 나무들이며 제재소를 직접 설치하여 목재를 마련해 주었다. 반면 주택건축용 나무는 허가 없이도 벌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이웃끼리 합심하여 주택을 건축하면서 함께 살았다고 증언했다.[41]

피난길에서 돌아온 주민들은 식량이 없었다. 피란민에게는 한 달에 2회씩 배급하는데 마을의 구장이 면사무소를 방문 구호양곡을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배급하였다. 구호대상자에 지급한 양곡은 총9,887세대에 30,956명분인데 지급비율은 강현면이 30.3%, 죽왕면이 64.2%였다.

---

40) 『약진도상의 수복지역』(양양군, 수복지구 건설위원회 1953. 7)
41) 이상준(남, 84세, 강현면 주청리), 면담(2015. 8)

반면 구호품은 주로 안남미와 밀가루, 분유 등이다. 쌀의 경우 2가마니를 70여 가구에 배급 하니 식량이 늘 부족하였다.[42] 따라서 부족한 식량은 산과 들에 나는 산나물, 쑥, 질경이를 케어 허기를 면하였고, 해안가 어부들은 해초류 등을 채취하여 식량 대용으로 끼니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43]

〈구호양곡 배급〉

〈양양시장 장터풍경〉

정말로 초근목피로 식량을 대신하는 궁핍한 생활이었다. 의복, 식료품, 농기구 비료 등 생활용품이 너무도 많이 부족했다. 이때 군단사령부에서는 유엔군사령부 내의 한국민사원조처(KCAC)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구호식량과 물품을 도입하고 요구호대상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일시적 생계에 보탬이 되었다. 구호 물품은 군, 면 민정관이 강릉동해사령부에서 수령하여 온 것을 읍면에서는 각 마을 이장을 통해 구호대상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요구호대상자였다.

시장(市場)을 개설하여 부족한 생필품을 구입 및 판매할 수 있게 하였는데 5일장으로 매 장날이면 각지에서 장꾼들이 몰려들어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반면 속초지역의 상거래는 1953년도에 현 중앙동에 2개 동(棟)의 현대식 상가건물이 신축되면서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화폐는 대한민국에서 1953년

42) 『수복연감』(강원문화연구사, 양양군청, 1954. 6)
43) 이철수(남, 73세, 강현면 전진1리), 면담(2015. 9)

2월 25일 교환한 지폐를 사용하였다.[44]

기 개설 운영되는 시장의 실태를 살펴보면 농 · 어촌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몰래 빼돌린 군수물자들이 상품으로 나왔다. 심지어 빈민구호로 나온 식량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의약품, 자재 등도 빼돌려 시장에 상품으로 나오는 실정이었다.[45]

이와 같이 양양군, 특히 속초가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급격하게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자 이에 따른 군인, 군속, 민간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표 3〉 요구호대상

구분 / 면별	총 인 구		구호대상자 수		비 고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양 양	1,506	7,474	1,047	3,141	42.0%
서 면	522	3,231	484	1,579	48.9%
손 양	1,272	6,695	732	2,357	35.2%
현 북	473	2,276	268	758	33.3%
강 현	1,321	6,939	879	2,103	30.3%
속 초	3,661	16,213	2,204	7,364	45.4%
토 성	2,869	13,361	2,520	7,915	59.2%
죽 왕	2,037	8,937	1,753	5,739	64.2%
계	13,721	65,126	9,887	30,956	47.5%

(출처 : 양양군,「수복연감」, 1954)

44) 김귀옥『경제와 사회 여름호』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미군정 통치와 반성)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00. p. 재인용

45) 김귀옥,『경제와 사회 여름호』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미군정 통치와 반성)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00. p.이동호의 증언 재인용

〈표 4〉 구호물자 입하현황

모포	의류	식료	피화	포단	일용품	식염	천막
9,103	25,771점	2,312점	2,245 족	144점	4,552	1,224호	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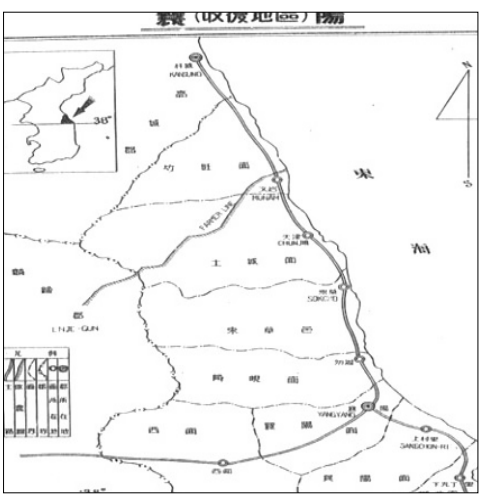
시멘트	비료	제초기	보습	쟁기	낫	합 계
200	50포	30개	160개	90개	902개	46,585

구분	외미(kg)	소맥(kg)	대맥(kg)	고량(kg)	정수수(kg)	계(kg)
수량	402,510	275,092	332,90	512,017	54,060	1,576,583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2) 귀농선 설정(歸農線 設定)

4284년(1951) 7월 4일 미제8군사령부의 합의하에 귀농선(farmer line)이 토성면에서 죽왕면 일부까지 설정 되자, 이곳 원주민들은 그동안 경지면적이 부족하여 쌀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 활로를 찾게 해주었다. 특히 귀농선(歸農線) 설정으로 양양군의 속초읍, 토성면 일부와 죽왕면 문암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큰 힘이 되었다.[46]



〈귀농선 표시도〉

군 장병들은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었음에도 틈을 내어 농번기에는 대민지원 사업을 펼쳐 부족

46) 『약진도상의 수복지구』 (양양군,수복지역건설위원회,1953. 7. p. 20)

한 인력을 해소시켜주어 군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란에서 돌아온 농부들에겐 농사일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유는 귀향해 보니 과거의 집은 전화로 소실되고, 농기구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피란 전에 묻어 놓았던 볍씨의 일부를 건질 수 있었는데 이를 꺼내어 볍씨를 담으려 하였으나 단지가 없어 마대나 가마니에 볍씨를 넣고 논물에 담가 싹을 틔워 모내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47]

(3)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

군단에서는 "일면작전 일면건설"이라는 표어 아래 도로교량의 복구공사를 우리공병대원들의 손만으로서 속속 완성하였다. 양양읍 앞쪽으로 흐르는 남대천에는 우리 공병대 1101부대의 혈한(血汗: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양양교가 가교되었다. 300m에 달하는 이 교량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군용교량으로써 최초의 가설이요 최장의 교량이다. 자랑할 만한 우리 공병대의 특출한 기술은 가교공사에 있어서도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른 복구사례를 살펴보면 양양읍내의 관문인 양양 남대천 교량 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양양 남대천 교량은 일제가 놓은 목교였으나 6 · 25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교량은 절단되어 통행할 수 없었다. 그러자 지금의 여성회관 쪽에 임시 남대천 교를 가설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양양목교 가설당시(1952년)에 약관(弱冠)인 23세에 공병소위로 임관되었다. 임관되자 배속부대는 1101야전공병단 102대대 양양대교 건설현장이었다. 당시 공사 감독은 전 공병단장인 서윤택 대령이었고, 공사현장에는 병력 30~40여 명이 고작이었다. 교량공사에 필요한 자재 수급은 육군 제1801부대에서 지원되었다. 특수 장비는 크레인, 컴프레서, 불도저, 발전기, 용접기 등 이었는데 601경장비 부대에서 지원

47) 이종하(남, 77세, 강현면 전진1리), 면담 (2015. 8)

됐다. 공사방법은 목재에 방부제를 발라 파일을 박고 그 위에 교각을 세웠는데 공사기간은 1952년 여름-초겨울까지 약 3개월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300여 m나 되는 긴 교량을 준공하게 되었다."[48]

〈양양 남대천 목교 전경〉

그리고 동 부대(1101)에서는 원암에서부터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이르는 구간도로 32km를 새로 개설하였는데 동 도로는 일찍이 일정 때 3년 9개월이나 걸리면서도 개통을 보지 못하던 도로를 양양군민들과 군부대가 협력하여 완료하였는데, 공병부대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양양주민들은 인력동원에 적극 동참하여 착공 6개월 만에 난공사 구간을 완공 개통함으로써 종전보다 40km를 단축할 수 있었다.

〈미시령 고갯길 충통 각자〉

도로의 명칭은 당시 군부에서 충통로(忠通路)라 명명(命名)[49]하였는데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미시령 옛 도로 정상의 암반에는 충통(忠通) 4284년(1951) 10월 일 1101야전공병단이라고 한 각자(刻字)가 또렷이 보인다.

48) 양재억(남, 85세, 양양읍 남문1리) 남대천 교량공사 당시 공병소대장, 면담(2015. 8. 10)
49) 『현산문화』제23호(양양문화원, 2011. 12. 28, pp. 24~25)

(4) 교통, 통신, 신문

교통에 관하여는 6 · 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일제강점기 양양광산의 자철을 운반하기 위해 동해북부선 개통으로 양양에서 원산까지 기차가 운행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철로와 기관차(機關車)가 모두 파괴되어 운행은 중단되었다.

1군단장은 1952년 4월 20일 속초건설회사에 민간차량이 없어 귀농선 이남지역의 영농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군용차를 이용토록 배려하여 줌으로서 양양의 38°선에서 귀농선인 죽왕면 문암리까지 영농이 가능했다. 당시에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없었다면 출입영농은 감히 엄두도 못 내었던 것으로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었다.

반면 서울로 가려면 진부령을 넘어 새벽에 떠나면 해가 질 무렵이라야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당시의 교통수단은 극히 빈약한 상태이어서 사람들 대다수는 걸어서 다녔고 짐은 지게로 운반하거나 아니면 우마차로 짐을 운반하였다.

통신수단의 실태를 보면 민간용은 전무한 상태이며 군용선을 이용한 행정기관에만 설치 이용되었다. 언론기관으로는 제1군단에서 종군신문으로 제작되어 전황을 알리고 중앙소식과 지역소식을 함께 지역주민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식을 전했다. 그러던 1952년 4월 15일 『동해일보』를 창립하여 사장에 김진익을 총무국장에 박천복을 각각선임하고 4월 17일 본 신문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953년 8월 5일 "주식회사"로 재 창립하고 사장에 박태송을 부사장 겸 편집국장에 정두석을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확대개편하고 지령546호를 발간 수복지구인 양양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언론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50]

(5) 의료구호 시설

수복지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료문제였다. 전쟁 전에도 양양에 인민병원이 있었으나 시설도 의사도 약도 없는 이름뿐인 병원이었다. 병든 자가 의약이

50) 『수복연감』(강원문화연구사, 1954. 6)

없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현실이었다. 군에서는 각 읍면에 의사, 의생, 산파 2명을 배치하였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군단 의무부와 민사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호병원 3개소를 설치하고 인술을 베풀었다. 특히 장티푸스 등 여러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군 의무부대에서 민간인 구호소를 설치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상으로 진료(診療)하였다. 군정초기에는 전염병에 대하여는 군의무병(軍醫務兵)이 3개구호소(양양, 속초, 교암)에 배치되었는데 이들이 마을마다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여 국군에 대한 칭송이 대단했다. 그 때의 약으로는 '다이야찡과 페니실링' 이란 약은 만병통치약이었다.[50]

(6) 명승고적의 복구

육군 제1군단장 이형근[52]장군은 6 · 25전란으로 피폭되어 완전히 소실된 낙

51)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최지훈(남, 81세, 양양읍 서문리), 면담, 2015 (6. 23)

52) 이형근(李亨根, 1920. 11. 1~2002. 1. 13) 대한민국 군인으로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응준의 사위다. 1920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1942년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종전 후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신청을 하여 뛰어난 영어능력으로 UN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1946년 1월 15일 1기로 임관하고 국방경비대 제2연대장을 맡았다. 유엔군사령부에서 각국의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국군의 상징인 군번1번이 되었으며 1946년 5월 1일 초대 조선경비사관학교 교장, 1946년 9월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겸 육사교장, 1948년 2월 통위부 참모총장, 1949년 6월 제8사단장을 맡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제2사단장, 1950년 10월 제3군단장, 1951년 8월 교육총장, 1951년 9월 초대 휴전회담 대표, 1952년 1월 제1군단장으로 양양군 수복지구 총사령관을 맡았다. 종전 후에는 1954년 2월~1956년 6월 초대 합참의장, 1956년 6월 27일~1957년 5월 17일 제9대 육군참모총장, 1959년 8월 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이후 행정개혁조사위원장, 주 영국대사, 한국자유총연맹고문,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하고 1등 수교훈장,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일제만주국에서 끈끈한 군맥을 다져 해방 후 군부를 장악했으며, 5.16때 정치정면에 나서는 등 한국현대사에서 국군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되며, 군정당시 제1군사령관으로 양양에서 활약하였다.

산사를 중수하였다. 중건(重建)공사는 물치리에 거주하는 이진옥 도편수 주관하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기간은 1952년 8월 28일 착공하여 동년 11월 22일에 준공을 보았다.

당시 1군단참모장이면서 초대 15사단장을 지냈던 김병휘(金炳徽)장군의 증언을 참고할 수 있다. 김병휘 장군은 이형근 장군의 휘하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하면서 낙산사 원통보전 중건을 비롯한 낙산사의 여러 상황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점안식(點眼式)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비롯해서 미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이형근 중장, 그리고 5사단장과 11사단장 등 당시 군의 주요 지휘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1군단 부군단장 최홍희 장군은 '원통보전' 의 편액(扁額)글씨를 썼으며, 1군단 민사참모였던 '전형윤' 은 원통보전의 주련(柱聯)을 썼다. 최홍희 장군이 썼던 편액은 그 뒤 경봉(鏡峰)스님의 글씨로 바뀌었고, 전형윤(全亨胤)의 주련은 그대로 걸려 있었으나 2005년의 화재로 없어졌다.

〈이승만 대통령 낙산사 준공식 참석〉

이승만 대통령 내외는 중창불사 점안식(點眼式:불교신앙의 대상에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종교의식) 행사 참석 뒤에 보물 제479호로 지정되어 있던 낙산사 동종을 타종했으며, 이어서 낙산사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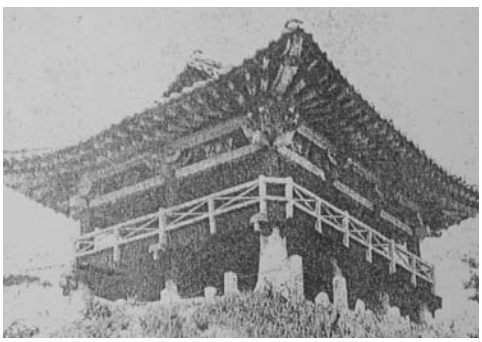
그런데 이 낙산사 동종은 6.25전쟁 직후 강릉포교당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회수해 온 것이다. 전시인 탓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완성한 원통보전의 중건

은 관음신앙의 성지인 낙산사가 새롭게 중창되었다는 의미와 아울러 참혹했던 전쟁의 상흔을 딛고 다시 한 번 일어서려는 국민 모두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낙산사는 이후 원통보전 외의 전각과 당우들을 하나씩 중건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음신앙의 성지로 다시금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형근 장군이 복원했던 원통보전은 2005년 대형 산화로 소실되었다가 2007년 다시 복원되었다.[53]

〈양양 낙산사 원통보전〉

간성의 청간정은 1953년 5월 5일에 복구개수공사를 착수하여 불일성사(不日成事:단기간 내)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청간정의 동쪽으로 청간정의 변천사를 약술한 '청간정중수기(淸澗亭重修記)'가 게판(揭板)되어 있다.



〈청간정〉

이 중수기는 '단기 4286년(1953) 5월 10일 청파(靑坡) 전형윤(全亨胤) 병서(幷書)'라고 하여 60년 전에 작성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청간정은 관동팔경 중의 하나이다. 바람에 닳고 비에 씻겨 부식 된지 이미 오래되어 오더니 이승만대통령이 동해순방(東海巡訪) 중에 제1군단장 이형근(李亨根)장군이 맞이한 자리에서 중수할 것을 명하니 군민정관(郡民政官) 박종승(朴鍾勝)과 면민

53) 『신 낙산사』(낙산사, 2010. 1. 5, pp. 74~75)

정관 윤태병(尹泰炳) · 함요근(咸堯根)씨가 즉각 호응하여 토성 · 죽왕 두 면민이 찬조가 답지하였다. 유지 이정길(李貞吉) 및 전임 김두경(金斗卿)이 협조하였으며 부군단장 김병휘(金炳徽)장군 감독하에 헌병대장 김정채(金貞彩) · 병기대장 최병혁(崔炳革) · 첩보대장 김동석(金東石) · 58헌병대장 이종원(李鍾原) 등이 서로 협조하여 3일 기한하고 공사를 했는데 5일 걸려 완수했다. 옛 것과 비교하니 늘려 지은 새 정자 더욱 승경일세!

단기 4286년(1953) 5월 10일 청파 전형윤 문장을 짓고 글씨를 쓰다.

淸澗亭關東八景之一也 風磨雨洗腐敗 已久有時 第一軍團長李亨根將軍 遨邀大統領東海巡訪 之機命重修 郡民政官 朴鍾勝 面民政官尹泰炳咸堯根氏 卽起相應 土竹兩面贊助踏至 有志李貞吉氏 先爲己任 金斗卿氏挺身從事 副團長金炳徽將軍 督之憲兵隊長金貞彩 兵器隊長崔炳革 諜報隊長金東石 五八憲兵隊長 李鍾原氏 互相協助奇哉 三日期成五日完遂 依舊增新亭翼景佳

檀紀 四二八六年 五月十日 靑坡 全亨胤 幷書"[54]

(7) 치산치수(治山治水)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치산치수(治山治水)라고 한다. 그럼에도 6 · 25전쟁 와중에 산에 나무들의 남벌로 인해 산은 황폐화로 붉은 산으로 변하였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4월 5일의 식목일에는 이곳에서도 남쪽지역에서 묘목 25만 주를 구입하여 "국토보안은 산림애호로부터"라는 표어를 걸고 군 · 관 ·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황폐화된 붉은 산에 식수를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의 청년단과 학생들이 적극 동참함으로서 식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식목일인 이날에는 이형근 1군단장과 참모들이 함께 식수에 동참함으로서 산림녹화운동에 일조를 하였다고 전한다.[55]

---

54) 전형윤(全亨胤, 1895~1975):독립운동가,서예가. 함경북도 북청(北靑), 호는 靑坡, 또는 古泉이다.

55) 『현산문화』제23호 (양양문화원, 2011, 12. 28, p. 28)

2) 교육의 재건(教育再建)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 이후 국민학교로 개칭하면서 일제히 개교는 하였으나 학교 건물들은 전화로 소실되어 교육상황은 말이 아니었다. 각 학교마다 교사와 교재도 없는 상황이어서 말이 개교이지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심지어 교장 적격자가 없어 읍면의 유지들이 도맡아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이었다. 그런 와중에 1951년 1·4후퇴 당시 국군이 후퇴하면서 많은 가옥과 공공건물 및 학교건물이 화재를 입어 학교는 또 휴교에 들어갔다.

1951년 6월 국군이 양양을 재탈환 하면서 또다시 개교는 하였으나 학교건물이 없어서 마을 동사나 교회, 마을의 큰 건물, 심지어 나무 그늘에서 자리를 깔고 공부를 하거나 미군 군용텐트에서 공부를 하였다. 당시의 교육 실상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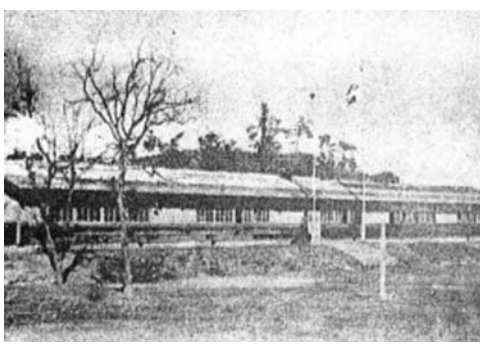
> 손양면 학포 지역의 경우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실이 없어 화재를 면한 학포리 박세환 씨 집 마구간에서 공부를 하였는가 하면, 손양면 주리마을의 경우도 윤병규 씨 집 마루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군정이 실시되면서 교사의 보수는 매월 쌀 소두 4말과 보리쌀 소두 4말을 받고 교사로 근무했다. 교사는 월급도 없이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의 가정에서 15일씩 숙식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었다.[57]
>
> 수복지구 교육은 1951년 자치위원회에 학무계를 두고 교육감을 군수가 겸임하고 학무계를 군수 산하에 두었다. 교사가 부족하여 공산치하 때 교사경력이 있었던 자도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은 교사와, 고급 중학교 2,3학년 학생에게도 교사로 임용했다. 또 교사를 충원하기위해48명을 단기간(1개월) 강습을 시켜 군단장 명의로 자격증

56) 이종우(남, 82세, 손양면 수여리), 면담(2015. 11)
57) 김동소(남, 91세, 양양읍 남문리), 면담(2014. 9)

을 수여했다.[58]

남한에서 가져온 교과서가 부족하여 교사가 내용을 칠판에 쓰면 학생들은 교과내용을 베껴가며 공부를 하였다. 공책이 없어서 백로지[품질이 낮은 종이]를 칼로 잘라 노트를 만들어 썼다. 책가방도 없어서 여학생은 책보를 사용했고, 남학생은 포탄을 넣었던 가방에 책을 넣어 메고 다녔다. 교육내용은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59]의 정신에 입각한 애국애족 교육을 강조하였고, 일제 잔재를 없애고 반공교육을 중시하였다. 피란살이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는 일념으로 자식을 학교에 보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학교 재건에 대한 물심양면의 적극원조가 있기는 하지만 교수재료와 비품이 없는 것은 가장 큰 곤란이다. "생도들이 책상이 없다!' 이 소리를 들으신 1군단장 이형근 장군은 미제8군에 연락하여 포탄상자 약 4,000개를 군민정관(郡民政官)에게 기증하여 그것으로서 훌륭한 책상과 걸상을 만들었다. 자! 이제는 교사(校舍)가 낙성되고 아동들의 책상 걸상까지 완비되었으니 대한의 자녀로 자질을 배양하여야하겠다.



〈양양중학교 전경〉

유엔교육시찰단 일행이 시찰을 하고 난 뒤에도 수복지구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감탄한바가 있다.

군단장의 군정방침 가운데 있어서도 교육의 재건을 주창한 바 있거니와 이 장

58) 오제정(남, 90세, 양양읍 군행리,당시교사), 면담(2014. 9)

59)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 단군의 건국이념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다.

군은 교육의 근본정신을 "배워서 우리민족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 민족의 결점을 보족하기 위하여 궐기하여야 하며 이로서만 우리민족의 급진하고도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굳은 신념하에 방침을 세운 것이다.[60]

수복지구 교육을 위하여 부족한 교원확보는 단기 양성소(1개월)를 설치하여 교원을 확보하는 등 수복지역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수복 후 새로 설립한 학교는 송포국민학교(1951년), 한남국민학교(1952년), 상운국민학교(1953년), 남천국민학교(1953년) 4개 학교와 분교를 개교함으로써 양양관내의 학교수는 1953년 5월 1일 현재 국민학교 14개교,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교 계 19개 학교에 남녀 학생 수 12,792명, 교직원 257명이었다.[61]

당시에 양양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속초리 4구에 설립한 속초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양양의 유지들이 이형근 장군에게 양양에 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한바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양고등학교가 설립하여 개교[62]

함으로써 이 지역 학생들에게는 통학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인제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일반 행정 및 교육행정에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즉 읍·면에 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였고 군수가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이때에 졸업한 학생부터 대한민국 학제에 의해 제1회부터 3회 졸업생까지는 군정졸업생이고 1955년부터는 민정1회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학교마다 1~3회 졸업생이 두 기씩 나뉘어야 하는 괴리(乖離)현상을 낳게 되었다.[63]

---

60) 『현산문화』제23호(양양문화원, 2011. 12. 28, pp. 27~28)
61) 『양진도상의 수복지구』 (양양군, 수복지구 건설위원회,1953. 7)
62) 『양양군지』2010. 상권 (양양군지편찬위원회, p. 608)
63) 이철수(남, 72세, 강현면 전진1리) 면담(2015. 11)

〈표 5〉 양양군 학교 일람표

번 호	학교명	소재지	학교장 성명
1	속초고등학교	속초읍 속초리	서창하(徐昌河
2	양양고등학교	양양면 군행리	강진천(姜眞天)
3	양양중학교	양양면 서문리	최찬오(崔燦五)
4	속초중학교	속초읍 속초리	이철우(李喆雨)
5	동광중학교	토성면 백촌리	최화길(崔和吉)
6	양양국민학교	양양면 구교리	최지영(崔祉英)
7	조산국민학교	양양면 조산리	최병욱(崔柄旭)
8	강현국민학교	강현면 정암리	김교국(金敎國)
9	적은국민학교	강현면 적은리	최영필(崔永筆)
10	회룡국민학교	강현면 회룡리	이영모(李英模)
11	속초국민학교	속초읍 속초리	함종악(咸鍾嶽)
12	대포국민학교	속초읍 대포리	오재정(吳齋政)
13	천진국민학교	토성면 천진리	임길종(任吉鐘)
14	백촌국민학교	토성면 백촌리	최창학(崔昌鶴)
15	인흥국민학교	토성면 인흥리	이종우(李鍾雨)
16	오호국민학교	죽왕면 송암리	송해석(宋海錫)
17	손양국민학교	손양면 하왕도리	박희준(朴熙埈)
18	상평국민학교	서 면 상평리	이성환(李成桓)
19	현북국민학교	현북면 상광정리	박유용(朴裕龍)
계	고2. 중3. 국교14		

〈표 6〉 학교별 학생 수

번 호	교종별	학교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원주민, 철수민	
					남	여	계	원주민	철수민
1	국민교	14	198	218	6,450	5,048	11,498	8,842	2,684
2	속초중	1	18	37	258	72	340	721	234
3	양양중	1			251	78	332		
4	동광중	1			237	46	283		
5	속초고	1	5	19	141	17	158	203	64
6	양양고	1			100	9	109		
계		19	221	274	7,450	5,450	12,720	9,766	2,982

〈표 7〉 교원수

번 호	교종별	학교	학급	교원	현재			과부족	
					남	여	계	과	부족
1	국민학교	14	198	218	150	59	209	–	9
2	중학교	3	18	37	34	1	35	–	2
3	고등학교	2	5	19	13	0	132	–	6
계		19	221	274	197	60	57	–	17

〈표 8〉 학생관계

번 호	학생재적			원 철 별(원주민,철수민)			비고
	남	여	계	원주민	철수민	계	
국민학교	6,437	5,089	11,526	8,842	2,684	11,526	–
중 학 교	792	202	994	760	234	994	–
고등학교	246	26	272	208	64	272	–
계	7,494	5,298	12,792	9,810	2,982	12,792	–

〈표 9〉 교실확보현황

번 호	교종별	학급수	소요 실수			현재 확보 수				부족
			직원실	교실	계	구호	자체	대용	계	
1	국민교	198	14	198	212	46	41	65	152	60
2	중학교	18	3	18	21	14	4	–	18	3
3	고등교	5	2	5	7	2	5	–	7	–
계	–	221	19	221	240	62	50	65	177	63

〈표 10〉 시설 확보상황

번호	교종별	비품										비고
		책상	의자	흑판	교탁	교단	배구	축구	평행봉	철봉	정구장	
1	국민교	1,466	1,466	164	75	18	16	14	23	44	3	–
2	중학교	606	606	22	9	16	4	2	2	3	3	–
3	고등교	272	272	10	5	8	1	–	1	–	1	–
계		2,344	2,344	196	89	42	21	16	26	47	1	–

(출처 : 양양군, 민사행정, 1953)

3) 산업의 진흥(産業振興)

(1) 토지등록대장 및 소표 작성

4278년(1945) 8 · 15해방이 되자 공산치하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전부 없어지고 농민의 무수한 고통을 받아오던 중 4283년(1950) 10월 2일 아군 진주로 당 지구는 수복되어 영농 중 1952년 10월 29일 군단장 각하의 지시에 의거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차(此)에 대한 토지 소표를 작성 하였다.[64]

64)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0)

(2) 농경지 이동과 분쟁사건조정

1953년 1월 6일 본군에다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읍면 및 각 부락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경지정책에 대한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절히 조정하였다.[65]

(3) 수리 보(水利洑) 및 저수지 수축

1952년도 미증유의 한해로 인하여 농사가 거의 전폐되었음으로 금년도부터는 한해를 방지코자 보(洑)및 저수지를 수리하여 증산을 목표로 하였다.[66]

〈표 11〉 총 경지면적

읍면별	답(평	전(평)	계(평)
양양	115,750	734,608	1,892,116
서면	624,916	690,787	1,312,703
손양	1,806,368	813,900	2,620,268
현북	696,811	343,461	1,040,272
강현	1,940,194	977,300	2,917,494
속초	1,617,063	1,114,462	2,731,525
토성	2,413,200	1,124,243	3,554,443
죽왕	606,891	336,649	943,540
귀농인 북진지	394,500	135,000	529,500
계	11,254,451	6,287,410	17,541,861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65)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0)
66)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0)

(4) 농업행정

전시 하, 주요산업인 제작물증산에 절규(絶叫)되는 차제에 농민의 생산의욕을 앙양시키기 금년도에 있어서는 수도개량(水稻改良) 묘대장려(苗代獎勵) 품평회를 위시하여 수도정조식의 지도에 전력을 가하고 있는 한편 조기전작물 예상수확고 조사에 노력하였다.[67]

(5) 비료입하 상황

수복 후 본군은 특히 자급비료증산사업이 막연하였는바 상부의 계획에 의하여 화학비료를 1~5월까지 1,125톤을 외국산품으로 도입 예정 중에 현재 784톤이 입하되고 341톤이 아직 미비하여 목하 수도 및 전작에 기비와 추비 등에 지장이 초래되기 우려되는바 적기에 입하되도록 하였다.[68]

(6) 농기구입하

본군에 있어서는 전재로 말미암아 농기구조차 전소하여 농작물 증책(增策)에 막대한 애로가 있던 중 작년도에 구호 농기구로서 삽 800본, 쟁기 90본, 보섭 160개, 제초기 30본, 낫 902개, 각각 입하 원조하였기 다소의 농촌에 도움이 되었으나 아직 부족량이 아래와 같다.[69]

〈표 12〉 농기구현황품

품명	요구량	현재 소유량	부족량
제초기	6,000본	2,000본	4,000본
보 습	4,000개	1,500개	2,500개
탈곡기	100대	40대	60대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67)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1)
68)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11~12)
68)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2)

(7) 축산행정

농업발전에 그중추적 역할을 하는 축산부문은 전란으로 인하여 모든 가축과 시설의 대부분이 파손된 현상에 있어 장차급진적인 복구재건을 촉구하고 있는 바 본군은 특히 남한 각 지방에 비추어 가일층 파괴가 심한 형편에 조감(照鑑)하여 복구재건에 불타는 바이며 작년도 소수의 돈계(豚鷄)를 도입시켜 사육하였으나 미미한 현상임으로 5월 추순에 충남등지에서 돈(豚) 111두 계(鷄)60수를 도입 장려한바 있으나 일반가축사육업자들이 此에 호응하여 돈(豚)600두 계(鷄)106수를 남한에서 도입한바 그 실례로서는 속초1구에는 집단양돈장으로 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바 군전체적 실적은 아래와 같음.[70]

〈표 13〉 가축 도입 현황

가축명	4285년말 가축조사	증가수		감소수		5월말현재 보유수
		생산수	도입수	폐사	도살	
우(牛)	2,658	35	3	2	5	2,689
돈(豚)	192	150	660	15	10	977
계(鷄)	43	65	314	2	3	417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8) 종축장설치

본군의 축산발전과 아울러 군내에 우량종자를 배부 보급시키며 군민으로 하여금 가축사육 열을 고도로 앙양시켜 농촌, 도시, 어촌을 막론하고 경제적 윤택을 도모함을 주관목표로 한 바 현재 종축사육 상황은 하기와 여함.[71]

70)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12~13)
71)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3)

〈표 14〉 종축사육두수

종별	존 돈		성 계		합 계	
	빈(암컷)	모(수컷)	빈(암컷)	모(수컷)	빈(암컷)	모(수컷)
바-구샤잡	12	2	-	-	12	6
백색레구홍	-	-	16	-	16	16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9) 가축치료소 설치

전무하던 수의용 기구와 약품의 일부가 금반 유엔 민사원조처(UNKCAC) 원조아래 도입되어 가축진료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가축치료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72]

- 장소 : 양양군청 내
- 수의사 : 소장 1명, 소원 1명
- 화장(枠場) : 1개소, 책상 : 1개, 위생복 : 2착
- 진단된 병종별 환축수(患畜數)

〈표 15〉 병종별 가축 수

가축별	병명	환축수	완치수	미완치료수	폐사수
돈(豚)	두창	16	10	-	6
〃	위장염	6	3	-	1
〃	폐렴	3	2	1	-
〃	비가답아	1	1	-	-
우(牛)	제관절	1	1	-	-
〃	식체	2	2	-	-

72)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4)

가축별	병명	환축수	완치수	미완치료수	폐사수
〃	피부병	1	1	–	–
합계	–	21	13	1	7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10) 돈(豚)페스트 예방접종

강원도청에서 3,000g을 알선(斡旋)받아 속초1구 집단양돈장에다 실시한바 그 두수는 300두인바 약품 부족관계로 강원도와 연락 지원 받았음.[73]

(11) 토지수득세 징수 및 배급 상황

본 군 수복지구는 과거 북한괴뢰치하에서 가혹한 경제정책으로 피폐하여 오던 중 6.25전쟁과 한국군 진주로 수복이래 경제혼란은 민생문제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민생문제의 해결은 양정시책에 근간 되는바 이남에서는 토지수득세를 징수하여 양곡의 국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군수복지구에서도 남한에 준하여 1952년도 하곡부터 생산고에 의하여 일할의 토지수득세를 징수하여 관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극빈공무원에 대하여 약간의 식량을 배급하여 생활을 보장받았다.[74]

〈표 16〉 1952년도 하기작물 징수배급표

읍 면	배 급 연인원	징 수 량 (단위 石)					배급 (石)	잔고	비고
		감자	대맥	소맥	흑맥	계			
양양	441	11,565	17,640	2,360	8,190	39,755	39,755	0	精穀
강현	556	26,575	13,800	1,220	8,500	50,095	50,095	0	–

73)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14~15)
74)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5)

읍 면	배 급 연인원	징 수 량 (단위 石)					배급 (石)	잔고	비고
		감자	대맥	소맥	흑맥	계			
속초	676	28,240	19,296	4,850	8,520	60,906	60,906	0	–
토성	843	46,520	7,500	7,500	14,400	75,920	75,920	0	–
죽왕	430	29,820	2,004	3,320	3,400	38,784	38,784	0	–
서면	118	6,550	720	900	2,450	10,620	10,620	0	–
손양	432	12,720	16,176	4,710	5,340	38,936	38,936	0	–
현북	141	4,385	2,334	1,150	4,880	12,749	12,749	0	–
계	3,637	165,365	79,470	26,010	55,920	327,765	327,765	0	–

〈표 17〉 1952년도 추기작물 수득세 징수배급표

읍면	배 급 연인원	징 수 량 (단위 石)					배급 (石)	잔고 (石)	비고
		미곡	정곡	대두	정교맥	계			
양양	3,129	449.01	14.08	30.66	3.0	496.75	307.115	189.64	精穀
강현	951	455.50	29.48	37.80	5.8	518.58	90.45	428.13	–
속초	2,253	472.77	17.60	21.84	2.8	515.01	213.57	301.44	–
토성	1,575	467.91	21.12	24.78	6.6	520.41	149.85	370.56	–
죽왕	844	114.29	3.30	11.76	6.0	129.33	80.55	49.32	–
서면	662	155.52	15.40	14.70	3.4	189.02	63.24	125.78	–
손양	921	405.54	21.78	28.56	1.6	457.48	90.69	366.79	–
현북	471	145.80	5.94	7.14	1.0	159.88	44.7	115.18	–
계	10,806	2656.26	128.70	177.24	30.2	2,986.4	1,040.16	1,946.84	–

(위의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12) 어업행정

어민은 바다가 생명이다. 바닷가 어촌에는 피난길에서 돌아와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고 부서진 뱃 조각을 다시 모아 수리도하고 새로 건조도 하여 어로 작업

을 추진하였다. 원양출어는 하지 못하고 연근해(沿近海) 출어는 한정된 선박과 어로자재로서 충용하여 예상외의 성과를 올리었다. 특히 피난민들은 농토가 없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 농업인구가 많던 양양군이 어업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다. 거의가 소형어선이었으므로 전복 사고도 빈발하였다. 여인들이 근해에서 다량의 미역을 채취 건조하여 남한 일대에 내보내서 팔기도 하였다. 양양의 여러 어항과 속초, 아야진, 문암, 등 대소 어항마다 풍어를 이루었고 특히 명태가 많이 잡혔다.[75]

〈어민들이 잡은 명태〉

(13) 산림행정

현하 군내의 임상을 극도로 황폐한 임야를 방지하고 복구하고 있는 차제에 한편 군부 · 민간의 문란(紊亂), 도 남벌(盜濫伐)을 적극적 단속을 취체(取締)하고 국민자신 자발적 산림애호와 아울러 애림사상(愛林思想)에 최고도로 환기시켰다.[76]

75) 『약진도상의 수복지구』(양양군, 수복지구건설위원회, 1953. 7)
76)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16~17)

〈표 18〉 조림식수현황(춘기 분)

읍면	잣나무		전나무		포풀러		아카시아		계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양양	10	10,000	2	500	10	20,000	5	5,000	27	35,000
강현	10	10,000	2	500	10	2,800	–	–	22	13,300
속초	10	10,000	2	500	5	8,000	–	–	17	18,500
토성	10	10,000	2	500	10	20,000	–	–	27	30,000
죽왕	4	5,000	1	500	3	10,000	0.2	300	82	15,800
서면	10	10,000	2	500	–	–	–	–	12	10,500
손양	10	10,000	2	500	–	–	–	–	12	10,500
현북	2	450	2	300	–	–	–	–	4	950
계	71	65,450	15	4,000	38	60,800	5.2	5,300	203	134,550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14) 양잠행정

전시하의 중요산업인 양잠의 재건복구가 절규(絶叫)되는 차제 수복지구양양의 현황을 보면 과거의 굴지생산을 과시하던 각종시설은 전재(戰災)로 인하여 파괴되어 잠업행정의 일대 암초에 부딪쳤을 뿐 아니라 양잠장려의 요소가 되는 애잠 의욕을 잠사육자로 하여금 소박(疏薄)케 하온즉 시급한 조처로서 현하 극도로 침체된 수복지구잠업발전에 획기적인 시책이 있기를 바람. 1953년 춘종(春種)은 신입전량 예정대로 적기에 임하 되어 조속한 조처로서 각 농가에 배부하여 최청소립지도에 총원당하여 왔으나 당국의 금년도 신기시험잠종인 중국산 모아종이였든 바 부화율이 불양하여 국민의 원성이 되고 있다. 특히 수복후의 실정은 양잠의 전망과 농민의 경제안정에 심히 우려되는바 이는 전란으로 기인되는 각 시설의 파괴 및 남벌 채굴 소각 등으로 각처 상전 상목이 황폐되었으며 전재 토막을 잠실로 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잠 사육에 대처하여 아래의 각

종시설에 대한 재건수축의 자료 및 소요기구 약품을 도입하여 상전개량 잠병박별(撲滅) 및 애잠의욕(愛蚕意慾) 앙양을 요망했다.[77]

· 건 잠장 수축(修築)

· 잠 구(蠶具)

· 약품

〈표 19〉 상전상목의 피해상황

6 · 25전 실태면적	6 · 25전 본수	피해상황		현황		비고
		상전(桑田)	상목(桑木)	상전	상목	
45,3反	142,211	18,2反	53,611	37,1	88,600	–

(출처 : 양양군 민사행정 1953)

(15) 상공행정

〈화폐교환 모습〉

상공업자에 대하여 본 군내는 대체적으로 속초를 중심으로 잡화상이 가감 다수이며 속초에는 도매상을 경영하는 업자들이 각처 소매인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기타 포목상 미곡상, 문방구점, 행상, 업자들이 허다하여 공업관계로는 제재소 인쇄소, 정미소 등을 비롯하여 각종 수공업이 양양 속초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시장 물가는 현재 1953년 2월 25일 화폐교환 후 저물가정책을 강력히 추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필수품에 한하여 교환전의 비율보다 0.5~1.0 할 정도의 고율로 거래됨을 볼 수 있었으며 농작물은 교환전보다 2할 정도 감소된 것으로 평가 할

77)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17~18)

수 있었다.

(16) 도량형기개량(度量衡器改良)

구식도량형기 두승(斗升)는 마멸되어 규격이 상위됨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L리터,立) 도량형기로서 남한과 동일화를 목적으로 개량코자 하여 각 수요자로부터 소요수를 신청하여 현 구 매입 배부 하였다.[78]

(17) 전매품도입(專賣品導入)

연초는 강릉전매서로부터 본 군 관내 각처에 연초지정소매인을 설치하고 매월 3회씩 공급하였음으로 충분함. 단 식염은 현재 남한지역도 부족이거니와 당 수복지구 내에는 금년도에 일회 춘계 장염[장을 담그는 소금]으로 구입되어 배부하였다.[79]

5. 종교시설 및 고아원설립

1) 종교시설

전쟁으로 전소된 낙산사를 복원하고자 1952년 5월 3일 주지스님 회의를 열고 이형근제1군단장의 지원을 받아 동년 11월 22일 낙산사를 준공했다. 예수교도와 천주교도 포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교회가 건립되고 군단 내에

〈낙산사 준공 후 기념사진〉

78)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9)
79)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19)

진중교회를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장병들은 주일 예배를 드렸다. 때로는 후방에서 교우들이 심방(尋訪)하여 군민합동예배를 보는 때도 있었다. 또 교회를 통한 구호물품이 전달되어 아이들은 구호품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이 많았다.[80]

〈표 20〉 종교시설 현황

교회별	선교사, 주지	목사, 신부	사찰, 교회수	신도수
사 찰	3	–	3	186
감리교	1	4	7	639
천주교	–	3	3	432
장로교	–	–	2	169
계	4	7	15	1,426

(출처 : 양양군 수복연감 1954)

2) 고아원 설립

〈낙산사 고아원생들〉

양양지구에는 삼팔선(三八線)을 중심으로 한 월남고아가 수없이 많다. 이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총준(聰俊:총명하고 준수함)이 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이 어린고아들을 거두어 기른다는 것은 중요한 사회문제인 동시에 가장 긴요(緊要)한 문제이다. 이를 가엽게 여긴 김영배 원장은 1952년 5월 1일 양양천주교의 지원으

80) 『수복연감』(강원문화연구사, 양양군 1954. PP. 14~15)

로 양양고아원을 설립하고 직원 5명을 채용 한 후 52명(남 27명, 여25명)의 고아들을 모집하여 수용하였다. 낙산사 정두석(건봉사에 입산하여 1942~1945년까지 낙산사 주지역임)주지는 1953년 11월 19일 육군 제1군단 민사처와 미8군단장의 지원으로 낙산사 경내에 낙산 보육원을 설립하고 전쟁고아 98명을 모아 양육하였다. 고아원에서는 그들의 양육은 물론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교육을 위해 조산국민학교와 양양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었다. 그 후 양양감리교회에서도 서원필 목사를 중심으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전쟁고아들을 양육 교육하였다고 전한다.[81]

〈표 21〉 고아원별 인원수

원 명	직 원 수			고 아 수		
	원장	직원	계	남	여	계
양양고아원	김영배, 1	4	5	-	-	67
낙산고아원	정두석, 1	8	9	-	-	86

(출처 : 양양군 수복연감 1954)

6. 육군부대 창설

전쟁이 점차 치열해 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군병력이 필요하게 되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1952년 11월 8일 보병 12사단 (초대사단장 준장 윤춘근, 양양주둔기간은 1952. 11. 8.~1952. 12. 5.)을 필두로 7개의 사단을 양양지역에서 창설하게 되었다. 창설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면 조산리

〈제12사단 창설기념비〉

81) 『수복연감』(양양군, 강원문화연구사, 1954. P. 28)

에 주한 미군사고문단지휘소(KMAG, FDC)를 설치하고 국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1953년 6월 15일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7번국도 옆 연병장에서 22사단과 25사단 창설기념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 제8군사령관 맥스웰 테일러 장군, 신 국방장관, 진 내무장관, 변 외무장관, 원헌병 총사령관 등 정부요인들을 대동하고 참석하였다. 창설기념식에서 군단장 이형근 장군에게 태극성훈장, 육군소장 김종각 태극무성훈장, 육군준장 임부택 화랑금성훈장과 그 외 다수의 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였다. 행사가 끝난 뒤 이대통령은 통일 없는 휴전결사반대 양양군민 총궐기대회에 임석하시어 3만군중의 환호를 받고 간곡한 훈시를 하고 귀경하였다.[82]

〈장산리 부대창설 기념비〉

이 지역에서 탄생된 사단은 15사단(승리부대), 1953년 1월 15일 21사단, 1953년 2월 9일 20사단, 1953년 4월 21일 22사단, 1953년 4월 21일 25사단, 1953년 9월 18일 27사단 창설관련 자료는 102여단 내에 창립기념비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창설된 29사단도 양양지역에서 실전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75년 8월 1일 23사단, 102여단, 8군단도 양양에서 창설되었다. 당시 보병 12사단 창설기념비는 주청리 7번국도 옆자리에는 세워 있었는데 2013년 여타 사단 기념비와 함께 102여단 정문 앞으로 이설하였다.

82) 『약진도상의 수복지구』 (양양군, 양양군수복지구건설위원회, 1953. 7. 5, P. 10)

Ⅳ. 민사행정(民事行政)

1. 읍면행정

본군은 읍1, 면이 7개 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제1군단 민사행정실시 이후 각 읍면에는 민정관 부민정관이 군단장 임명에 의하여 배치되어 읍면고유의 자치행정과 군단제(軍團諸) '잠정규정' 및 포고령에 의한 국가사업을 하였다.[83]

〈표 22〉 읍면직원현황

읍면별	민정관	부민정관	부서	직원수
양양면	1	1	서무계 사회계 재무계 양정계 산업계 호적계	–
서 면	1	1	〃	–
손양면	1	1	〃	–
현북면	1	1	〃	–
강현면	1	1	〃	–
속초읍	1	1	〃	–
토성면	1	1	〃	–
죽왕면	1	1	〃	–
계	8	8	〃	–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2. 관재행정(管財行政)

관재행정은 관내적역산물(管內敵逆産物)을 정확히 관리하여 수복지구 재건

83) 『민사현황』 (양양군, 4286(1953). 5. p. 7)

과 국민경제 부흥을 기하고저 4285년(1952)부터 귀속재산 처리법과 영(令) 시행 세칙을 참작하여 행정적으로 잠정 조치하여 왔으나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국가 국민 또는 국민상호간 이해관계에 있어 철저를 기하기 곤란하여 4286년(1953) 4월 17일부로 관재 잠정규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관내적역산물(管內敵逆産物)은 아래와 같다.[84]

· 답 : 264,053평
· 전 : 154,159 평
· 과수원 : 17,381 평
· 산림: 566,860 평
· 가옥(家屋) :와가 70동, 초가 309동
· 선박 : 범선 14척, 동선 7척

3. 사회행정(社會行政)

전화(戰禍)로 인한 본군은 초토화로 화하였으며 현 당군을 위하여 언커크(UNCURK)에서는 아래와 같은 막대한 물자를 보내와 군내 6만여 민생문제를 적극 도왔다. 4284년(1951) 12월 말 현재까지 입하량은 다음과 같다.[85]

〈표 23〉유엔 민간원조 물자 입하량

의류	식염	침구	식료품	일용품	시멘트	천막	양곡	기타
54,915점	1,594가마	12,783매	4,629점	8,686	200포	50매	3,197ℓ	4,190점

84)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7~8)
85)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8)

4. 노무행정(勞務行政)

군부협조로서 제일중한 노무동원에 있어 4286년(1953) 1월부터 기 동원된 실적을 보면1월:3,343명, 2월중:3,214명, 3월중:678명, 4월중:80명, 5월중:849명 계 8,164명이다.[86]

5. 세무행정(稅務行政)

번호	건 명	내 용
1	4286년도(1953) 상반기 호별세 및 교육세부과	4286년도(1953) 상반기 호별세를 원주민 7,645호의 86% 6,575호 철수민 호수 6,235호의 30% 1,793호 계8,368호에 대한 세대별 자력에 의하여 40등급으로 분등 세액은 최하 50원 최고 1,250圓으로 자력의 다과(多寡)에 따라 누진 조정하여 5월 20일까지 부과완료하고 현재미수중에 있음, 조정액 1,663,710원 교육세는 호별세와 동일한 요령으로 세액 1,663,710원을 조정부과함.
2	4286년도(1953) 상반기 가옥세부과	와가(瓦家)885호에 대한 간수 4,891간 간당 5원, 초가 4,787호에 대한 간수 18,542간 간당 3원의 세율로 4월 20일까지 부과하고 조정액 80,081원은 징수완료 함.
3	4286년도(1953)상반기 영업세부과	추후 영업세는 매월 조정하고 부과하는데 4~5월분에 있어서는 음식점 갑 27명, 음식점 을 156명, 사진업 34명, 시계업 42명, 정미업 46명, 제재업 2명, 좌상(주로잡화상)1,095명, 이발업 58명, 여인숙업 45명, 행상(주로잡화상)183명, 장유업 4명, 어물 중계업 8명의 총 매상고

86)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9)

번호	건 명	내 용
3	4286년도(1953)상반기 영업세부과	18,769,800원에 대한 세액 390,157원을 조정부과 징수완료하고 569,343원에 대한 영업세를 조정 부과할 예정임.
4	영업세 세원조사실시	영업세 세원을 정확히 파악키 위하여 5월중 각 · 읍면 일제히 세원조사를 실시하고 추후에 있어도 영업경기 여하에 따라 수시 세원조사를 실시코자 함.
5	4286년도(1953)상반기 어업세부과	4286년도(1953)상반기 어업세 부과에 있어 4~5월분 총 어획고 1,939,731,560전을 조정부과 징수완료하고 앞으로 어업세액 241,805,720전을 조정 부과할 예정임.
6	4286년도(1953)상반기 면허세부과	조세잠정규정에 의하여 년1기 부과 징수하는 관계로 금기(4286년도상반기)에 있어 일제히 면허세를 갱신부과(조정액 79,740원)하고 추후신규 면허자에 대하여는 면허장 교부시 수시로 조정 부과할 예정임.
7	가옥명 기장 및 가옥실측 조사부 비치	각 읍 · 면에 가옥세명 기장 및 가옥실측조사부 비치가 무하여 가옥세부과 상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가옥의 동태를 파악키 곤란하옵기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1개월간에 한하여 사종부책을 비치하고 추후가옥실태에 대한 이동사항을 정리코자함.
8	4286년도(1953)주세부과	주세부과는 월별 제성석수에 의하여 부과하되 4~5월분 주세를 양주 15석, 소주 162석, 약주 4석, 탁주 12석의 총 매상고에 대한 세액 119,55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고 추후제성실적에 의하여 주세조정 견입액 217,050원을 부과할 예정임.
9	밀주단속	밀주가 범람하여 양곡정책은 물론 세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함에 감하여 금후 적절한 계획 하

번호	건 명	내 용
9	밀주단속	에 관내일원에 한하여 철저한 밀주취체를 단행코자 함.
10	세무강습회개최	세무리(稅務吏)의 사무적 기술연마를 목적으로 남한으로부터 세무에 능숙한 인사를 초빙하여 세무담당 직원에 대한 기술 강습회를 개최코자함.
11	요망사항세무리의 신분보장	납세는 의당 국민의 3대의무의 하나인바 납기내 자진 납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往往 납세의무자 중에는 악질분자가 개재하여 배경의 힘으로 납세에 불응할뿐더러 심지어는 세무리에 폭행을 가하여 세무행정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예불무 하옵기 사실발생 시는 가책 없는 처단으로 세무리(稅務吏)의 신분을 절대 보장할 것을 요망함.[87]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6. 치안행정(治安行政)

1) 경비조직

1950년 10월 4일 지방 자위대를 조직한 것이 치안대의 전신이다. 당시의 대장은 김영재(金瑛齋)씨를 추대하고 대원은 250명이었다. 그 후 12월 22일에는 임시경비대로 개편하고 일제 때 경찰관 출신인 김민하가 대장에 취

〈당시 양양군 치안대 정문〉

87)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22~24)

임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치안을 유지하여 패잔공비의 색출 섬멸하는 게 임무였으나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아서 범죄 사실이 발생하면 지구헌병대로 넘기어 군단군법회의에서 재량으로 형벌을 내렸다. 대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다 박해를 받아 월남하여 반공활동을 하다가 국군과 함께 들어온 철저한 반공주의 자들이었다.[88]

본군은 지형 상 다수의 산간벽지와 고지를 점하고 있어 산악에서는 패잔병, 유격대 또는 불순분자들이 은약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각 면 소재지에 지대를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주야교대로 실시하여 관내 잠복하고 있는 불순분자 검색 조사와 산악지대에 잠복하고 있는 공비토벌 및 적의 정보망을 분쇄하며 군단의 제반시책에 보조를 맞추어 협조하는 치안업무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단 죽왕면 지대에서는 저지선분대를 설치하고 영농 감시 및 6개 부락에 대한 치안 유지하고, 둘째 토성면 지대 관내에서는 교암 분대, 아야진 분대를 설치하고 24개 부락에 대한 치안 확보하고, 셋째 강현, 손양, 서면, 속초 제대 에서는 요소에 분대를 설치하여 각 치안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넷째 현북면 관내에서는 38분대를 배치하고 치안유지하고, 다섯째 각 읍면 지대에 배치한 대원 외 특별조사대에 24명을 서면 영덕리에 주둔시켰으며 설악대 37명을 배치하여 각기 공비토벌 및 적보수집(敵堡蒐集)에 주야로 노력을 하였다.[89]

88)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25~27)
89)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25~26)

〈표 24〉 경무요원 배치 상황

대별	대장	계장	주임	분대장	대 원	계
본대	김민하(金敏河)	4	8		32	45
현북	오주현(吳周鉉)	–	2	1	7	11
손양	이달하(李達河)	–	3	1	8	13
서면	이종화(李鍾和)	–	3	1	14	19
속초	정극모(鄭克模)	–	4	1	30	36
강현	장복환(張復煥)	–	4	1	11	17
토성	한범구(韓範求)	–	4	2	17	24
죽왕	–	–	4	1	18	24
수사대	–	–	–	–	24	24
설악대	–	–	–	–	37	37
계	–	4	32	8	198	250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2) 사찰활동(査察活動)

수복지구는 독재와 암흑을 강령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근멸시키고 민주주의 자유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전에서 사찰업무의 중요함은 물론 수복 후 행정기관을 위시한 각종 시설사업과 아울러 군민의 사상 선도와 불순분자 적발 등 실로 다사하고 복잡한 상태이며 관내 주민들이 대부분이 과거 수년간 괴뢰 치하에서 적색사상

〈치안대에 채포된 불순분자들〉

에 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만윤(漫潤)되었다.

북피자의 잔여가족이 동상이몽을 실현코자하는 것을 능히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지역은 지리적으로 적에게 유일무이한 남북연락처인 고로 각종 책동을 시도하는 현상이며 관내 사찰진을 동원하여 군내 주민들이 국토방위의 방첩 책임자라는 자각을 갖게 하였다. 불순분자 책동을 저지하는 동시 과거 5년간 공산분자의 허위선전과 탄압에 피동(被動)이 되어 국가의 흥망성쇠도 깊이 생각할 겨를 없이 좌익정당에 가입 또는 협조하여 일시적 이적행위를 자행하였던 자에 대한민국의 참다운 이념과 온정에 감동되도록 사상계몽에 치중하였다.

적성행위자로 하여금 전과는 자각 청산케 함과 동시 적마의 후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도록 온후하게 포섭하여 동일민족으로 자유행복을 갖도록 일치단결하여 조국의 통일독립 성업에 이바지하도록 주력하여 왔으나 각종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고 자체업무에 능수가 되지 못한 관계로 많은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수복지구의 실정에 비추어 제반 사찰업무에 기본조사를 중점을 두어 소기의 목적달성을 거두고저 질적 성향과 인재 물색에도 노력하며 항상 민의 참된 사상 선도자로서 노력하며 제1군단장의 시정방침에 기반 하여 민사처 헌병대 특무대 지도하에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90]

3) 범죄발생현황

범죄는 절도가 제일 많고(90건), 포고령 위반(68건), 방화범(34건), 횡령(13건) 등 전체 255건 중 230건을 검거한 실적을 올렸다. 절도가 많은 것은 생활 곤란으로 생계형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방화는 불순분자들이 사회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질은 사건으로 추정한다. 반면 이 지역은 아래 통계표에 나타나듯이 북한 통치를 받았던 관계로 사상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90)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p. 26~28)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군은 작전 지구에 침투하는 간첩모략 공작원의 적발을 철저히 할 것과 아울러 상부지시로 본군치안에 만전을 기해야 했었다. 특히 군단장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군 치안대에서 조사 및 적발하여 제58헌병대 및 38검문소에 의뢰하여 추방한자가 각 도별로 무려 81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발생사건

범죄 명	발생건수	검거건수
절도	90	70
횡령	13	13
문서위조	4	4
사기	9	9
상해	11	11
강간	2	2
도박	5	5
재물에 관한	6	4
무고	1	1

범죄 명	발생건수	검거건수
방화	34	34
포고령위반	68	68
과실치사	2	2
살인	4	4
강도	2	2
공갈	4	3
유괴	1	1
기타	–	–
계	256	233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표 26〉 북 노동당원과 가족통계표

당 원 수			잔류 가족 수			북 피 가족 수			가족 총인구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587	531	3,118	3,974	5,920	9,894	2,253	2,105	4,358	6,227	8,025	14,252

〈표 27〉 괴뢰군 출병 자 및 가족통계표

구 분	괴뢰군출병자수			잔류 가족수		북괴 가족수		합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인원수	2,290	10	2,300	3,197	4,160	829	186	4,020	4,956	8,976

〈표 28〉 북피자 가족 통계표

구 분	세대수	피 자 수			잔 류 가 족 수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원수	2,177	3,092	2,303	5,404	1,911	3,036	6,947	4,950	5,375	10,325

〈표 29〉 요 시찰인 통계표

갑종			을종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6	7	43	30	26	56	66	33	99

〈표 30〉 공비출몰사건 통계표

출몰시간	출몰장소	출 몰			상 황
		무장	비무장	총원	
53. 4. 6	속초읍 장항리	미상	미상	4	생포 1명 , 사살 1명
53. 4. 7	서 면 서선리	다발총1	3	4	없음
53. 4. 8	속초읍 척산리	M1.총 1	1	2	2
53. 4. 11	토성면 성대리	카빈1, 1.	1	3	피복 양곡 1두 5승
53. 4. 9	서 면 송천리		1	1	–
53. 4. 13	속초읍 노리	M1, 1	2	2	백미 4말 5되
53. 9. 23	속초읍 노리	다발총1	–	25	백미 4말 5되, 모포 1매식염 49, 두류 5되

(이상 위의 출처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표 31〉 군단장포고령에 의한 추방 수

도 별	인원수(명)	도 별	인원수(명)
강 원 도	43	경 기 도	9
충청북도	5	충청남도	1
경상북도	9	경상남도	9
전라북도	3	전라남도	1
제 주 도	1	합 계	81

(출처:양양군 민사현황 1953)

4) 수사상황(搜査狀況)

당 지역은 특수지대인 관계로 교통 및 전화연락망이 불편함은 물론 민중생활의 전화에 의한 저급 피란민의 위집(蝟集:한꺼번에 많이 몰리다)등 객관적으로 불편한 환경에 처하여 있는 관계로 치안유지에 중요성을 띠고 있는 수사 면에 있어 신속한 연락을 기하지 못하였다. 특히 간첩, 기타 여러 가지 발생사건에 세심노력을 특무대와 헌병대와 협조 하에 제반 사건수사에 철저를 기하였다.[91]

5) 보안상황(保安狀況)

(1) 교통사고 미연방지

군 작전에 원동력이 되는 군보급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보급로 상 우마차 및 민간인 통행금지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각지 매 장날에는 대원을 배치하여 민간인 왕래의 복잡함을 단속하였다.

91)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30)

(2) 환경청결

환절기에 수반하여 악질 전염병이 유행되는 차제 하수구 잠수개소를 철저히 청결 배수케 하며 돈사, 변소를 수축케 하는 동시에 청소 일을 정하여 항상 환경에 노력하였음.

(3) 접객부 일제등록 실시

성병은 각처에 만연 침투하고 있으며 특히 군인들의 미치는 악영향이 우심(尤甚)함으로 종전 실시하던 접객부등록 및 검진수첩을 일제 재교부함으로서 더욱 철저히 단속하였음.

(4) 영업 감사

접객업자에 대하여 일제 영업 감사를 실시한 결과 83건이 위생 및 시설부문에 있어서 불결 완비치 못하였기 영업취소처분 등으로 청결에 주력하였다.[92]

(5) 무기휴대 요망(武器携帶要望)

본군수복지구는 지형 상 다대(地形上多大)의 산간벽지와 고지를 점유하고 있고 동해안에 약간평야가 있을 뿐임으로 산악지대에서는 많은 산림과 더불어 패잔병 유격대 또는 불순분자들이 은약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또는 전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태백산맥 산악을 통하여 남하하는 형편이 왕왕 있으므로 절대적 무기휴대가 필요하오며 현재 각지지대에서는 중요지점에 분대를 배치하고 도로요소에 검문검색소를 설치하여 주야교대제로서 실시하고 있으나 공비토벌 범죄수사 오열분자 침입 공비출몰이 유하는 시는 공수로 대전이 곤란하여 적을 발견하여도 능히 대할 수가 없으며 다만 정보연란에만 국한되니 그 시간(其時間)을 이용하여 적들은 행동을 개시하며 민간인을 위협 또는 식량기타 물자를 약탈하여 도망하는 형편이고 대 효과를 획득하기가 난하니 본 사정을 고찰하시와 무기부여를 요망하였다.

92)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p. 32) 위의 (1)(2)(3)출처와 같음

7. 각종 통계자료

〈표 32〉 인구

(1952. 6. 30)

구 분	원 주 민				철 수 민			
	세대수	남	여	계	세대수	남	여	계
양양면	1,158	2,769	3,340	6,109	297	591	574	1,165
서 면	488	1,223	1,493	2,716	90	253	276	529
손양면	993	2,466	2,840	5,306	390	812	889	1,701
현북면	409	885	1,057	1,960	62	97	79	176
강현면	970	2,566	3,065	5,631	245	549	545	1,094
속초읍	1,746	3,709	4,609	8,318	1,617	3,523	2,626	6,149
토성면	1,146	2,617	3,243	5,860	1,855	3,627	3,919	7,546
죽왕면	327	668	847	1,515	1,710	3,296	4,245	7,541
계	7,239	2,609	20,512	37,415	6,266	12,748	13,153	25,901

구 분	외국인				총계			
	세대수	남	여	계	세대수	남	여	계
양양면	1	3	–	3	1,456	3,363	3,914	7,277
서 면	–	–	1	–	578	1,476	1,770	3,246
손양면	–	–	–	–	1,383	3,278	3,729	7,007
현북면	–	–	1	1	471	982	1,154	2,136
강현면	–	–	–	–	1,215	3,115	3,610	6,725
속초읍	4	6	6	–	3,367	7,238	7,235	1,4473
토성면	–	1	–	1	3,003	6,245	7,162	13,407
죽왕면	–	–	1	1	2,037	3,964	5,093	9,057
계	5	0	3	13	13,510	29,661	33,667	63,328

〈표 33〉 주 택

면 별	총세대수	주 택							
		와 가	도단가	초 가	소 계	반 괴	토 막	계	전 괴
양 양	1,456	82	21	265	368	9	710	1,087	1,229
강 현	1,215	100	17	580	697	–	256	953	766
속 초	3,367	416	268	1,294	1,978	111	344	2,433	671
토 성	3,003	102	45	905	1,052	66	123	1,241	441
죽 왕	2,037	61	9	251	321	8	521	850	78
서 면	578	45	6	501	552	–	439	991	861
손 양	1,383	53	8	301	362	–	534	896	932
현 북	47	17	4	302	323	–	76	399	390
계	13,510	876	378	4,399	5,653	194	3,003	8,850	5,368

〈표 34〉 출생 · 사망자

출 생	사 망	월상비율
292	164	56%

〈표 35〉 식당 · 숙박시설

음식점	여인숙	계
79	21	100

〈표 35〉 식당 · 숙박시설

면 별	농가 호수	동상 인구	자가	자작 소작	소작	계	5 반 미만	1 정 2 보 미만	2 정 3 보 미만	3정이상 4정미만	계
양 양	828	4,664	273	366	189	828	417	377	33	–	828
강 현	901	4,999	225	416	260	901	425	428	43	5	901
속 초	967	5,032	207	551	209	967	44	863	58	2	967
토 성	1,050	5,215	181	593	276	1,050	761	240	49	–	1,050
죽 왕	604	2,635	214	292	98	604	391	194	19	–	604
서 면	446	2,651	68	274	104	446	402	44	–	–	446
손 양	885	2,142	145	476	264	885	241	508	136	–	885
현 북	286	785	25	194	67	286	265	18	3	–	286
계	5,967	28,123	1,338	3,162	1,467	6,967	2,946	2,672	341	7	5,967

〈표 37〉 노무자 동원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3,343명	3,214명	678명	80명	849명	8,164명

(이상 위의 출처:양양군 군세 일반 1952)

Ⅴ. 맺음말

한국전쟁 시기 양양군은 38°선 이북지역 9개 군(강원도 7개 군, 경기도 2개 군)중에 유일하게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군정(軍政)실시지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군정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

째는 지역이 군사 · 전략적 거점의 중요성이며, 둘째는 과거 공산주의 지역에 사회주의 요소제거 및 재건문제이다. 구체적 이유는 군사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지역 특성은 수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군정의 실시를 필요로 했다.

육군 1군단은 1950년 10월 1일 국군 3사단을 선봉으로 역사적인 38°선 이북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5년간의 공산치하에서 고초를 겪던 38°선 이북 양양주민들은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1 · 4후퇴 후 1951년 3월 27일 38선을 다시 돌파한 후 제1군단은 잠정적인 행정조치로 실시한 군정기의 중심 수행부대였다. 당시 수복지구 양양 일원은 1951년 7월 4일 미제8군사령부 행정명령 제34호 부칙에 의거 1군단이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속초읍을 포함한 양양군 8개 읍면의 7만 명, 고성 간성지구를 제외한 수복지구를 총 관장하였다. 1951년 7월 5일 1군단 군정 수반은 양양군내 읍면자치위원회, 군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군 관하지구 행정잠정규정을 공포하여 각리장과 읍 · 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1951년 8월 1일에는 군청을 양양면에 두고 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군민정관(군수)을 선출하였는데 초대민정관은 박종승(朴鍾勝)이 뽑혔으며, 각 읍면협의원을 선출하였다.

이형근 제1군단장의 군정목표(軍政目標)는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교육의 재건, 산업의 진흥 등으로 결정하였다. 일면작전, 일면건설이란 구호아래 공병부대는 주민들에겐 집터마련과 주택건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그리고 피난길에 돌아온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구호양곡을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배급하여 주었다. 한국 민사원조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구호식량과 물품을 도입하여 요 구호 대상에게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에 노력하였다.

침체된 상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양양과 속초에 시장을 개설하여 부족한 생필품을 구입 및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양양은 5일장으로 매 장날이면 많은 장꾼들이 몰려들었고, 속초읍의 경우 중앙동에 2동의 현대식 상가건물이 신축되면서 인구에 걸 맞는 상권이 형성되었다.

1951년 7월 4일 미제8군사령부의 합의하에 귀농선(Farmer Line)이 토성면에서 죽왕면 일부까지 설정되자, 이곳 원주민들은 그동안 경지면적이 부족하여 쌀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 활로를 찾게 해주었고, 양양주민들에게는 군용차량을 대체 민간승용이 가능하도록 38°선에서 문암까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출입영농이 가능토록 했다.

1군단사령부는 양양읍 앞내를 흐르는 남대천에는 전화로 교량이 파괴 되 지역민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공병대의 기술로 300m에 달하는 긴 목재 교량을 가설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군 작전수행에 원활을 기했다. 또한 원암에서 인제 용대리간 구간도로 32km를 새로 개설하였는데 개설 전 보다 무려 40km를 단축할 수 있었다.

1953도에만도 6개 사단이 양양에서 창설하였는데 1953년 6월 15일 제1군단예하 22사단과 25사단 창설 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제8군단사령부 테일러장군과 정부요인들을 대동하고 1군단을 방문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반대 양양군민 총궐기대회에도 참석하였다.

1953년 5월 1일 폐허가 된 학교들을 공병대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보수하였으며 책걸상이 없자 미8군의 협의 하에 이형근 장군은 미군포탄 나무상자 4천여 개를 지원해주어 학생용 책걸상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다. 당시 양양군 학교는 고등학교 2개소, 중학교 3개소, 국민학교 14개소 계 19개 학교에 남녀학생수가 12,792명에 달하였고 교직원은 257명이었다. 수복지구인 관계로 북한지역 고아가 수백여 명에 달함에 따라 양양읍내와 낙산사 두 곳에 고아원이 설립되어 이들을 수용하였다.

또한 6.25의 전화를 입어 소실된 낙산사를 1군단 공병대에서 1952년 8월 28일 낙산사 중건공사에 착수하여 11월 22일에 낙성 준공을 보았고, 청간정도 붕괴에 직면하였던 것을 1953년 5월 5일에 복구개수공사를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는 등 문화유산의 복구에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산업진흥과 관련된 사업,

민사행정과 관련사업 등 대소의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복지구 양양군정과 관련된 자료, 주민면담 채록, 체험수기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양양군민의 애환에 대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참고문헌

가미야 후지(이기택 역)『조선전쟁』,2004

김귀옥, 『경제와 사회 여름호』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12]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김찬수, 『내가 겪은 6 · 25』(명문당, 2007)

유광정, 『백선엽을 말한다』(책밭, 2011)

이한길, 『양양의 6 · 25 비화』(양양문화원, 2009)

정용욱, 「한국전쟁」2010

한모니까, 『역비논단』(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권이양, 군정체계, 2006)

한모니까, 『한국전쟁전후 수복지구의 체제변동 과정』 (가톨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9)

『민족의 증언』(『중앙일보사』1983, 304쪽)

『수복연감』(강원문화연구사, 양양군청, 4287(1954). 6)

『군세일반』(양양군청, 4285(1952). 9)

『민사현황』(양양군, 4286(1953). 5)

『약진도상의 수복지구』(양양군, 양양군수복지구건설위원회, 4286(1953). 7)
『읍세일람』(속초읍, 난민구호상황, 1955)
『양양역사 자료집』(강원향토사문화연구회, 양양군, 2003)
『양양군지』(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양주지』(양양군, 1990)
『향토지』(양양군, 1976)
『속초시사』(속초시사편찬위원회, 2006)
『고성군지』(고성군, 1986)
『현산문화』23(양양문화원, 2011)
『속초문화』제17호(속초문화원. 2001)
『23연대 전투사』(백골전우회(왕선구), 2006. 4)
『월간신문(나라사랑)』(국가보훈처, 2014. 7. 1)
『동아일보』(1950. 10. 14)
『설악신문』(양양3 · 1만세운동 재조명, 2003. 3. 3)

집 필 자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소장 이종우
연 구 원 이철수
연 구 원 김재환

편 집 자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 구 원 이규환

연 구 원　김양식

연 구 원　이기용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영

자료조사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 구 원　이철수

연 구 원　김재환

증 언 자

김기정, 김남하, 김동소, 김사철, 김용섭, 김정식, 김종남, 김종호, 김주혁, 김준기, 김홍식, 김희소, 노 돈, 노재춘, 박제철, 손봉만, 신덕순, 양재억, 오제정, 유승일, 원태수, 이교영, 이상억, 이상준, 이종우, 이종하, 이주희, 이철수, 이홍만, 임영애, 장영철, 전영용, 전인원, 조홍식, 최용술, 최용회, 최종원, 최지훈, 최홍제, 추종삼, 한재덕, 홍성하, 김 구(김종극)

사진자료

『약진도상의 수복지부』(양양군 수복지구 건설위원회, 1953)

『수복연감』(강원문화연구사, 1954)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옛 모습』(양양문화원, 2010)

『6 · 25 전쟁 1129』(이중근,2013)

『김양식』(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원)

양재억, 이교영, 이종우, 임영애, 조홍식, 최홍제, 김 구, 전상노

부록

1. 군정 때 겪은 이야기

1. 포로수용소 탈출

■ 노돈 (남, 96세, 양양읍 성내리)
■ 면담일 : 2015. 4. 8

- 논산 군수와 강경 군수가 포로수용소 탈출자를 적극 도와주라고 했다.

고향은 손양면 상왕도리였다. 일본 보국대에 끌려갔다 돌아와서 우차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는데 친구가 월남하는 것을 도와 달라 하여 안내하고 오니 누가 고발하여 내무서에 끌려갔다. 나는 월남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안내한 것이 들통이 나서 월남 방조죄에 해당되어 2년형을 선고 받고 함흥 형무소에 갇혔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 후 아군에게 밀려 후퇴를 하고 있는 시기인 1950년 10월 6개월에서 1년 남은 죄수들을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이송되는 기차가

언덕을 오를 때 뛰어내려 탈출을 한 후 미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아가리 배(LST수송선)로 부산 서면 포로수용소에 도착 심사를 하였다.

〈당시 광주 포로수용소 모습〉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 중 똑똑하고 학력이 있는 사람이 심사관이 되어 포로들을 조사했다. 배를 타고 온 포로들이 엄청 많았다. 약 78,000명 이라했다. 나이 40미만 포로들은 논산으로 이송되어 신병 훈련소 짓는 일을 했다. 나는 포로 중에 간부를 맡아 양양사람들을 연락하고 빨갱이를 회유하여 반공이념을 갖게 하고 탈출할 때도 양양 사람들을 모아 같이 탈출하였다. 그런데 비 오는 날 군인들이 들어와 기상시키더니 탈출하라고 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밖에 나오니 철조망을 끊어놓았는데 800명이 한꺼번에 나가니 불빛이 환한데 겁이 났다. 양양사람 7~8명이 모여 같이 가기로 했다. 미군들이 비상이 걸려 자동차 서치라이트를 비추었다. 10시 30분경 강경 경비대가 길을 막아서 이장 집으로 갔다. 60대로 보이는 사람으로 아들은 군에 갔다고 한다. 논산과 강경군수가 포로 탈출자를 적극 도와주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서장이 우선 옷을 갈아입힌다. 연자방앗간에 들어가 밤을 새웠다. 보리밥 주먹밥을 보내주어 먹었다. 이장 집에 가지 않은 사람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논에서 모를 뽑는 노인을 만나 사정이야기를 하고 집집마다 나뉘어 밥을 얻어먹었다. 대전 우체국장 집에 들어가 머물다 대전 정거장에 오니 미군만 봐도 겁이나 숨어서 다녔다. 대전역에서 역장 실에 들어가니 역장님이 전방에 보국대 갔다 교체해 오는 길이라고 대답하라 하면서 기차로 원주로 보내주었다.

- 양양 네거리에서 박종승 민정관이 나와 환영해 주었다.

원주에서 양양 갓 바위 사람 정경철을 만났는데 그는 정보과장 이었다. 그 분의 도움으로 안 형사를 소개받아 배급소로 갔다. 보급소에서 보리쌀 2포대, 안남미 1포대를 받았는데 무거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안 형사가 술과 고기로 바꾸고 돈 8,000원씩 주었다. 고마워서 우리는 돈을 걷어 안 형사에게 2만원을 사례로 주었다. 버스까지 태워주어 진부에서 칼국수를 먹고 강릉에 도착했다. 강원여객에서 내려 강릉경찰서에 가니 탁상연씨가 사찰과장이었다. 또 주문진까지 보내주어 최병용 이라는 집에서 2일을 묵고 기사문리 헌병대에서 서류작성 통행증을 해주어 양양에 도착했다. 양양 네거리에는 박종승 민정관이 나와 우리 8명을 환영해 준다. 군청 앞에서 스리쿼터에 태워 군CIC에 가서 진상을 예기하고 집에 돌아왔다.

2. 미군부대와 공병단에 이발봉사

- 김홍식 (남, 77, 양양읍 연창리)
- 면담일 : 2015. 4. 8

- 소개령이 내려지자 거마리에 피난 와서 살면서 상평학교에 다녔다.

인공 때 5촌 당숙이 월남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아버지께서 정치보위부(전 삼육유치원자리)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당했다. 6 · 25한국전쟁 때 헌병들이 남쪽으로 피난가라고 해서 주문진에서 1박을 하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피난 온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 1950년 7월 23일부터 양양에는 공습과 함포사격이 심해 소개령이 내려지자 양양사람들 중 일부가 거마리로 피난을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해 추석 무렵 미군 비행기가 현북중학교를 공습할 당시 우

리가 다니던 상평인민학교도 공습을 받았다.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는 시기에 인민군들이 북으로 후퇴할 당시 양양지역에도 북상하던 인민군들이 우리 집 식구를 비롯한 동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북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집 식구들과 일부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인민위원장과 여맹위원장의 설두 하며 다구 치는 바람에 거부하면 잘못 될 까봐 마지못해 따라나서게 되었다. 성내리 붕근넘고개[북문:北門]를 넘어 청곡리로 해서 감곡리를 지나 금풍리 와 사교리를 지난 다음 대문턱(석교리)으로 해서 상복리에 이르자 후퇴하는 대열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감시가 조금 뜸하고 느슨한 틈을 타 상복 마을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주위가 잠잠해지자 우리 식구들은 산길로 도망을 나왔다.

3개월 만에 헤어졌던 아버님이 돌아 오셨다. 1·4후퇴 시 울진, 죽변까지 도보로 피난을 가는데 중간에 민가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으며 나갔다.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 3명을 합해 7식구는 끼니를 때우는 일이 제일 어려웠다. 아버지가 행방을 알 수가 없이 사라져 애타게 기다렸다. 왕도 이모 댁에서 며칠을 묵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길에서 군인들을 만나 짐꾼으로 고성 건봉사 전투에 탄약을 지고 고지에 운반하는 일을 하며 전투에 참가하였다고 했다. 부대에서 증명서를 해주고 헌병이 태워다 주었다고 했다. 정말 전쟁에 나가 돌아가신 줄 알고 할머니는 매일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통하신 것 같다고 하셨다.

- 동호리 미군낙하산부대, 375의무중대, 1101공병단에서 이발봉사를 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집은 모두 타 없어지고 피양(평양)집 등 몇 집만 남았다. 우리는 성내리 군청 뒤에 토막집에서 지냈다. 토막집은 전쟁 전에 사랑방에 살던 사람이 먼저 와서 움막집을 짓고 살았는데 주인집을 지을 수 있게 남겨두었다. 그 집은 나중에 시장에 기름집을 내고 우리는 그 집 방2칸과 부엌 1간에서 살았다. 16살 소년이 할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발소에 나가 손님들에게 머

리도 감겨주고 청소도하고 이발 기술을 배웠다. 그때 미시령 도로공사로 양양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나는 거기 사람들에게 이발을 해주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가서 이발을 해주러 갔다 오던 중 강현 면사무소 앞에서 군 부대 차와 우차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망하는

〈이발을 하고 있는 미군병사〉

모습도 목격했다. 미 극동사령부 산하 낙하산부대가 여운포리 있었는데 거기도 가서 이발을 해주고 서문리 여학교 자리에 있던 375의무중대에도 가서 이발 봉사를 하였다. 그리고 1101야전공병단이 양양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곳에도 가서 이발 봉사를 했다.

- 단발령이 내려져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으니 머리이가 버글버글 거렸다.

1군단 민사처 에서 천도교인들에게 단발령이 내렸다. 그들은 상투를 틀고 살았는데 상투를 자르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치안대 사찰주임이 이발 기구를 지참하고 따라 오라고 하여 내곡리로 갔다. 4~50대로 보이는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어 상투를 올렸는지 알 수가 없다. 사찰주임이 머리를 깎아야 한다고 하니 나는 천도교를 믿으므로 깎을 수 없다고 했다. 수건을 벗으라하니 항의했다. 바로 그때 사찰주임이 확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잡고 머리를 깎으라고 했다.

나는 준비한 이발기구로 재빠르게 머리를 잘랐다. 상투는 잘려지고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다. 머릿속에는 머리이가 버글버글 하였다. 이렇게 내곡리에서 2명을 머리를 깎았다. 다음 날은 갈벌(가평)에 가서 상투를 잘라야하는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출타하고 없다고 하여, 마을 입구에서 그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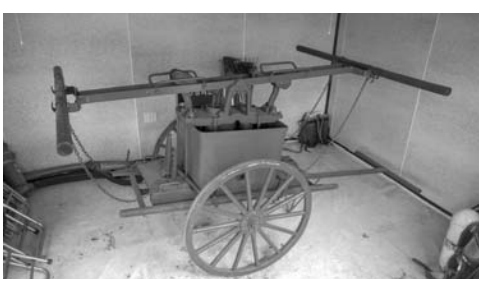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사찰주임을 따라 들어가 "단발령이 내려왔으니 깎자고 하면" 모두 반항을 했으나 강압적인 조치로 갈벌에서도 5명이나 깎았다.

3.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

- 한재덕 (남, 86세, 양양읍 남문3리)
- 면담일 : 2015. 4. 9

- 군복을 입고 강현면 물치에 가서 이승만대통령의 사진을 찍었다.

51년 7월경 나는 북한 장진호가 고향이라 돌아갈 곳이 없고 생각해 보니 속초가 고향 같아 속초에 왔다. 옛날 목재 운반차를 운전하며 속초에서 하숙했던 그 주인집을 찾아가니 "너 무었을 할 수 있니" 하고 묻기에 "저는 사진 잘 찍는 것을 좋아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한 그런 인연으로 사진관에 취직시켜 주었다. 사진관 이름이 설악사진관으로 '임명호' 라는 분이 주인이었는데 양양으로 이전해 나올 때 같이 와 양양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군청에 사진반이 없어 각종 기록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치에 오는데 사진을 찍으러 오라고 하는데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아 군복을 입고 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때 사진관에서는 월급은 없고 밥만 얻어먹고 일만했다.



〈당시 사용한 것과 같은 유형의 수동식 소방펌프〉

박태송 씨가 의용소방대 대장이고 나는 총무를 맡았다. 1952년 양양에는 소방서가 없어 화재가 빈발하여 의용소방대가 창설되었는데 박태송씨가 대장이고 내가 총무를 보았다. 대원은 50명이고 화재진압 기구라야 갈구리, 불털개, 물펌프(4인이 펌프질을 하여 물을 뿜어내는 펌프식 소화장비) 1대가 고작이었다. 고물상을 하던 권문석씨 집에 불이 났는데 추운 겨울인데 불을 끄느라 물벼락을 맞고 몸이 어는 일도 있었다.

집들이 나무를 때는 집이고 목재집이어서 수도 없이 화재가 났다. 동에서 나면 다음은 서에서 북에서 나면 다음은 남에서 난다는 말까지 돌았다. 50명 대원이 희생적으로 활동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조심 단속하여 화재를 줄일 수 있었다.

4. 세금을 배낭에 가득

- 이상억 (남, 79세, 서면 북평리)
- 면담일 : 2015. 4. 10

- 특무대 쏘리로 들어갔다가 무서워서 도망치듯 집으로 왔다.

인민학교 5학년을 마치고 14살이던 중학교 2학년 때 6 · 25전쟁이 일어났다.

가을이 되면서 유엔군이 인민군을 밀고 북쪽으로 갔다가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후퇴하게 되자 국군이 우리를 피난 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나는 장남이라 살려야 한다고 나만 데리고 피난길을 떠났다.

먹을 것이 떨어져 바다풀인 보리 해댕이를 뜯어 삶아먹고 지냈다.

수복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거들다가 특무대가 속초 동명동에 있었는데 어 면장의 사촌이 중령으로 그 부대 대장이었는데 그 소개로 쏘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매일 잡혀오는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조사원은 군복 입은 사람도 있고 민간 옷을 입은 문관들도 많았다. 취조실은 잘 가지 않는데 하루는 물을 가지고 들어 오라하여 물을 바케쓰[양동이]에 담아가지고 가니 실신한 사람에게 부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벌떡 깨어난다. 16세 어린 나는 엄청 놀랬고 무서웠다. 그래서 못 있고 도망치듯 집에 왔다. 잡혀온 사람들을 보니 지방 간첩, 불순분자라 하는데 그들은 산 나물꾼이나 약초를 캐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잡혀왔는데 겁에 잔뜩 질려 들어왔다.

- 서면사무소 소사가 되어 세금을 배낭에 가득 넣고 군청에 갔다.

고성에서 피난 온 사람이 사랑방에 세를 사는 서면사무소 산업계장 이었는데 그분의 소개로 면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었다. 임무는 면사무소의 공문을 가방에 매고 양양군청에 갔다가주고 공문을 받아 돌아오는 것이다. 군청에 갈 때는 공문이나 군청에 보낼 물건을 배낭에 지고 상평에서 양양까지 걸어서 다녔다. 한 번은 면에서 세금을 받은 걸 자루에 넣어 배낭에 넣어 약초꾼처럼 지고 양양까지 가는데 돈도 한 가방 가득하니 무거웠다. 그런데 무거운 것보다 괴한이 나올까봐 더 겁이 나고 두려웠다.

공무원은 돈으로 급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알랑미(안남미) 쌀을 주었는데 면장도 쌀 5~6말, 다른 직원들도 그 정도로 받았다. 쌀밥을 구경도 하기 어려운데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 참 좋았다. 다른 소사는 상평에 사는 김 ○ ○인데 나이 약 40세가 조금 넘은 사람이었는데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관리했고 점심도 그 아저씨 집에서 먹었다.

〈서면사무소 규휼미 배포 모습〉

다른 직원들이 그 아저씨를 호랑이 아저씨라 불렀다. 직원들은

열쇠 좀 빌려 달라고 굽실 덴다. 창고 안에는 구호품으로 온 쌀, 옷, 우유[종이로 된 드럼통에 든 분유]가 쌓여있었다. 열쇠를 얻어 창고에 들어가면 옷, 쌀, 기타 구호품들을 골라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그의 권한이 대단하여 면사무소에서는 그를 부면장님이라 부르며 무서운 존재였다.

군정 때는 외국에서 구호품이 많이 나왔다. 트럭이 각 면마다 구호물자를 나누어주고 가면 사회계에서 각 마을에 구장을 모이게 하고 마을의 크기에 따라 옷, 우유(분유)등을 나누어 주면 구장들은 그것을 마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우유는 전에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어서 밥할 때 같이 넣으면 딱딱한 과자처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갉아먹었다.

5. 성주엽 대멀내 방간

- 신덕순 (남, 95세, 양양읍 남문2리)
- 면담일 : 2015. 4. 14

- 성주엽 대멀내 방간에서 국수 뽑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나는 맨 처음 목수 일을 조금 하다가 우차 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았다. 전쟁 후 수복이 되자 나는 성주엽 대멀(대머리)내 방간에서 국수를 뽑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그때 군인들이 나무를 캔 목재를 가지고 와서 주인집보고 사라고 하였는데 성주엽씨가 나를 보고 나무를 사서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우리 집을 지을 나무 목재까지 사주었다. 그래서 나는 주인집에서 국수 뽑는 일을 다 해주고 난 다음 그전부터 목수 일을 해 본 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터에 집을 지은 다음 그때 우리 윗집 2채와 아랫집 1채 까지 4채를 짓게 되었는데, 품값은 그 집 사람들하고 같이 짓는 바람에 조금만 받고 지어 주게 되었다.

- 그 당시 양양 시내에만 약 80여대의 우차 꾼들이 있었다.

〈당시 우차 꾼들의 짐 운반 모습〉

그때 양양군청의 부탁으로 우차를 몰고 양구까지 가서 쌀을 싣고 왔다. 그 당시 양양에는 차가 귀해서 목탄차만 조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짐은 소가 끌고 다니는 우차가 다 날랐는데 그때 양양 시내에만 약 80여대의 우차 꾼이 있었다. 나는 나무 목재를 파는 장사 하는 목상들의 산판(山坂)에서 나무를 300~400사이씩 싣고 연창 정거장까지 날라다 주었다. 그때 쌀 한말에 600원씩 했는데 품값은 꽤 많이 받은 것 같으나 정확한 값은 잘 모르겠다. 그때는 주로 모루골(내곡리), 곤우골(월리), 황구렁(용천리) 등 여러 곳의 산판의 나무를 싣고 다녔다. 한번은 양양군청에서 쌀을 실으러 양구까지 우차 여러 대가 쌀을 싣고 인제까지 와서 자게 되었는데 여기는 38°선이라 도적이 있을지 모른다고 군청 책임자와 우차꾼들이 잠도 못자고 꼬빡 날을 세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양구까지 갔다가 온 우차꾼들은 품값을 조금만 받고 양곡을 날라 주었다.

6. 미군사고문단 지휘소(KMAG,FDC)

- 김사철 (남, 80세, 강현면 주청리)
- 면담일 : 2015. 4. 15

- 조산 솔밭에 미 군사고문단지휘소(KMAG,FDC)가 주둔 했다.

1951년에 조산 학교 앞 솔밭에 미 군사고문단이 주둔했다. 현 고려대 연수원

부터 주청리까지 바닷가에는 비행장도 닦았다. 보지도 못했던 장비들이 주-욱 지나만 가면 평평한 비행장이 되었다. 솔밭 속 부대에는 철조망을 치고 주로 미군 장교들이 많았고 한국군도 있었다. 경비를 엄하게 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의 나무를 베어 목재도 화목도 하였지만 이곳은 얼씬도 못해 소나무가 잘 보존될 수 있었다. 한국군은 통역사, 번역사, 그리고 한국인 고용인들도 있었다.

부대 주변에는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있어 술 몇 병에 과자 몇 개씩을 놓고 조그만 문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데 고객들은 주로 한국군 졸병들이 배가 고프니까 군수품을 가져 나와 팔아서 먹을 것과 바꾸기도 했다.

또 술집도 많았는데 위스키 집과 맥주 집은 미군들이 드나들었고, 흑인과 백인들이 드나드는 술집이 달랐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와서 장사를 하였고 술집에는 아가씨들도 많았다. 화폐는 주로 한국 돈을 사용하였고 양양 사람들도 술을 마실 때는 조산으로 와서 마셨다. 하우스 보이라고 해서 나이가 적은 아이들이 부대 안에 들어가 심부름도 하였는데 직장이 없던 때에 미군부대에서 일하면 먹을 것도 풍부하고 못 먹어보던 통조림, 과일, 과자 등도 많아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집은 먹는 것이 풍족해 잘 살았다.

- 깡통은 지붕, 드럼통은 쌀통, 철모는 대야, 엔진은 방앗간에서 사용했다.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깡통은 색깔도 곱지만 가위로 오려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고 지붕도 깡통으로 이었다. 철모도 세수 대야나 그릇으로 쓰고 군용 항고와 물통들도 훌륭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드럼통도 쌀통이나 벼를 넣어두는 단지로 사용하였다. 자동차 엔진도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는데 이용하였으며, 그릇이 없어 통조림 깡통 등은 여러 가지 그릇으로 사용하는 등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구호품도 나누어 주었으며 옷과 신발 등을 나누어 주었는데 당시 서양인들이 주로 즐겨 입었던 원피스를 지급받고 보니 긴 치마만 입던 한국 여

자들이 원피스를 못 입고 뜯어서 다른 옷을 해 입었고, 그리고 서양여자들이 신었던 뾰족구두(하이 힐)가 나와도 신지 못하고 버렸다. 병이 나면 군인 야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6 · 25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람은 물론 소도 시련을 겪었다. 군인들이 끌고 가서 잡아먹기도 하고 짐을 싣고 가기 위해 빼앗아 가기도 했다. 농촌에서는 소가 큰일을 하는데 피란을 갔다 와서 농사를 지으려니 사람 힘으로서는 소가 하는 일을 대신하기는 너무 힘들었다. 모내기를 위해 질(두레)을 구성할 때도 우선 소가 있는 집을 고려하고 다른 집들을 배정하였다. 소 주인은 소를 힘들게 부리지 않나 살펴보았고 소를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다. 먹이도 여물에 콩이나 곡식 사료를 넣어주어야 했다. 소 1마리 값은 쌀 10가마 정도 했었고, 춘궁기에 쌀 1말을 장리쌀로 빌리면 추수기에 쌀 1말 5되를 갚아야 했다.

- 22 · 25사단 창설식에 이승만대통령과 미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이 참석했다. 전쟁이 치열해 지면서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게 되자 국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양양군에서 1953년 6월 15일 보병 12사단을 필두로 7개의 사단이 창설되었다. 강현면 주청리 7번국도 옆 연병장에서 22 · 25사단 창설기념식이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열을 받으셨다. 미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 신 국방장관, 진 내무장관, 변 외무장관, 원 헌병 총사령관등 정부요인들을 대동하고 참석하셨다.

〈22 · 25사단 창설행사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과 테일러 미8군사령관〉

22 · 25사단 창설 행사가 끝난 다음 이대통령께서는 통일 없는 휴전결사반대 양양군민 총궐기대회에 임석하시어 3만군중의 환호를 받으시고 간곡한 훈시를 하시고 귀경하셨다. 2013년 전까지 주청리 7번국도 옆에 12사단

창설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당시 양양지역에서 사단창설을 한 부대의 기념비와 함께 현재에는 강현면 장산리 102여단 정문 앞에 여러 창설기념비와 함께 세워져 있다. 창설비의 앞에는 아래와 같은 사단창설 지의 표지판이 있고, 현 조산 주유소 뒤 골짜기는 사단 사령부로 사단장이 거주하고 있었다. 각 연대들도 주변에서 훈련을 하였다.

- 공병대 마대로 옷을 해 입고, 다이너마이트 가방이 책가방이었다.

조산마을이 불에 탈 때 학교도 재만 남았다.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 정손리 동사(마을회관)에서 공부하였다. 아이들은 옷이 없어 벙커를 만들 때 모래나 흙을 넣어 사용하는 공병대 마대로 만든 포대를 뜯어 옷을 만들어 입고 가방은 다이너마이트 가방을 이용하여 책을 넣어 매고 다녔다. 장난감이 없고 놀이터도 없으니 학교가 끝나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대포 불발탄을 주어다 가지고 놀다 잘못 두드려 폭발하여 다치고 죽는 일도 있었다. 아이들 두발은 모두 삭발인데 머리를 깎는 기계가 있는 집에 가면 잘 깎이지 않아 머리카락이 집혀지면서 뽑혀 따가워 이발하자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다.

- 영혈사에 주둔했던 인민군들이 부처님을 산 아래로 굴러버렸다.

1951년 초 낙산사가 화재를 당했다. 사천왕만 나고 모두 화재를 당했다. 1군단에서는 낙산사를 복원하기 시작했는데 마을마다 구장(이장)이 사람들을 동원했다. 내가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낙산사에 가니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있다. 어디서 기와를 많이 실어다 놓았다. 내가 맡은 일은 기와를 지고 지붕위에 나르는 것이었다. 4일간 다니면서 기와를 저 올렸다.

낙산사를 짓고 부처님이 낙산사와 함께 타서 영혈사의 부처님을 모셔왔다. 영혈사 부처님은 6 · 25한국전쟁 시 인민군이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처님을 산 아래로 굴려 낸 것을 화일리 김선녀 라는 할머니가 며느리와 산나물 하러 갔다가 발견하고 집에다 모셔놓은 것을 첩보대장이었던 김동석 대장과 이형근 군단장이 모셔다 낙산사에 봉안하였다. 낙산사를 짓고 난 후 사천왕상 앞에 낙산

사 중건 비를 세웠고 이승만 대통령도 1952년 11월 낙산사를 둘러보셨다. 낙산 고아원에는 검둥이 어린이도 있었다. 낙산사 절 안에 고아원을 설립했다. 검둥이, 고수머리 아이들도 있었으며 그리고 피난민의 아이들도 있었다.

- 골방에 피난민이 많이 들어와 흙으로 지은 벽이 터져나가기도 했었다.

〈당시 낙산 고아원과 원아들 모습〉

1951년 1월 1·4후퇴 시 눈이 억수 로 퍼붓고 피난민들은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집을 다 태웠으니 들어가 눈을 피해 거처할 곳이 없으니 우리 집 작은 딴 채 골방이 남아있었는데 그 방으로 밀고 들어왔다. 밖은 눈이 계속내리니 나가라고도 못했다. 사람을 깔고 올라앉기도 했다. 얼마나 사람이 들어왔는지 흙으로 지은 벽이 터져나갔다. 그래도 불편하다는 말도 못하고 참고 추운 밤을 지냈다.

사람들이 집이 타니까 조산국민학교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거기도 나오라고 하고는 학교도 불을 질렀다. 사람들이 놀라 한꺼번에 빠져 나오느라 아비규환이었다. 학교는 목재가 좋아서 처음엔 잘 붙지 않다가 오래 불이 탔다. 양양 사람들은 김백일 군단장이 불을 놓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여 그 군단장을 미워하였다.

7. 미군 급수차가 물을 뽑아가도

- 최용회 (남, 76세, 양양읍 조산리)
- 면담일 : 2015. 4. 20

- 집집마다 굴을 파 놓고 이부자리도 갔다가 놓고 굴속에서 살았다.

내가 12살이 되던 해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얼마 후 인민군이 대구까지 점령했을 때는 곧 통일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자 인민군이 후퇴를 하는데 그때 누나는 19세, 형은 16세였는데 미군이 처 들어오면 여자들을 모두 겁탈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버지는 누나와 형을 평양 공장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영영 이산가족이 되었다. 어느 때는 인민군이 패전하여 들어가는데 1개 소대에 총을 가진 군인은 반도 안 되었고, 양양에서는 치안대와 인민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

1 · 4후퇴 시 국군이 후퇴하니 분위기 상 피난을 안갈 수 없었다. 피난가면서 쌀을 집 주위에 땅속에 묻고 갔는데 군인들이 쌀을 찾으려고 집 주위를 꼬챙이로 찔러 찾으려고 했으며, 더러는 찾아 가져갔다. 피난을 가기는 갔는데 너무 불편하고 먹을 게 없어 집이 그리워 험한 산길을 돌아 집에 왔다.

전쟁을 하더라도 조상이 잘 돌봐 주리라는 믿음으로 집에 온 것이다. 얼마 후 마을로 들어오니, 초가집은 다 타 없어지자 집집마다 굴을 파 놓고 이부자리도 갔다가 놓고 굴속에서 살았다.

- 미군부대 급수차가 물을 뽑아가도 우물이 마르지 않아 신기했다.

철조망을 치고 미군과 한국군이 주둔했는데 하우스 보이로 취직하여 미군부대에 출퇴근 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거기는 먹을게 지천이었다. 아이들은 미군들을 향해 "헬로 초코레트 기부 미" 하면 그들은 C레이션 [음식이 든 통조림 캔]과 빵과 과자 등을 주는데, 어떤 때는 C레이션 을 1통을 던져 줄때가 있다. 그

러면 횡재하는 날이다. PX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동차도 싼 값에 사서 엔진으로 정미소도 하고 다른 물건들도 많이 가지고 와서 싸게 팔았다.

조산 사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게도 생기고 술집도 많이 생겨났는데 미군이 드나드는 술집과 한국군이 드나드는 술집이 따로 있었다. 술집에는 아가씨들도 많았다. 이발소, 자동차 정비소, 빵집 등 번화했으며, 조산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미군 급수차가 물을 연신 뽑아가도 마르지 않은 것이 그 당시에는 신기하기만 했었다. 조산에서 국군 사단이 여럿 창설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방문하였다.

8. 치안대에 사환

- 원태수 (남, 81세, 양양읍 성내리)
- 면담일 : 2015. 4. 21

- 치안대에 들어가 사환으로 일했다.

6 · 25한국전쟁 시 고급 중학교 2학년 때이다. 북한의 교육체계는 인민학교 5년, 초급중학교 3학년, 고급 중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다. 나는 키가 작아 인민군에 나가지 않아 큰 이익을 보아 살아날 수 있었고, 전 후 수복이 되자 살림이 어려워 치안대 사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치안대 대장에는 김민하. 보안주임 최덕규. 사찰주임

〈양양치안대 제4기 훈련생 모습
4285(1952)년 2월 3일〉

최갑집, 경비주임 김창건. 수사주임 최ㅇㅇ, ㅇㅇ주임 최성호, ㅇㅇ주임 박희태, 그리고 나를 사환으로 취업시켜준 분인 총무주임은 김성옥이었다. 당시 상평리 조홍식씨는 치안대인 설악대에 근무한 경력으로 참전용사가 되었다. 치안대 업무는 속초 부월리 군단 민사처의 지시를 받고 월급도 받았는데 월급은 봉사 수준이고 구호물자를 받기도 했다.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2년 근무 후 양양고등학교 강진천 교장을 찾아가 2학년에 입학하였는데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였다. 그때 학생들은 나이차가 4~5세씩 차이가 났다.

9. 치안대 훈련소 조교

- 이교영 (남, 88세, 서면 범부리)
- 면담일 : 2015. 4. 22

- 치안대에 들어가 치안대 훈련소 조교가 되었다.

1950년 당시 나는 전기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전기가 송전로를 타고 오면 각 가정에 전기를 보내고 고장이 나면 나가서 고치는 역할을 했다. 회사는 성내리에 있었고 전쟁이 나도 회사일은 변함없이 하였다.

〈양양치안대 손양지대 일동 4286(1953)년.1월〉

1950년 10월 국군이 들어오자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함경도 사람인 선일여관 사위인 진택용이 치안대를 조직한다고 오라고 했다. 치안대장은 경찰출신인 김민하가 맡고 진택용은 부대장 겸 경무 주임을 맡았다. 양양본대는 약 80명 정도

대원이 모였고 각 면별로 치안대가 조직되었다. 나는 치안대 훈련소 조교가 되어 활동하였는데 훈련소는 손양 하왕도리에 있었다. 교관은 박준형이 맡았는데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했다. 훈련대원들은 하왕도리 옛날 지서 앞 맞은편 산 밑 점쟁이집[6·25 전쟁 중 소실되지 않음]에서 숙식을 하며 주로 손양 학교마당과 산악지대에서 훈련을 가르쳤다.

1·4후퇴 시 겨울을 나고 3월 국군이 북진하자 양양으로 돌아와 다시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처음엔 무료로 봉사하다가 나중에 생활비 정도만 받았다. 치안대 조직은 경찰조직과 비슷하게 운영되었는데 사찰주임은 최갑집, 보안주임은 최성호, 경비주임은 김창건, 총무주임은 ○○○, 수사주임은 ○○○이었다. 1954년 민정 이양 되면서 일부는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되고 일부는 민간인이 되었다.

10. 미군부대 하우스보이

- 최용술 (남, 80세, 양양읍 조산리)
- 면담일 : 2015. 4. 22

- 조산 솔밭에 주둔한 미군부대 하우스보이 일을 했다.

1951년 미군사고문단(KMAG)이 조산 솔밭에 주둔하자 하우스 보이로 들어갔다. 외곽으로 철조망을 치고 천막이 30~40개동이 있었는데 1개동에 하우스 보이 1명씩 배치되었다. 하우스 보이 역할은 청소, 빨래, 구두 닦기, 잔심부름 등이었다. 한국인은 모두 120여명 정도 근무했는데 하우스 보이가 반이고 식당, 통역관, 노무자 등 60명이었다.

식사는 미군과 같이 했고 미군의 하는 일은 한국군 창설부대를 자문하는 것

같았다. 조산, 주청리에서 국군이 7~8개 사단이 창설되어 최전선으로 배치되었고 다른 곳에서 창설되어온 부대들도 조산리와 주청리에서 훈련을 받고 전선으로 배치되었다. 미군과의 소통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처음엔 몸짓으로 했지만 2~3개월 지나니 간단한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다. 2년간 근무했는데 월급은 달러로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11. 군함이 어린이 놀이터

- 최종원 (남, 76세, 양양읍 구교리)
- 면담일 : 2015. 4. 23

- 탄피를 주어 칼자루도 만들고 친구들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다.

1950년 전쟁이 나기 전부터 양양 송암리 앞 과수원에는 폭탄을 실어다 쌓아놓았으며, 연창리 정거장에도 석유로 보이는 유류와 말먹이인 마초더미가 쌓여있었고, 정암리에 있는 낙산사역에도 전쟁 물자들이 쌓여있었다.

우리는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지나가면 얼른 나가서 기관총 탄피를 주워 모았다. 정찰기가 지나가야 미국 구라망((그러먼 : 미국 노스럽 그러먼 제작사의 F6F 헬캣 전투기)전투기가 폭격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탄피로 칼자루도 만들고 친구들과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다.

인민군은 수 천 명이 회룡리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염전 고개를 따라 속초 쪽으로 넘어 갔다. 그 대장은 무정장군이라 하는데 백마를 타고 있었다. 어른들은 국군을 따라 고성 쪽으로 피란을 가고 아이들은 설악산 핏 골 쪽으로 피난을 갔다. 그때 주민들은 고성 통천까지 국군을 따라 피난 갔다 돌아왔다.

- 동호리 앞바다에 좌초된 미군 군함이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다.

그때 동호리 바닷가에 큰 군함이 좌초되어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미군 소해정으로 기뢰접촉으로 침몰되었다고 했다. 놀이터가 없던 때라 군함에 가서 놀았다. 군함 밑에는 아주 깊어서 다이빙하기에 좋아 여름이면 군함에 가서 놀았다. 군함 안에는 수통, 수저, 허리띠 등을 주워서 사용하였다. 상당기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고물장사들이 뜯어갔다고 한다. 먹을 게 없으니 밭에서 익어가는 왜 귀리를 훑어서 바닷물을 넣고 삶아 먹으니 그래도 살만했다. 보리는 방아를 찧어야 하니 먹을 수 없었다. 또 밤이면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 나가서 게, 조개도 잡았다.

※ 미 군함좌초 : 1129 전쟁사 책에는 1951년 2월 5일로 기록되어있음.

12. 하루에 쌀 2되

- 이주희 (남, 78세, 손양면 수여리)
- 면담 : 2015. 5. 4

- 집에서는 살 수 없어 굴을 파고 온돌을 놓고 1년 동안 살았다.

1950년 6 · 25한국전쟁 당시 나는 14살 이였고 양양 초급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6월 25일 10시경 동네 인민위원회장이 우리 군대가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주문진까지 진격했다고 알렸고, 양양에는 38경비대 3대대와 4대대가 주둔해 있었고 남한은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1950년 전쟁 중에도 학교 공부는 9월까지 하였다. 양양초급중학교에 미군 폭격이 있어서 양양인민학교 뒤 밤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추석이 가까울 때 각 면으로 분산하여 다녔는데 나는 손양으로 다녔고, 조산리 아이들도 같이

며칠간 공부하다가 현북중학교가 폭격에 맞아 학생들이 많이 죽어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여 집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도하고 벼 추수도 도와 드렸는데, 농사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함포사격이 심해지면 학포 산골짜기에 들어가 2일 동안 피란하였다. 함포사격이 심해져 집에서는 살 수 없어 굴을 파고 온돌을 놓고 1년 동안 살았다.

- 부역을 나가서 하루에 쌀 2되를 받았다.

1951년부터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미시령 닦는 데 인부로 나가라고 하여 면사무소에 가니 소령이 인솔 책임자로 왔는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나이 많은 면장에게 "권총으로 쏴 죽이지도 못하고 애가 난다." 고 하며 인부들을 더 모으라고 닦달을 하였다. 미시령에 가서는 발파 후 돌, 흙을 치우는 일을 했다. 아침에 차를 가지고 와 태워가고 저녁이면 태워다 주었다. 큰 장비는 없고 부대에서 삽과 괭이를 준비해주었다. 7번 국도를 닦는데도 여자들이 인부로 나가 일을 하였다. 마을에서 평균을 쳐서 많이 나간 집은 쌀을 하루 2되로 쳐서 받고 덜 나간 집은 쌀을 내 놓았다. 당시 농촌 품값은 1일 쌀 3되, 가을 품값은 5되씩 하였다. 머슴이 1년 동안 일하고 받는 새경은 4가마이었으며, 잘하는 머슴은 쌀 7가마 이상을 받는 머슴도 있었다.

13. 군함에서 고철을 뜯어

- 홍성하 (남, 83세, 손양면 동호리)
- 면담일 : 2015. 5. 4

- 10년 된 된장 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데 동네 인민위원장이 논에 찾아와 밀

양고개에서 탱크가 처박혔는데 인부를 내라고 해서 모내기를 하다가 말고 5명이 가서 탱크를 꺼내주고 오다가 보니 마차에 대포도 끌고 가고 인민군이 새까맣게 총을 메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군 내무서에서 인민군에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튿 날 연창 정거장에 가니 약 200명 정도가 모여 기차를 타고 안변에 내려 학교 운동장에서 강원 내무성 1대대로 편성되어 낮에는 숲에서 자고 밤에는 이동하면서 식사는 민가에 가서 식사를 제공 받았는데 마을 인민위원회에 연락을 하면 그 마을에서 쌀, 옥수수, 보리쌀이 섞인 밥을 주었다. 그 때 먹었던 10년 된 된장이라고 하여 먹었는데 그 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양구에 돌아오니 방송에 인천상륙작전이 있어 원산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후퇴를 위하여 이동을 할 때 부대가 숲으로 들어가 수면에 들어가자 친구와 둘이서 도망을 쳐 의용군생활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 후 1·4 후퇴로 피난을 나갔다가 묵호 부둣가에서 일을 하고 고향에 들어왔다.

- 좌초된 군함에서 고철을 뜯어 팔고, 명태를 잡아 곡식과 바꾸었다.

동호리 앞바다에 군함이 좌초되어 있었는데, 1951년도에 어뢰에 맞아 좌초되었다고 한다. 이 군함이 어뢰에 맞아 침몰할 때 전사자 4명, 부상 4명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다리를 걷으면 그 군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키는 사람도 없어 동네 사람들이 신주, 구리 등을 뜯어다 고물로 팔았다. 빨리 들어가 뜯어온 사람은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다 팔아 돈 벌어 땅도 샀다고 했다. 20세부터 어부 생활로 풍을 달고 배를 타고나가서 명태, 멸치, 오징어를 잡았다. 배는 인구 사람이 와서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었다. 명태가 주로 많이 잡혔는데 선주는 1몫, 어부도 1몫으로 7명이 나누었다. 1사람이 5두름씩 지고 농촌으로 다니며 1두름에 쌀을 2~3되씩 그리고 다른 곡식과 바꾸기도 하였다. 동호리는 항구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 파도가 치면 배를 댈 수가 없어 기사문리, 속초에 가서 배를 탔다.

14. 양양고등학교를 설립

■ 조홍식 (남, 81세, 서면 수상리)
■ 면담일 : 2015. 5. 16

- 양양 유지들이 군단장과 면담 양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6 · 25한국전쟁이 발발하고 20일후인 1950년 7월 15일 양양중학교를 졸업할 때 비행기 폭격을 피해 양양여중 솔밭 속에서 졸업식을 하였다.

수복 후 학도호국단 설립하는데 오라고하여 가나니 거기서 많은 동창들을 만났다. 대장에는 서창하(속초고등학교 초대교장), 총무에 조상학이 맡았다. 당

시 1군단이 속초에 있어 속초에 가서 학도호국단설립회의를 하였다. 치안대도 시험을 보아 뽑았으며,

오색에는 설악파견대가 있었고, 서림 영덕에는 특무대의 지시로 수사대가 근무하였다. 양양치안대장에는 김민하, 총무에는 이시행, 경비주임에 김창건, 보

안계장에 최승호씨가 활동하였는데, 주로 헌병대의 지시를 받고 범죄자, 간첩을 잡아 헌병대와 특무대에 인계하였다.

1951년 양양중학교가 개교하여 3학년 입학하였다. 각 1개 반씩 있었고 고등학교는 개교하지 않았다.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군인들이 건들이지 않았다.

1952년 5월 12일 양중 1회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1군단 민사처에서 속초에 세웠다. 양양 유지들이 군단장을 면담하여 양양고등학교 남녀 공학을 설립하였다. 그때 속고에 다니던 정범화, 이수우, 등이 양고로 왔다. 52년 교원양성을 위하여 시험을 보고 교사를

〈양양중학교 졸업사진 1950.7.15〉

선발하였는데 나는 3차에 합격하여 5주간 교육을 받고 설악(현 온정초교)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15. 첩보부대가 침투

- 손봉만 (남, 92세, 양양읍 청곡2리)
- 면담일 : 2015. 4. 17

- 청년단을 결성하고 4863 첩보부대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가평리에서 출생하였다. 양양소학교를 16회로졸업하고 춘천농업학교 5년을 졸업하여 1942년 양양군청에 근무하다 해방이 되었다. 인민공화국이 건국되어 프로레타리아 정책 수법을 알고 이를 싫어한 이복길, 박세각, 손봉환 등은 새 천지를 만들려면 월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947년 38°선을 넘었다. 우리는 세계 2차 대전 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남한에서 정착하려고 가족을 데리고 왔다.

1950년 전쟁이 났다. 원주에 살 때 함기성(전 국회의원 함종빈 부친)이 군수를 하였는데 재향 양양군민이 똘똘 뭉쳤다. 그 때 공산당 지하조직이 대단히 방해를 하여 한 달 간 피해 다니기도 했다.

우리는 원주에서 이복길, 박세각, 손봉환과 대관령을 걸어서 양양에 들어와 청년단 읍면지부를 결성하는데 200명이 조직하여 제1군단 수도사단 제1연대의

민사처의 지원을 받아 함홍기, 이인영등과 교육을 시켰다. 겨울이 돌아와 1·4후퇴를 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 어려웠다.

1951년 5월 1일 G2 HID가 4863부대 첩보대로 개편되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적정 탐지 과업을 받았다. 기관총과 대포 등의 화기교육을 1

주일 받고 침투, 양양 사람들이 고향 친척이 있고 산악 지형에 익숙하여 전과를 올려 칭찬을 많이 받았다. 특히 박세각씨는 Korea Army(한국육군) 첩보 넘버를 부여받고 활동하였다.

- 민정관 박종승씨의 민사처 첩보 제공으로 첩보부대가 침투하였다.

1952년 군정당시 박종승씨가 민정관으로 있는 민사처에서 작전에 도움이 되는 첩보를 제공하여, 1952년 5월 30일 고성지역으로 전 부대가 침투하였다. 발동선 3척, 목선 2척, 명칭은 수도지대였다. 고성 봉수리에 진을 치고 2박을 했다. 만약 포로가 되면 신분이 공개되니 "민간인으로 잡혀와 노역된 사람이다." 라고 하라고 했다.

고성 남강 다리에서 2일째 되는 날 밤 징후가 좋지 않았다. 그때 조명탄이 올라갔다. 새벽 4시 40명이 습격을 받아 후퇴하는데 육군 중위가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이 났는데, 그 중에 이복길도 부상을 당했다. 우리는 평소 군사훈련으로 군사 작전과 응급처치법 등을 배워 민첩하게 응급처리를 했다.

100고지인 봉우리에서 대피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집중사격을 받았다. 통신병이 수도사단에 알렸다. 해군 함대와 연락이 되어 조명탄이 올려주어 간신히 빠져나오는 도중에 인민군이 배에 사격을 가해왔다. 전사자는 목선에 덮어서 나왔다. 이복길 대원과 부대장이 팔에 관통상을 입어 군사훈련에서 배운 대로 옷을 찢어 지혈을 하고 나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미 해군 함대가 3척이 나타나 고성 봉수리에 함포사격을 할 때 현역 하사와 둘은(포항고 2년) 영어를 배워 글씨는 알아도 대화는 안 되었다. 함대에 오르니 우선 작전 5만분의 1지도도 보고 지형설명,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주니 고맙다고 했다.

새 군복을 받았는데 커서 걷어가지고 입었다. 함포사격으로 외곽을 쏘니 아니라하니 알았다고 하며 외곽부터 쏘아대고 나중에 중앙을 쏘려고 했다고 했다. 거진으로 우체국으로 와서 중위, 대원 3명과 밤중에 담요를 덮고 잠을 청하니 잠이 오지 않아 밤중에 나가 살펴보니, 전사자를 화장하여 가정으로 보내 난

후 지대장이 지프차 타고 왔다.

상부에서는 사단 위치보다 너무 깊이 들어가 작전을 했다고 김광 지대장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징발되어 27세에 들어가 30세에 나왔다. 특수임무 법령으로 박세각 등 5명이 국가 유공자가 되고 2004년 위로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나머지는 유공자가 안 되어 재심청구를 하려고 한다.

16. 남한에서 제일 긴 다리

- 양재억 (남, 85세, 양양읍 남문1리, 당시 공병부대 소대장)
- 면담일 : 2015. 5. 13

- 1101공병단 소대장으로 남한에서 제일 긴 양양교 다리를 놓았다.

단기하사로 6 · 25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3개월간 교육을 받고 1952년 8월 28일 공병소위로 임관 특별휴가를 마치고, 1101공병단 308대대 3중대 3소대장으로 배치되어 양양교 건설현장 소대장으로 첫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2개월 만에 완공한 물치 쌍천교〉

소대원은 30~40명 공사에 투입되었고 감독은 공병단장 서윤택 대령이었고 다리공사 재료는 목재로 1801부대에서 가져왔다. 특수 장비는 601 경장비 부대에서 크레인, 콤프레셔, 도저, 발전기, 용접기 등을 가져왔고 다리 길이는 300여 미터 공사기간은 1952년 6월에서부터 초겨울 로 짐작되는데 약 3개월 동안 밤낮없이 공사하였다.

공사 방법은 목교로, 방부제 발라 파일 박고 그 위에 교각을 세우는 방식이고 남한에서 군인이 가설다리 중 제일 긴 다리였으며, 당시 남한 전체다리 중 낙동강 김해~부산 간의 후포다리가 제일 긴 다리였다고 한다. 과거 양양다리는 일정 때 목교가 있었으나 미군 폭격기가 폭파하여 여성회관 쪽에 임시 다리가 있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라고 대대장이 조인트를 까기도 했다. 그 외 공사로는

① 오색에서 양양까지 단선 도로 확장공사로 카바이드 자동차가 겨우 다닐 정도의 좁은 도로를 자동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확장.

② 쌍천교 공사로 1102공병단에서 2개월 만에 개통.

③ 양양~고성간 7번 국도를 비포장 복선으로 확장.

④ 미시령(충통로)도로를 1101공병단 103대대에서 3개월간 공사.

⑤ 신흥사~물치 구간을 보급품수송용 도로 확장 공사.

⑥ 그 외 도로 확장공사 및 보수작업공사 있었으며, 또 설악산에서 전투가 치열하니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신흥사까지 좁은 농로를 확장하였는데 상도문 오○○씨 집에 주둔하며 2개월 동안 작업을 하였는데 설악산 목우재 가는데 암반 고개(베루고개)의 암석을 폭파하는데 TNT폭약이 많이 들어갔다.

〈1953.10월에 건립한 독립문〉

길을 내는 공사가 힘든데 공기까지 단축하라고 계속 명령이 떨어져 대원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다. 당시 도로 공사 진척이 늦어져 김복창 중령에게 기압을 많이

받았는데 조인트 까는 것은 보통이고 권총을 꺼내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공병대는 기압이 심하다고 한다. 이유는 힘든 일에 군기가 빠지면 정신집중이 안된다고 그런단다.

쌍천교도 601중장비 지원받고 308대대의 병력 지원받아 가설하였다. 1101공병단에서 미시령 도로는 단 본부 S3(작전과)에서 설계를 하여 내려 보내면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많아서 폭파작업이 많았고 지역(양양, 속초) 일반 노무자들도 많이 동원되었다. 나는 완공을 보지 못하고 1953년 11월 21사단에 전출이 되어 화천 사창리에서 근무했다.

- 양양네거리에 독립문을 세웠었다.

1101공병단은 후에 양양군청과 양양국민학교도 지었으며, 과거 양양 네거리의 상징물인 독립문이라고 하는 전후복구사업 기념탑을 세우고 1101공병단의 업적을 기리고 있었으며, 현재 현산공원에 있는 독립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있다.

이 탑은 6 · 25동란당시 제1101야전공병단이 1951년 6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양양지역에 주둔하여 전쟁임무 수행하면서 양양군청, 양양국민학교, 양양교 등 전후복구사업과 지역개발 주민 구호 등 대민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 함 으로서 전화의 실의 빠져있던 우리 양양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부대가 1953년 10월에 양양 4거리에 이 탑을 건립하였고, 1972년 7월에 양양교 서쪽 제방으로 이전하였고, 2008년 7월 도로 확장에 따라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17. 동 파이프를 뜯어서

■ 이흥만 (남, 77세, 손양면 동호리)
■ 면담일 : 2015. 5. 12

- 좌초된 군함에서 동 파이프 등을 뜯어서 고물상에 팔았다.

피란 갔다 돌아오니 동호리 남쪽 끝 앞바다에 시커먼 큰 군함이 바닷가 모래불에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시간이 흘러 반년이 흘렀을까? 가보니 군함 밑에 구멍이 났는데 그리로 들어가 보니 칸칸마다 총과 총알 폭탄 대포가 있고 별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대포는 머리를 넣어 봐도 들어갈 큰 대포도 있다. 부처님도 있고 식당에는 그릇들도 많았다. 군함이 처음엔 육지에 닿아있었는데 홍수가 지면서 떠밀려 바다에 떠 있었다. 우리는 그 속의 구리 파이프를 뜯어다 동네에 도랑(배수구)에 파이프를 놓고 쓰니 좋았다. 그러다 고철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친구들인 이흥만, 장기성, 장세환이 뜯어서 고물상에 팔기로 했다.

군함 속에 부처님으로 쌀 5가마니 값을 받았다. 처음에 구리파이프를 뜯어서 속초 고물상에 가지고 갔다. 차가 없어 걸어서 가거나 운이 좋으면 군용차를 얻어 타고 가기도 했으며, 처음 쌀 1말 값을 쳐 주었는데, 몇 번 그렇게 팔러 다니다 요령이 생겨 망치, 쇠톱, 스패너 등 공구를 사서 이용하니 더 많은 고물을 뜯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돈이 생기니 하고 싶었지만 헤엄을 쳐 들어가야 하고 또 잠수를 해서 군함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고 또 무서워서 용기를 내서 하지 못했다. 내가 군에 입대하여 1군사령부에 근무할 때 잠수병으로 뽑혀 양평 다리 놓을 때 철 와이어를 메고 강을 건너는 일을 했을 정도로 물에는 단련되어 있었다.

다음은 주문진에도 가지고 가서 팔았다. 파도가 심하여 죽을 뻔 한때도 있었으며, 그러던 중 군함 속에 부처님이 있어 그것을 꺼내 속초에 가서 팔았는데,

그 다음날 고철을 뜯어 팔러가니 고물상 주인이 부르더니 어제 부처님 값을 더 처 주겠다며 쌀 5가마니 값을 준다. 기분이 아주 좋아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금이 아니면 보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학교가 불에 타서

- 김용섭 (여, 82세, 현북면 하광정리, 당시교사)
- 면담일 : 2015. 5. 21

- 비행기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교장 이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22세에 속초에 가서 시험을 쳐서 합격하여 상운 인민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 6 · 25전쟁이 일어나고 9월까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1 · 4 후퇴 시 학교장의 인솔로 북으로 피란을 가게 되었는데 고성 어디쯤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고 바다에선 함포사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산이 우르릉 거리며 요란하게 들렸다.

우리 주위에는 온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도록 폭탄이 떨어져 숨어 있다가 나오니 일행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할지 분간을 못해 헤매는데 마침 수양을 맺었던 할머니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피란생활이 끝나고 나중에 복귀하여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비행기와 바다에서 함포사격에 의한 폭격으로 삼지 사방으로 흩어졌던 학교장 이하 동료들을 멀쩡하게 모두 만날 수 있었으니, 그 당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처하였을지라도 모두들 제 살길은 다 찾아서 몸을 숨겼으니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았다.

- 학교가 불에 타서 마을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가르쳤다.

전쟁은 먼 북쪽에서 하고 있고 양양에선 군정이 실시되어 학교에서 교사를 뽑는다고 했다. 나와 친구 한정애와 양양군청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하고 두 달 인가 강습을 받았다. 그때 같이 강습을 받은 사람은 남녀 합하여 50명이었으며, 강습이 끝난 후 그 전에 근무했던 상운국민학교에 발령이 났다. 2년 후 광정국민학교에 발령이 났는데 학교가 불에 타고 없어 교사 2명씩 마을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가르쳤다. 나는 말곡리에 남자 선생과 같이 파견되어 가르쳤다. 다른 곳은 기사문리, 상광리에도 교사들이 나가서 동사나 타지 않은 큰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 여운포 들판이

- 유승일 (남, 81세, 양양읍 남문4리)
- 면담일 : 2015. 5. 20

- 9 · 13 수해가 나서 여운포 들판이 휩쓸렸다.

6 · 26동란이 터지자 하루는 세포위원장이 와서 "제국주의자들이 폭격이 심하니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나오시오!" 라고 하여 따라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기회를 보다가 탈출하여 유엔군에게 투항해 서울서 유엔군 버스로 부산을 가서 LST 배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도착 2월부터 수용소 생활이 시작하다가, 나중

〈거제도 포로수용소 모습 1953년〉

에 육지 지역인 여수, 광주, 논산, 마산, 부산, 부평으로 갈라 수용하였는데 나는 광주에 수용되었다.

1953년 6월 18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 명령으로 수용소를 뛰쳐나왔다. 새벽에 갑자기 나오니 갈 곳이 없어 민가에 들어가 옷을 갈아 입고 마을 이장을 찾아가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되어 도와주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얼마 후 9 · 13수해가 나서 여운포리 들판이 휩쓸렸다. 산에서 목상들이 쌓아놓은 목재들이 떠내려 와 여운포리, 상운리, 동호리, 중광정리 주민들은 나와서 떠내려 온 목재를 주워 겨울 화목을 하였다. 이때 남대천 다리도 찰랑 찰랑하였다.

양양 장에 다닐 때는 걸어서 다녔는데 마을마다 장에 팔 물건을 이고 지고 걸어가는데 마을마다 모여 길을 메웠다. 여운포리에서 홍성철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는 1만평을 농사하는 부잣집이었다. 그가 장 구경하러 가자고 하면 감자 2말을 짐을 만들어 지고 걸어서 양양에 가면 1말에 100환에서 200환을 팔아 밥 먹고 술 먹고 저녁 어두컴컴할 때 동네 주막에 들러 왜면 국수 먹고 왕소금에 막걸리 술을 부어 마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것이 삶이자 낭만이었다. 몇 십리를 걸어 다녀도 멀다 생각지 않고 다녔다. 지금은 다리건너 월리만큼 걸어도 멀다하지 않은가!

1953년 9 · 13포락으로 상운 벌은 피폐해졌다. 나는 수해 직후 양양으로 왔다. 그때 제방은 현재 남문리 빗물펌프장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양양시내도 물이 휘돌아 흘러 피해가 심하였다. 나는 제방공사에 학꾸띠기[비속어 : 개인이 사각나무판자통에 흑을 채우는 일] 일을 하며 임금을 받고 제방공사를 하였다. 양양에는 형님도 있었다. 형님도 총각으로 직업이 없이 친구와 하숙을 하고 있었다. 두 분은 켈로부대(8240부대)에 3년 계약하고 입대하였다가 해산되어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하여 있었다. 후에 친구 분 인 김귀연 씨는 영어 교사가

되고 형님은 학교 서무과에 근무하게 되었다.

- 광목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군복을 염색하여 팔기도 했었다.

형님에게 오니 "승일아 너 학교에 다녀야지" 하여 형님을 따라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서 2학년에 편입시켜 주셨는데 그때 강진천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셨다. 나는 북한에서 고급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 말았었다. 영어시간에 선생님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어서 찬찬이 생각해 보니 포로수용소에서 통역관을 하면서 포로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백상락씨 이었다. 수용소에서 모두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이놈아 하라면 했지, 말이 많아" 하던 그 사람이 영어 선생님이 되어 계셨던 것이다.

학교 다니면서 동창생 집인 중앙포목점 물건을 지게로 장에 팔 물건을 지고 가서 자리를 잡고 작대기를 세워 광목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다가 비가 오면 파장을 했고 또 군복을 염색하여 팔았다. 장날만 장이 섰다. 금강상회, 민천상회, 형제상회 등이 있었는데 그때 양양시장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낸바있는 박융길씨 숙부가 판자 집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20. 고무신이 아까워

- 김준기 (여, 88세, 양양읍 남문4리)
- 면담일 : 2015. 5. 20

- 고무신이 아까워 머리에 이고 다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신었다.

6 · 25 전쟁이 시작되고 피난생활을 하다가 수복이 되어 살기 어려워 혼자 살림을 나와 강릉을 드나들며 보따리 장사를 하려고 결심을 했다. 수건, 치약, 칫솔,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을 강릉에 가서 띠어다 장마당에서 팔았다. 많이 걸어

다녀야 하니 신이 떨어질까 봐 고무신을 머리에 이고 다니다 사람이 나타나거나 양양에 가까이 오면 신을 내려서신고 들어왔다. 그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다 보니 발바닥에선 피가 날 때도 있었다.

이렇게 강릉까지 걸어 다니며 물건을 도매로 사다가 양양 장에다 팔았는데 하루는 속초 부월리 1군단부대 고급간부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나를 부르더니 우리 부대 내의 PX(군부대 내의 매점)에서 나오는 물건이 좋은 것이 많으니 받아서 팔아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왔다. 그러겠다고 하니 치약, 칫솔, 비누, 화장품 수건 등 미국제 물품을 차에 신고 왔다. 물건 값은 현찰이었다. 지프차에 신고 나오면 나는 장판에 펼쳐놓고 도매로도 팔면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21. 돈을 몸에 품고

- 김종남 (여, 89세, 양양읍 남문4리)
- 면담일 : 2015. 5. 27

- 은행이 없어 항상 돈을 몸에 지니고 잠잘 때 돈을 몸에 품고 잤다.

6 · 25 전쟁이 끝나고 수복이 되자 살림이 어렵게 되자 강릉에 가서 옷감을 띠어다가 양양에서 난장에 놓고 팔았다. 지금처럼 시장이 없어 겨울눈이 오면 눈 위에 옷과 옷감을 펼쳐놓고 팔았다. 가난하여 시집올 때 못 배우고 못해왔다고 구박을 받아 옷에 한이 맺혀서 옷 장사를 시작했다. 강릉시장에 다닐 때는 고무신이 귀하고 아까워 신을 박스에 넣어 이고 가다가 양양에 들어 올 때는 신었다.

38°선 검문소를 지날 때는 잔교리 산으로 올라가 돌아 지나왔다. 강릉에 방을

얻어 놓고 시어머니를 모셔서 아이들 밥을 해 먹고 2년을 장사를 하였다.

강릉물건을 띠다 팔다가 서울 광장시장으로 가서 물건을 띠어다 팔아서 돈도 모여 지금의 건물터가 밭이었는데 그 땅을 구입하여 건물도 지어 형제상회라는 가게를 차려놓고 옷과 이불, 그리고 옷감을 팔게 되었다. 그맘때는 은행이 없어 몸에 돈을 지니고 다니고 잠 잘 때도 돈을 몸에 품고 잤다. 그리고 남편도 군대에서 제대를 하여 장사를 같이 했다. 옷 장사를 하여 아들 둘 딸 넷 육남매를 두고 잘 가르쳐서 살고 있다.

22. 1군단 민사처

- 김희소 (남, 88세, 양양읍 남문3리)
- 면담일 : 2015. 5. 28

- 3사단 18연대 군속으로 들어가 급양 업무를 보았다.

북 고성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함흥 남중 3학년 때 해방을 맞이하여 철도전문학교를 졸업 기관사가 되었다. 함흥에는 기관차가 13대 있었는데 야간 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사는 23명이 근무했다.

1950년 전쟁이 나도 기차는 12월 말까지 운행되었다. 12월까지 기차를 운행을 마감하고 명파리에 있는 외갓집으로 갔다. 며칠만 나갔다가 오면 된다고 하여 피신한 것이다.

아버지와 누나는 사전에 월남하여 누나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가인 명파리에 남겨두고 며칠만 나왔다 가려했는데 어머니는 월남 가족이라고 북한내무서원이 데려갔다고 했다.

남으로 걸어서 피란을 나왔다. 해질 무렵 낮에도 호랑이가 나온다는 쑥 고개

를 넘었다. 낮에는 비행기 폭격으로 산속에 숨어있고 밤에는 길을 걸어 감곡리에 왔다.

그런데 군인이 아니면 살기 힘들고 위험하여 군인이든 군속이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친구의 소개로 1950년 12월 25일 3사단 18연대 군속으로 입대하였다. 당시 연대장은 김덕준 중령이었다. 업무는 군 행정업무를 보았으며, 전쟁은 직접 하지 않았다. 지금의 양구 땅굴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살아돌아오는 장병은 1개 대대가 전투에 나가면 병력이 1/4 정도만 살아남아 돌아왔다.

〈갑오년(4287)을 맞이한 치안대원 기념사진 1954년 5월 1일〉

급양업무를 보았는데 사망자도 많아 도장을 파서 월급을 타내서 부대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니 도장 파는 기술도 늘었다.

- 1군단 민사처에 근무하면서 업무규정이 없어 주문진경찰서에 가서 베껴 섰다.

양양에 와서는 1군단 사령부가 속초 부월리에 주둔했는데 1군단 민사처에서 민간인 업무를 하였다. 처장은 장관급인데 전봉윤 대령이 맡았다. 전봉윤 대령은 서예도 잘 써서 낙산사 주련(기둥에 쓴 글씨)을 썼는데 2005년 화재 때 소실되었다. 민사처 조직은 행정과, 치안과, 보안과, 산림과가 있어 군민정관(郡民政官)이 지휘했다. 치안과 아래는 치안대가 있어 김민하가 치안대장으로 있었고 각 면마다 치안대가 있고 오색에는 설악대가 파견돼 있었다.

경무계에 근무했는데 업무규정이 없어 주문진 경찰서에 가서 베껴다 그 규정

에 따라 근무했다. 보안계장은 최성호, 수사계장은 최영덕, 경무계장 김완규, 사찰주임은 이건석, 경비대장은 김여수가 근무했다. 보안계에서는 북피자와 불온한자를 호구 조사하여 정보로 이용하고 보관하였으나 민정이양후 모두 폐기하였다. 민정이양후 경찰로 전환되어 경찰 경무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철물점(민천상회)을 개업 70세까지 경영하였다.

23. 기차정거장 빈집

- 임영애 (여, 83세, 양양읍 남문3리, 당시 교사)
- 면담일 : 2015. 5. 28

- 군용천막, 기차정거장, 빈집을 찾아 한반에 70~80명씩 공부를 했다.

1950년 6 · 25전쟁이 나자 부모님과 5형제가 묵호로 피란을 갔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가지 않았다. 피란을 가다보니 빈집은 다 내 집이다. 김치도 있고 쌀도 그릇 솥도 있어 내 집처럼 들어가 밥을 해 먹고 또 걸어서 피란을 갔다. 피란을 갔다 오니 1951년에 교원을 모집했다. 그래서 속초에 가서 약 50명이 응시하여 강습을 받았다. 남여 비율이 비슷했다. 강습이 끝난 후 속초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학교 교실이 없어 군용천막, 기차정거장, 빈집을 찾아 한반에 70~80명씩 공부를 했다. 가끔 옥수수 가루를 쪄서 급식을 했다. 우유와 분유를 끓여서 나누어 주었지만. 학생들은 우유를 먹어보지 않아 잘 먹으려하지 않았다.

- 그 당시에는 양양도 빈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교통이 좋지 않아 속초에 방을 얻으러 다녔는데 교사는 잘 주지 않았다. 교사

는 월급이 쌀 몇 되박을 받으니 방세를 잘 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다. 군인가족은 인기가 좋아 방구하기 쉬웠다. 교사에 비해 군인가족은 보급품도 있고 씀씀이도 좋아 군인 가족을 선호했다.

〈양양군 제3차 단기교원양성소 수료
4287(1954)년 6월 19일〉

그래도 교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교사가 아니면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낫다 싶었다. 차차 돈도 조금씩 주고 학부형이 쌀도 주었다.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 그렇게 2년을 다니고 양양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했다. 양양도 빈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가르쳤고 운동회는 꼭 했다. 운동회 연습은 1개월 정도 하였고 운동회비용은 학부모들이 모금해서 행사를 치렀었다. 후에 같은 지역에 사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결혼식 주례에는 강진천 교장선생님이 맡아주셨다. 옛날에는 교사를 많이 존경했는데 지금은 존경의 마음이 덜한 것 같아 안타깝다. 선생님을 더 존경하였으면 좋겠다.

24. 비행기를 녹여 지게로

- 추종삼 (남, 79세, 양양읍 조산리)
- 면담일 : 2015. 6. 3

- 둔전골에 전투기가 떨어져 고물 장사꾼이 비행기를 녹여 지게로 날랐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공세로 남으로 피난을 나가는데 양양 남대천에 다리가 없어져 강 아랫목으로 건너 동호리 터널을 빠져나가 솔밭에서 1박을 하고, 하광정을 지나 동산에서 1박하면서 바닷가에서 미역을 뜯어 지붕에 널어 말려서 짊어지고 나갔다. 먹을 것이 없으니 논에 골뱅이를 잡아다 삶아 먹으면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아군의 재 반격으로 양양이 수복되자 집으로 들어왔다.

1953년 전투기 4대중 1대가 산에 부딪쳐서 작은 깊은 게에 떨어졌다. 고물상 이하옥은 김사식, 임사길과 비행기를 녹인 고물을 마을 사람들이 지게로 지고 내려왔으나 설악대인 HID가 압수하여 임금도 받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노임을 못 받아 진정서를 쓴 김사식이 설악대에 잡혀가 맞아서 사망 당 하는 일이 있었다.

- 숯을 짊어지고 속초에 가서 팔고 남은 돈으로 50원으로 학용품을 샀다.

숯을 짊어지고 속초에 가서 팔아 남은 돈으로 학용품을 사서 공부했다. 14살이 되던 해 나는 당숙에게 남들은 학교에 가는데 나는 울며 학교 보내달라고 졸라 학교에 들어가 17세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월사금이 없어 일요일이면 장작을 패서 지고 대포, 청호동에 가서 팔아서 100원~150원을 당숙에게 드리고 50원은 학용품, 전과지도서를 사서 공부했다. 수복이 된 후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에서는 부대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에서 숯을 구어 파는 사업을 했는데, 당숙은 그 숯을 군부대에서 550원에 넘겨받고 나에게 600원씩 팔되 더 받은 것은 네가 쓰라고 하여 숯을 짊어지고 석교리 어이정 고개, 회룡리 고개, 장재터 버덩, 싸리재를 넘어, 청대리 반쟁이 에서 쉬고, 속초 중앙시장 오달포목점 앞에서 숯을 팔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숯을 사려는 분이 숯을 묶은 단을 헤쳐 보더니 불량품이 나와 안 팔려서 저녁 무렵에 600원에 파니 나는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어 속이 상한 마음으로 40계단에 오는데,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부르는 소리에 가보니 6구 시장에서 양미리 한 짐을 저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50원 벌이는 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사방은 어두

운데 싸리재 고개에 오니 군인(HID) 보초가 정지! 소리친다. 겁에 지리려 서 있는데 군인들이 빨리 가라하여 벼락바위를 지나 고개를 몇 개 지나서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다. 한번은 상도문리 싸리재를 오르는데 군인들이 전화선을 풀며 올라오더니 우리를 오라고 하고는 때리는 것이다. 이유는 전화선을 끊어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매를 맞았다. 그 당시에는 전화선이 여러 가지로 활용되었고 대부분의 지게에 멜 방에 전화선이 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 영혈사 주둔부대에서 쏘리 일을 했다.

당숙은 논이 얼마 되지 않은 농토를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니 두 집 살림이라 형편이 어려우니 인근 부대에 군인들이 오라고 하여 옷과 신발을 주었다.

수도사단 기갑연대 화기중대가 탑 골 앞에 있었는데 취사반이 우리 밭에 있었다. 취사반장이 밥 좀 저다 달라고 하여 토옥 골과 경사가 가파른 호랑콧등에 칼돌이 깔렸는데 그때는 맨발로 살던 터라 밥을 지고 호랑이콧등으로 올라갈 때 여유 신발을 가져오라하여 미군신발을 가져와 보니 너무 커서 양말을 신은 신발에 또 미군 신발을 겹쳐서 신으니 날아갈듯 기분이 좋았다. 군인들이 우리와 같이 있자고 하여 좋을 듯 심부름하며 같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쏘리' 라 했다.

25. 숯을 굽는 기술자

- 김종호 (남, 78세, 서면 수리)
- 면담일 : 2015. 6. 8

- 군정 때 무 배추 밭에 인분을 주는 일 하다가 숯을 굽는 기술자로 뽑혔다.

군정 때 16세인데 15사단 농장에 가서 군속으로 일하게 되었다. 드럼통을 거름통으로 쓸 똥통을 만들어 속초 가정집에 다니며 변소 똥을 퍼서 싣고 가서 밭

에 뿌리고 채소를 심었다. 철모 속 하이바로 똥바가지를 만들어 똥을 퍼서 무와 배추에 주었다. 처음에는 빵도 사주고 술도 사주며 자기 집 똥을 퍼 가라하더니 나중에는 약아빠져서 안주고 오히려 무엇을 달라고 했다. 식사할 때는 그릇이 없어 깡통을 반 잘라서 반은 밥을 반은 국을 담아 식사했다.

군부대에서 화진포 산에 가서 숯을 굽는데 숯 굽는 기술자를 뽑았다. 나는 그 전에 숯 굽는 데를 조금 따라다녔는데 같은 마을의 영감들이 이 젊은이가 숯 굽는 기술자 라 하여 뽑혔다. 나는 노인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모른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대충만 알고 있어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했다. 나중에 어지간한 정도로 성공을 하여 숯섬을 만들어 담아 속초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부식을 사왔다. 숯섬은 싸리나무로 동그랗게 만들고 새끼줄로 엮어 저울대는 작대기로 하고 돌을 달아 표시하여 3관포, 5관포, 6관포를 만들었다.

- 노무자 동원은 동내별로 제비를 뽑아 정하고 15일~1달간 부역을 했다.

노무자 동원은 면 산업계에서 16~50세 나이의 사람들을 배정을 해 나오면 동네별로 할당하여 동네는 또 제비뽑기를 하여 정하여 한번 들어가면 보름이나 1개월 동안 군부대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데 면에서 잘못하면 산업계장이 군인에게 맞아 죽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수리에도 인원배정이 나왔는데 아버지는 인제 내면에 삼을 하러가셔서 내가 대신 나갔다. 산업계장이 나에게 너 뭐 하러 왔어 큰 소리로 말하니 나는 노무 하러 왔어요. “일꾼은 안 돼 어른을 보내” 라고 하자 집에 가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하고는 군인차가 왔을 때 얼른 차에 올랐다.

- 상투가 있는 사람도 상투위에 군모를 쓰니 가관이었다.

부대에 도착하니 군복을 내주었다.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라고 하는데 상투가 있는 사람도 상투위에 군모를 쓰니 가관이었다. 신발도 농구화를 내주었다. 우리를 감독하는 째보상사는 벌도주고 무섭게 하였다. 미시령에 물과 기름을 저 올리는데 물 저 올리는 사람들은 쉽게 일을 하였다. 학사평 물탱크에서 물을 받

아 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반을 쏟아내고 가까이 가서 냇물을 받아 채워 도착하는 약은 수를 쓰고, 기름통을 진 사람은 쏟아낼 수가 없었다. 양양고, 양양여고, 한남국민학교를 지을 때도 용천, 수리, 북평, 범부 사람들이 노무자로 동원되어 양양 서문리 방가네 제재소에서 목재를 져 올려 한남국민학교 4칸을 지었다.

26. 몰수당했던 땅

- 전영용 (남, 77세, 현북면 하광정리)
- 면담일 : 2015. 6. 10

- 추석 전날 현북중학교가 구라만 전투기의 공습을 받았다.

6 · 25전쟁은 중 1학년 때 일어났다. 포병부대가 38°선 북쪽 2km에서 남쪽에 대고 곡사포를 쏘아대고 탱크 16대가 줄지어 나가고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가고 그다음은 보병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알았다.

1950년 9월 25일 인민군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찼는데 미군 정찰기가 빙빙하고 도니까 인민군들은 학교로 피신하기도 했다. 다음날은 화요일 추석이라 마음들이 모두 추석기분으로 들떠 있었다. 1교시를 했을 무렵 구라망(그러먼 : 미국 노스럽 그러먼 제작사의 F6F헬캣 전투기) 전투기 4대가 빙빙 돌아서 2학년이 피신, 다음은 1학년은 산위 토치카에 올라가고 3학년은 뿔뿔이 흩어져 토치카로 숨었다.

구라만 전투기는 교통호에 대피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에게 소이탄과 기총사격을 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학생 3명이 죽고 20여명이 다쳤고 서무과장과 교사 3명이 사망하였다. 환자는 현북 구급병원에서 처치하여 가마니때

기로 들것을 만들어 양양 인민병원으로 옮겼다. 산으로 피신한 학생은 다친 사람도 없고 산위에 인민군 기관총 부대가 있어 응사하여 인민군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 군정 때 공산당에게 몰수당했던 땅을 다시 찾았다.

1·4후퇴 때 강릉으로 피난을 갔다. 북한 생활은 지긋지긋해서 살수 가 없었다. 3,000평 이상의 부자 집은 땅은 몰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을에는 농사가 잘 된 곳 1평을 수확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논둑까지 계산한다. 과일도 낙과가 되기 전에 세어서 기록했다가 익었을 때 3대 7로 세금을 부과하니 반도 더 가지고 간다. 또 조, 콩도 마찬가지다. 피란 갔다 와서 양양중학교 3학년에 입학하여 월리 외가에서 학교에 다녔다. 군정 때 하광정리 땅을 북한 공산당에게 몰수당했던 논 3,000평, 밭 4,000평, 산 7정보 강릉 등기소에서 지적을 양양군으로 넘겨와 다시 찾았다.

27. 영어 배우려 하우스보이

- 박제철 (남, 82세, 양양읍 성내리)
- 면담일 : 2015. 6. 10

- 영어를 배우려고 조산에 있는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갔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어 그들이 같이 다니자고 했다. 5년간의 학교를 뛰어넘어 고등학교 2학년에 가려니 인민학교만 다녀서 다른 교과는 따라가겠는데 영어와 수학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산에 있는 미군 KMG 부대에 영어를 배우러 하우스보이로 취직했다. 하루에 30단어씩 외우고 미군에게 회화로 활용하였다. 미군들은 회화는 하는데 글씨를 쓰라고 하면 스펠링을

틀리게 썼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부대에서 하는 일은 자기가 맡은 막사에 청소하고 미군 구두 닦고 잔심부름이 전부였다. 영어를 7개월간 배우고 PX에서 그 당시 귀하게 여긴다던 손목시계를 사서 구입한 후 미군부대에서 나왔다.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5개 학년을 넘어 고 2학년 2학기에 편입하였다. 다음은 수학공부를 하려고 시작했다. 하여 내가 알고 있는 김기정 선생님을 찾아갔다. 밥상을 놓고 나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본이 없으니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삼각함수, 싸인 코싸인, 탄젠트는 알지 못하고 외우기만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9월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러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영어와 수학만 본다고 했다. 고순재 선생님이 다음 문제를 내고 교실로 가셨다.

- 내일 날이 좋으면 강현 비행장으로 놀러갈까 한다.
- 차기 대통령은 이승만씨를 추대하겠다.
- ROKA(로카)는 무슨 약자인가?
- NP와 MP는 어떤 약자인가?

나는 추대란 말을 잘 몰라서 원한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잘 활용했다고 기뻐하셨다.

-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5개 학년을 넘어 고2학년 2학기에 편입했다.

다음은 수학시험. 권 교감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얻어들은 싸인, 코싸인 연필로 그리면서 시간을 끌었더니 교장선생님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왜 못하느냐" 고 하신다. "저는 수학은 좋아하지 않아 공부를 안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하여라." 교장선생님, 친구들이 2학년인데 열심히 할 테니 2학년에 넣어 주세요라고 하였더니 "너 중학교 어디 다녔니?" 예 강릉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명신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증서를 가져와 봐." 나는 미리 예견하고 그 학

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교복을 가져왔다. 명신학교는 교복에 명신 이란 단추가 달려 있었다.

당시 그 학교는 교회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학적부가 없어서 명신학교를 택한 것이다. "내일 부모님을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가서 초등학교 1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 모두 5개 학년을 뛰어넘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입하게 되었다.

입학금은 시계를 7만원에 팔아서 내고 친구들과 같이 다니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흘 배운 수학실력으로는 따라 하기가 힘들었다. 다른 교과는 줄줄 외웠다. 훈민정음 서문, 독립선언서 등 그래서 고문 선생님에게는 인정을 받았는데 수학은 전연 달랐다. 수학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저 학교 못 다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수업시간에 참고서로 공부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 모든 교과에서 외우는 시험은 다 맞을 수 있어서 똥 뱃장을 부려 시험을 치루지 않아서 양고 1회로 졸업할 때 꼴찌인 43등을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 손양면에 첫 발령받아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각 읍 면사무소의 호병계일을 주로 담당했다.

28. 책상은 포탄상자

- 노재춘 (남, 81세, 양양읍 구교리)
- 면담일 : 2015. 6. 13

- 형은 국군으로 동생은 인민군으로 서로 다른 전쟁터에서 싸웠다.

6 · 25한국전쟁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기차에는 군수물자만 실어나르고 사람들은 태우지 않았다.

아버지가 월남하려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일을 한 월남방조사건에 연루되어 원산 감옥에 1년간 수감 되었다가 50년 6월에 만기 출소하였는데 군수 물자 수송으로 기차를 태워주지 않아 걸어서 오셨다.

우리 형제들이 월남하였으니 아버지를 믿고 월남을 결심한 사람들이 안내를 부탁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한번에 2~3명씩 7~8번 안내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다 내무서원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알려주었지만 잠복하고 있었던 내무서원에 잡혀 양양 내무서에서 재판을 받고 원산형무소에 갇힌 것이다.

1950년 5월 이전부터는 인민군들이 기차에 군수물자를 싣고 와서 월리 아카시아 밭에 탱크를 숨겨놓고 밤에는 38°선 근처로 옮겨갔다. 동네사람들이 자연히 흰 패와 빨간 패로 나뉘었다. 우리는 형과 사촌들이 서울로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흰 패라 하였다. 작은형은 인민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포로가 되어 거제도수용소에 있다가 반공포로 석방할 때 돌아왔다. 그러니 형제가 형은 국군, 동생은 인민군으로 전쟁터에서 싸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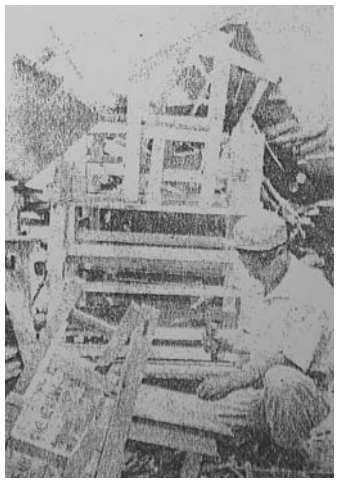
1·4후퇴 때 우리는 용천에 살았는데 국군 대대 본부가 우리 집이었다. 군인들이 곧 후퇴를 하는데 인민군이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집은 우리가 태우고 나갈 테니 먼저 나가라고 했다. 벌써 양양읍내는 화재가 나서 밤하늘이 벌겋게 밝아있었고 주인을 잃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피난생활을 끝내고 수복이 되어 집으로 들어오니 집은 타 없어지고 묻어둔 곡식들은 모두 파 헤쳐져 있다. 우선 집 탄 자리를 치우고 온돌에 흙과 돌을 섞어 쌓고 지붕은 솔가지나 풀을 이어 비를 가리게 하고 살았다.

- 교실은 불탄 방앗간에서 멍석을 깔고 책상은 포탄상자로 만들었다.

국군이 양양에 입성하여 마을마다 부역이 배당되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병약하여 내가 대신 나갔다. 군용차로 도착한 곳은 고성 건봉사 근처 공병대부대였다. 도로보수나 길을 닦기도 하지만 탄약과 보급품을 지고 산위로 운반하는 일

을 했다. 몇 번을 나르고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철모에 벗겨진 글씨를 칠하고 잔심부름을 시켰다. 껌, 비스킷 등 과자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약 1개월을 있었는데 동료가 집에 가지 말고 같이 다니자고 했지만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얼마 있으니 학교에 가라고 해서 학교에 가니 벌써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갔다. 군인 갔다 온 학생도 있고 나이가 3~4살 차이도 많았다. 교실은 서성용[구교리 태산연립 앞 군청길 53 일대] 이네 불탄 방앗간 에서 멍석을 깔고 책상은 군포탄상자로 만들었다. 고등학생은 거의 인민군에 나가고 살아서 돌아온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부터는 깎은 목총을 내주고 제식훈련, 총검술을 가르쳤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치 비행장에 왔을 때 행사에 참가하였다.



〈포탄상자로 책걸상 만드는 모습〉

29. 조모가 사망하자 동내 분들이

- 전인원 (남, 79세, 양양읍 구교리)
- 면담일 : 2015. 6. 23

- 우리 집은 국군 장교들이 주둔해 있어 전쟁 때 타지 않았다.

인공 때 양양 초급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곤우골에 국방군 유격대가 몰래 들어와 양양초급중학교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군 부대를 폭파하려고 박격포를 쏘았는데 남대천에 떨어졌고 미국 비행기가 남대천 다리를 파괴하려고 폭탄을 폭

격하였는데 웅덩이가 파인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논이 말라 파래로 웅덩이의 물을 푸는데 인민군 탱크 여러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남쪽으로 나아갔다.

마을에 오니 동네 게시판에 남조선 어디까지 밀고 나갔다고 지도에 공화국 국기를 표시해 놓았다. 우리는 다 이겼으니 가서 일하라고 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전을 했다.

군 입대를 하라고 상평인민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군대를 뽑아갔는데 신체검사하면 모두 합격이었다. 고급 중학생은 모두 입대하고(17세 이상) 초급중학 3학년생은 자원입대하였다.

국군이 10월 2일 양양으로 진군한다고 하자 인민군은 국군이 여자들은 젖통을 베어내어 죽인다고 선전하여 우리 누나가 고 3학년생인데 겁을 먹고 사교리로 피란을 갔다.

또 공산당 여맹위원장이 와서 너희들을 죽일 터이니 간성이북으로 가야 살 수 있으니 며칠만 가 있어라 하고 몇 번 찾아왔다. 그때 우리 누나는 그 아주머니 딸과 같이 북쪽으로 간 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1·4후퇴 시 그 여맹위원장이 마을에 나타난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야단을 치니 북으로 쫓겨 가고 말았다.

우리 집은 구교리에 있었는데 국군 장교들이 주둔해 있어 전쟁 때 타지 않았다. 우리는 양양국민학교에 국군이 왔다기에 가서 만세를 불렀다. 우리는 공산당을 싫어했다. 초급중학교 때 소년단과 비 소년단이 있는데 나는 싸움을 자주하여 소년단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자아비판시간에는 매일 불려나가서 비판을 받았다. 규칙을 안 지키고, 싸움을 자주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소년단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피난 갈 때 아버지는 재봉틀 대가리를 지고 갔다. 나도 식량을 지고 강릉, 삼척, 임원까지 걸어서 갔다. 피란민 속에 인민군이 숨어 있어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인명이 살상되기도 하였다.

강릉 큰아버지 댁에서 1박하고 밤재[강릉시 옥계면 낙풍리와 강동면 산성우리에 접한 고개]를 넘어 이모식구, 우리 식구, 고모님 나 이렇게 친척끼리 먹을 것을 가지고 피란을 가다가 빈집에서 잤다. 식량이 떨어지자 아버지가 인부로 짐을 지고 갔다가 1주일 만에 오셨는데 소 껍질을 지고 오셨다. 그것을 까실구어(그슬리어) 가마에 삶아 그것을 며칠 먹으니 냄새가 나서 더는 못 먹었다.

식량이 문제여서 이모네와 갈라서 살기로 했다. 이모는 호산으로 가고 우리는 다시 삼척 용하에 와서 정착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다. 1951년 봄 보리농사를 지어 가지고 삼척 정라진에서 돛대가 달린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사흘을 지나 강릉까지 왔다. 배 삯은 아버지가 농사일을 해서 번 돈과 어머니가 재봉틀로 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한 것이다.

-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동네사람들이 마당가에 토롱을 해 놓았다.

구교리 에서는 우리만 피난가고 다른 사람들은 장질부사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았다. 집집마다 굴이 있어 굴속에 습기가 많아 살이 빠져 꼿꼿했다. 피란에서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혼자서 사망하여 동네사람들이 마당가에 토롱[임시로 만든 묘]을 해 놓았다.

다른 마을은 서로 고자질하여 인명피해가 났는데 구교리는 그런 일 없이 양쪽이 인명 피해가 없었다.

피난에서 돌아와 인공 때 5학년을 졸업한 전력으로 중 2학년으로 한 학년 내려서 학교로 들어갔다. 군당 사무실에 가마니를 깔고 배웠다. 책이 달라 선생님이 책을 구해다 배웠다.

북에서 피난을 나와 1군단 군속으로 있던 권문수 교감, 문관으로 있었던 김덕겸 선생이 교사가 되었다. 김덕겸 선생은 이북 고성에서 배구 선수였는데 배구 코치를 해 주어서 체육교사가 되었다. 1951년 봄부터 9인조 배구 선수로 활동하여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다.

30. 비행기 잔해

■ 김주혁 (남, 85세, 강현면 석교리)
■ 면담일 : 2015. 8. 27

-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낙산역에 말을 먹이는 마초가리가 화염에 쌓였다.

해방되던 해에 회룡인민학교 5학년 2학기에 편입하여 동생과 같이 다녔다.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낙산역(洛山驛:강현면 정암리 코레일연수원 자리)에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말을 먹이는 마초가리가 화염 쌓였다.

전란 중 증조부만 집에 남아 계시고 금풍리 산골짜기 흔 집 등을 골라 살거나 산중에 들어가 움막을 치고 숨어 지내다 수복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이미 돌아와 있었다.

- 설악산 골짜기에 떨어진 비행기 잔해를 3번 져 날랐다.

국군 비행기가 설악산 '깊은 게' 에 떨어졌다. 길이 험하고 멀어서 갈 수가 없었다. 그때 둔전리에 치안대 설악대가 파견되어 있었는데 치안대원이 와서 마을 청년들에게 '깊은 게' 에 가서 그 비행기 잔해를 운반해 오면 무게를 달아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마을 청년 몇이 아침 일찍 올라가니 점심때가 되었다. 대청봉 아래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비행기를 해체하여 놓아서 사람이 다쳤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적당히 지고 내려와 설악대 마당에 놓고 저울에 달아보니 22kg이었다. 이렇게 3번을 설악산에 갔다 왔다. 그런데 임금을 주겠다던 약속은 다음에 준다고 하면서 주지 않아 돈은 받지 못했다. 그 치안대원은 용천사람으로 그 후 몇 번 만나 따지고 싶었지만 참고 말았다.

- 전쟁을 겪은 민족의 아픈 기억, 불발탄사고로 목숨을 잃다.

전쟁이 끝나고 수복이 되자 마을 아이들은 놀 만한 장난감이 없으니 산에 가서 새도 잡고 열매도 따 먹으면서 놀았다. 나의 동생과 김성광은 마을 친구 사이

다. 둘이는 산에서 총 앞에 부착하고 쏘는 포탄을 주웠다.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은 둘이는 작대기 끝에 끼우고 산새를 잡는다고 "야! 너 피해. 터지면 죽어!" 하며 작대기를 나무에 탁 쳤다. 그러자 폭탄은 터지면서 불꽃이 지금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불꽃가루들이 쏟아져 성광이의 온 몸에서 불이 붙어 마음이 급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방축 물에 뛰어 들었다. 밤에 보니 퍼런빛의 성광이 몸에서 났다. 어른들께 알려 관덕정에 의무대가 있었는데 업고 달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죽고 말았다. 동생은 머리에 몇 개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두엽이와 억엽이는 형제인데 마음이 착한 아이들이었다. 하루는 친구들이 물에 놀러가자고 하니 할아버지가 조밭을 매야 한다고 못 가게 했다. 조밭을 매던 중에 터지지 않은 포탄을 발견하고 밭 멀리 던져버렸다.

점심시간에 두 형제는 아까 할아버지가 던져 버렸던 포탄이 생각나서 밭머리에서 찾아서는 바위에 두드렸다. 순식간에 포탄이 터지며 형과 기엽이는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되어 흩어졌고 뒤에서 구경하던 동생 억엽이는 온몸에 파편이 박혀 급히 업고 군 의무대에 갔지만 살지 못하였다. 이는 전쟁을 겪은 민족의 아픈 기억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31. 방간 집에서 공부

- 김정식 (남, 80세, 양양읍 구교리)
- 면담일 : 2015. 6. 3

- 칡으로 가루를 내어 옥수수 가루나 산나물로 풀 죽을 쑤어 먹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하다보니 인민학교만 다녔고 초급 중학교엔 가지

못해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1951년 1·4후퇴가 시작되자 저녁때 군인들이 와서 피란가라고 하고 다녔다. 우리는 보따리만 싸놓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둑어둑한데 군인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왜 피란을 가지 않느냐? 하면서 공포를 쏘아대며 빨리 피란가라고 한다. 그들은 마당 짚더미에서 짚단을 빼서는 불을 붙여 집에 대고 집을 태운다. 우리 식구들은 중요한 가재도구도 꺼낼 사이도 없이 다급하게 집을 나와 논 두럭 가로 피하고 나니 삽시간에 마을은 불바다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졸지에 집을 잃고 밤에 남쪽으로 피란을 나가는데 사람들의 길을 메워 남쪽으로 가고 있다. 인구를 지나 주문진에 오니 점점 늘어나는 피란민들과 밤 재에 당도하니 남쪽에는 국군 선발대가 주둔하고 있고, 북쪽에는 인민군이 지키고 있었지만 인민군은 숨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삼척 맹방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더 머무를 수가 없게 되자 시골로 더 들어가 겨울을 났다. 옥수수 가루를 얻어다 끼니를 때우고, 나는 할아버지와 나무하러 다녔고 칡을 파러 다녔다. 아직 겨울이 가지 않은 이른 봄이라 양지쪽을 찾아다니며 칡을 파서는 개울에 가서 깨끗이 씻어 방망이로 두드려 물을 내어 가라 앉혀 가루가 나오면 말렸다가 옥수수 가루나 산나물을 뜯어 섞어 풀 죽도 해먹고 밥도 만들어 하루 한 끼씩 끼니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배를 골아가며 겨울을 나고 수복이 되어 간리로 돌아오니 피란 떠날 때 땅속에 묻어두었던 쌀과 음식들이 누가 다 파내어 가져갔다.

- 지붕이 날아가고 벽만 남은 서성용이네 방간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불에 탄 것들을 걷어내고 토담을 쌓고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 서까래를 올리고 기와조각을 주워 지붕을 덮었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샜고 밤하늘의 별도 보였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한다며 중학교에 다니게 해 주셨는데 교실은 다 타 없어지고 지붕은 날아가고 벽만 남은 서성용[구교리 태산연립 앞 군청길 53 일대]이네 방앗간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선생님이

없어 피란민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셨다. 선생님 중에는 군인도 있었다. 학생은 나보다 3~4세 많은 학생도 있고 나보다 어린 학생도 있었고 학용품은 쌀을 팔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반년쯤 다니다 벽돌을 주워내고 공병대가 건물을 지어주어 중학교 2학년 때는 지금의 중학교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32. 강현국민학교 교감

- 김남하 (남, 88세, 양양읍 남문3리, 당시 교사)
- 면담일 : 2015. 8. 16

- 21세 어린 나이에 강현국민학교 교감으로 발령이 났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강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년 놀다 평강농업학교 2학년에 다녔다. 당시에는 춘천에 농업학교가 있고 고성 금강중학교, 강릉에 중학교가 있었다. 해방이 되면서 북한 인민공화국에서 교사를 뽑는다고 하여 응시하여 합격하여 고성 공현진인민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그때 청년들을 인민군으로 뽑아 가는데 교사는 제외하였다.

1951년 봄 국군이 양양군을 탈환하여 군정이 실시되어 당시 민정관 아래 학무계장을 두었는데 인공 때 민주당 원이던 함종악씨가 맡아했다. 그는 왜정 때 서울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한 분이었다. 군정 하에서 교사를 뽑는다고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냈더니 나는 당시 21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현국민학교 교감으로 발령이 났다. 교사들은 인민공화국 때 교사, 피란 나온 학생, 고급중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교사로 15명이 뽑았고, 학교는 1개면에 1학교씩 있었다.

군청 학무계로 발령이 나서 군청에 가보니 직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는 학교를 감독하고 교재를 알선하고 교사들은 민정관의 발령으로 이동하였다.

- 시멘트 포대로 공책을 만들었고, 책상은 집에서 만들어 지고 다녔다.

학교들은 화재를 입어 불타지 않은 큰 건물에서 공부하고 바닥은 가마니를 깔고 공부를 했다. 시멘트 포대로 공책을 만들었고, 책상은 집에서 만들어 지고 다녔다. 강현국민학교는 회룡리 동사에서 공부했는데 책상이 없어 군인들이 포사격을 하고 남은 빈 상자를 모아주어 책걸상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학생들이 집에서 책상을 만들어 지고 와서 사용하고 집에 갈 때는 또 지고 갔다.

교과서는 학생들은 없고 교사만 가지고 있어 칠판에 쓰면 학생들은 베껴서 공부했다. 종이도 없어 누런 종이나 시멘트 포대를 가위로 잘라 공책을 매서 사용했다. 군청에 1년간 근무하다가 대포국민학교 교감으로 발령이 났다. 교장은 김교욱, 김진익씨가 맡고 있었다.

군정이 정착되면서 교원정리가 있었다. 조건은 북에 협조한 자등은 정리 대상이 되어 그만두고 군청에 촉탁으로 근무하다가 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33. 명륜중학교 수학교사

- 김기정 (남, 92세, 양양읍 내곡리, 당시 교사)
- 면담일 : 2014년 7월 18일

- 당시 국수 1그릇이 20전이였으니 1천원이면 국수 500그릇 값이다.

1945년 3월 일 춘천사범 강습과 졸업 2종 훈도 자격증 받고 1945년 4월 1일 양

양초등학교 발령 4월 5일 부임하였다. 4개월 후 8월 15일 해방되었고 소련군이 양양에 들어왔다. 이어 8월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여 개교하였다.

1946년 9월 1일 양양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급료는 백미를 면사무소에서 받았으며, 별도로 학교에서 돈 1천원을 받았는데 당시 국수 1그릇에 20전이였으니 1천원이면 국수 500그릇 값이다. 또한 그 당시 일반 공무원은 백미와 잡곡을 같이 받았다.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였지만 나는 건강이 안 좋아 징집에서 면제 되었다. 울진까지 나가서 피난살이를 하고 수복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1952년 양양향교에서 세운 명륜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었다.

수복과 동시에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자 나는 명중학교에 들어갔다. 이사장은 월리 김동준씨 부친인 김영재씨 이고 박세환씨가 명예교장 이였다. 나는 학교 운영을 도맡아 하였다. 학급 수는 3학급으로 수업료는 조금 받았고 쌀을 3말씩 받았다. 해가 갈수록 학생이 몰렸으나 10년이 지나면서 재정이 빈약하자 교사들은 공립으로 가게 되면서 폐교하였다. 후에 나는 춘천사범 수료증을 첨부하여 교사자격증을 받고 채용고시 응시 합격되어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34. 학교수업은 천막

- 오제정 (남, 90세, 양양읍 군행리, 당시 장학사)
- 면담일 : 2014. 7. 18

- 1군단이 주관 국어와 수학만 가르쳤고, 교과서는 강릉 교육청에서 수집해 가져오고 월급 없었다.

1944년 3월 춘천사범 강습과 수료, 훈도 자격증 받고 1944년 4월 1일 천진국민학교 발령을 받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11월 까지 근무했다.

1945년 12월부터 고향 현북국민학교에서 무보수 로 근무하다가 1946년 현북중학교 교사가 되어 약간의 보수를 받았다.

1949년 4월 1일 양양여자중학교 발령을 받고 1950년 10월 6 · 25전쟁 중에도 양양여자 중학교 근무하였다.

1950년 6월 24일 팔로군 1개연대가 현재 양양도서관 자리에 있었던 고급중학교에 이동해 와 솥 7개 걸고 소리 없이 조용히 저녁밥을 해먹고 마차로 무기, 식품 싣고 와서 주둔했다. 그들은 6월 25일 새벽 3시 조용히 이동하여 남쪽으로 떠났는데, 약 1시간 후 신호탄인 듯 공포탄을 쏘더니만 전쟁 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기 시작했다.

1950년 8월 추석전날 현북중학교에 미군기가 폭격하여 학생, 교사 다수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당시 미군기들은 인민군들의 주둔지로 보고 오인 하여 공습하였다고 했으며, 환자들은 양양 현 사거리 관동다방자리의 인민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보니 내가 아는 학생들이었다.

1950년 10월 1일 2사단 18연대 백골부대가 군군 입성을 한 후, 1950년 10월 10일 개교하니 남은 교사들은 모두 나왔다. 현북국민학교는 25일에 개교 하여 교장은 지방유지가 맡았고, 1군단이 주관하여 국어와 수학만 가르쳤다. 교과서는 강릉 교육청에서 수집해 가져오고 월급 없었다.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여 고급중학 2,3학년 학생을 교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국군의 후퇴로 1950년 12월 26일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부친께서는 전쟁 시 피난은 남보다 먼저하고 수복 때는 늦게 들어 오거라 라고 말씀하신다.

- 군정 당시 학교수업은 천막 속 맨바닥에서 하였다.

1951년 4월 25일 돌아와 군청 학무계로 복직하여 총무과 인사계를 맡았다. 당시 학교 수업은 천막 속 맨바닥에서 하였으며 군청 민사처의 지시에 의하여 실

행하였다.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50명 모집하였는데 제1기 기간은 1개월로 강사는 국군 제1군단 민사처 문관이 맡았고, 그때 강사로 임명된 분은 강진천, 함종악, 최영린 이었고, 민사처에서 신원조회 후 48명을 군단장 명의로 수료증 수여하여 교사 발령하였음. 그러나 북한 공산당에서 활동한자는 제외 시켰다. 중·고등학교는 양고 교장에 강진천, 속고 교장에는 함경남도 고원 출신으로 중광정리로 피난을 나온 교사출신인 서창하, 그리고 상평교장, 고성교장발령을 냈다. 그 외에 피난 갔던 교사들도 민정관 박종승 명의로 교사로 임명받았다.

부록

2. 군정 체험수기

1. 군정시기(軍政時期) 나의 체험기(體驗記)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장 이종우(李鍾寓, 82세)
■ 손양면 수여리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남들과 서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체험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수기가 후대에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역으로 나는 수기를 써서 남기려 생각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으로서 우리 양양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왜곡되거나 한 역사 문화적 사실들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인정하려는 잘못된 행위를 방관할 수는 없다는 의지를 굳히고 양양문화를 바로 고쳐 기

술하고 널리 홍보되어 바른 역사의식이 양양군민의 정도의 정서에 흠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의식을 굳히게 된 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본다.

2010년부터 꾸준히 고문헌들을 검색하면서 우리 향토사 6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가를 선용하면서 양양의 역사 문화에 대하여 조사, 발굴, 연구, 홍보 등 우리 앞에 전개되는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찍이 우리 양양지역은 선사문화가 꽃핀 곳이고, 유사 이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억울하게 탄압받은 비운의 역사를 저변에 깔고 있으면서, 외세엔 배타적 적개심으로 초토화 되었던 내 고장을 되찾으려 항거한 역사를 읽어보고 진솔하게 기록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비통함도 느꼈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약소국 약소민족이니까.

조선말기 즉 조선 고종임금 말기까지는 모화사상(慕華思想), 일제강점기에는 친일사상(親日思想), 8 · 15광복이후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외세에 의존한 민족분열을 정산하고 통합하려는 기운보다 기득권 유지의 지속화에 혈안이 된 혼돈(混沌)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오늘의 우리지역 38°선 이북지역인 양양(속초, 죽왕, 토성 포함)에 대하여 나는 천기(天機)는 알 수 없으나, 양양은 정말로 천운을 타고난 상서로운 땅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김일성(金日成)의 남침 6 · 25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양양지역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 경지(境地)에 처했으랴 상상해 본다.

구구하게 말은 잇지 않겠으나 6 · 25이전 양양에 살고 있다가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양양의 주민들은 참으로 천운을 실은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아닌가? 이 말은 결코 심한 말이 아니다.

이같이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양양 인들은 피나는 눈물 속에서 새 세상의 양양을 건설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을 곰곰이 생각지 않으면 '뭐 그러려니 체념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못 가질 수도 있다.' 바로 그 한 단계의 과정이 양양지역의 군정기간이다.

군정기간은 정확히 1951년 7월 4일부터 1954년 11월 17일까지 짧은 3년간이다. 나는 군정기간이 청년시기라서 알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지금보다 명석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으래 이렇게 사는 거야' 불만도 행복감도 못 느꼈으니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 왔었다.

이제 내가 우리 양양향토사 중 오늘의 양양이 있게 된 한 과정의 군정시기, 우리 군민의 삶의 애환, 그리고 양양을 재건하겠다는 애향심, 묵묵히 상전벽해와 같이 변천한 시대상을 기록물로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하는 양양문화원의 사업을 장식해야겠다는 생각과 소임을 이행해야겠다는 일념의 책임의식에서 흐릿해져가는 기억을 더듬어 내가 겪었던 군정기의 체험기를 적어감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내 주관에서 사실을 적어가고자 하나 시기는 조금씩 넘나들면서 기록하게 된다.

❖ 소년기 일제강점기 손양공립초등학교(巽陽公立國民學校)에 다녔다.

2차 세계대전[당시 일제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라 함.] 당시 학교 교문 옆 교정에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蔣介石)의 허수아비 짚으로 만들어 세워 놓고 아침마다 등교하면서 목총으로 세 번씩 찌르고 일본천황만세(日本天皇萬歲)를 외쳐야만 교실로 들어갔으니 어찌 보면 이것은 친일행위(親日行爲)가 아닐는지.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배운 바도 없는데 나의 배일사상(排日思想)이 핏속으로 흐르지 않았나본다.

내 아버님의 암시가 있었으리. 나는 의식 없이 '일본은 망하고 우리 조선이 독립해야 해' 이런 말을 문득 문득 했었으니까. 시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천황의 항복 방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남대천을 건너 양양면 연창리 국도변에 위치한 라디오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일본천황의 울음 섞인 항복 문을 읽는 방송을 직접 들었으니 그때의 감격,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감격을 다시 느껴보게 된다.

❖ **광복 후 5년간 북한치하에서 학교교육을 받았다.**

농지 5정보 이상 소유 지주는 전 재산 몰수, 토지개혁 등 정치체제 속에서 나는 중학생의 신분으로 초기 문맹퇴치 운동에 적극 참여했었다.

당시 양양에는 고등학교급인 고급중학교(양양고급중학교, 양양여자고급중학교)와 중학교급인 초급중학교(현북초급중학교, 양양초급중학교, 양양여자초급중학교, 강현초급중학교, 영랑초급중학교, 천진초급중학교, 오호초급중학교)가 있었다.

초급중학교에는 소년단조직이 있었고 고급중학교에는 민주청년조직이 있었으며 매주 토요일 자아비판 명목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는 정치사상교육의 기초과정임이 분명했었다. 이 시기 내가 지금 기억에 남고 있는 것 중에서 공개해도 그 누구의 나무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 두 가지만 기록한다.

첫째는 1946년 9~10월경 손양인민학교 이태하(李泰河)교장을 월남 루트(손양면 부소치리 경유 현북면 장리 당상구미)를 안내한 일.

둘째는 1949년 8월 방학 중 3년 연상의 내 친구 석병설(昔炳卨)이 나를 찾아와 인제군 기린면 귀둔리 큰댁으로 월남하려하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하기에 서면 공수전리를 경유하여 양아치 고개 넘어 영덕리까지 대려다주고 훗날 다시 만나자고 손잡고 헤어져 돌아온 일이다.

분명 석병설 친구는 월남과 동시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한 것으로 짐작된다. 6·25전쟁 중 육군 상사 계급장을 달고 참전 양양을 경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소식이 없으니 그는 분명 동작동 국군묘지에 잠들었을 것이다.

❖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군정기의 체험 과정이다.**

전쟁 중 피난생활을 겪고 1951년 아직 전쟁 중이다. 집은 모두 불타버렸으니 우선 거처할 집을 마련하는데 불탄 집터자리 구들장 그 위에 뙈짱[뗏장]으로 벽

체를 쌓고 지붕은 양양역(양양읍 송암리) 부근 창고들이 탄 자리에 흩어진 함석을 걷어다 이었으니 거적때기 문을 걷히면서 기어들어가고 기어 나올망정 제법 함석집이었다.

우리 식구는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3명 모두 6명이 오순도순 열심히 농사지으며 살려고 노력했다.

당시 장티푸스가 창궐하여, 국군 군의무병이 집집이 돌아다니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우리 집 식구들은 일제강점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아버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장티푸스에 걸려 혼난 일이 있어 면역력이 생겨 그런지 장티푸스 접종 후 열만 조금 있고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며칠씩 누워 앓았었다.

우리민족은 과거 춘궁기인 보릿고개라고 하는 힘든 고개를 넘었어야 했는데 6 · 25전쟁 중 그 고개는 더욱 험했다. 땟거리가 없어 익지도 않은 보리이삭을 잘라다 가마에다 복아서 맷돌에 갈아 멀건 보리죽을 먹으면서 말하자면 초근목피 속에서 하루 속히 전쟁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았다.

우리 마을에도 1950년 전쟁 중 폭격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일할 만한 사람들(공산치하에서 부역한 분들)은 모두 북으로 피난가고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 동내에는 지치레기(지스러기)들만 남았으니 내가 동내 일에 솔선 참여해야 했다.

내보다 나이가 위인 분이 있어 그 분을 구장(이장)으로 하고 나는 2반 반장 역을 맡아하면서 한청(한국청년단) 총무, 구장 일을 보좌하는 서사 몫까지 담당하면서 마을에 불상사가 없도록 마을을 보살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국군의 점령지라, 손양면 하왕도리에 주둔해 있는 한 부대에서 부식용 농산물인 채소류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징발하므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므로 삼복더위에 날마다 소고리지게(소쿠리지게)를 짊어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거두어 드리기가 너무 곤욕스

러워서 나도 요령이 생겨 한꺼번에 많이 거둬드려 쌓아놓고 납품하라는 날 갖다 바쳤다.

그러니 신선도가 전날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징발당하는 것과 같았는데 책임자 모두 부대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띠고 병사 둘이 내려오니 구장은 숨어 나타나지 않고 반장 3명과 한청단장 이렇게 4명이 끌려가서 촌집 높은 뜨럭(뜰층계)에 발을 올려놓고 마당에 손을 짚은 거꾸로 엎드려 벋쳐 시켜놓고 곡괭이자루와 나중에는 카빈소총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억울한 고문을 당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판사판 나로 하여금 지기(志氣)와 기지(機智)를 발휘하여 사태를 해결 수습하고 군과의 오해를 풀고 군의 민간에 대한 적폐를 해소시키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일도 있었다.

❖ 군무(軍務)에 동원되었던 일들

• 미시령 도로 건설에 동원

1951년 가을철이다. 벼가 익어갈 무렵이니 9~10월이 아니겠는가 싶다. 내가 반장이니 우리 마을에 배당된 인원 속에 내가 솔선 참여했다. 바랑망태기를 꾸려 그 속에 쌀 3되, 고추장, 소금, 냄비 등 취사용구와 홑이불을 넣고, 괭이를 지참하고 손양면 하왕도리에 집합하여 일행은 군 트럭으로 미시령 아래 화암사 앞 학사평 너른 벌판에 석양 무렵에 도착하니 군 천막이 쭉 깔려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날 아침 지원인력이 충분하다고 우리 손양면에서 간 인부는 군 트럭에 실려 되 집으로 돌아와 추수를 하게 되었다.

• 미8군 중거리 통신대에 노무원으로 동원

장소는 미시령, 그곳 군부에서는 향로봉이라고 하나 토성면에 위치한 금강산 제1봉인 신선봉의 상봉 북쪽 기슭이다.

일자는 기억 없으니 1951년 연말이나 1952년 1월 초로 기억되는데 온통 은세계를 이루었을 때다.

〈노무원으로 근무한 미시령 옛 모습〉

우리 마을에서는 2명이 차출되었는데 내(당시 19세)가 또 솔선 지원하고 현재(2015년) 수여리 노인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희의 부친 이영수(李永洙:당시 62세)씨는 부친 몽상(蒙喪)을 입고 있는 중임에도 차출되었다.

동원 기간은 3개월, 손양면에서 동원된 인원은 50명 정도다. 미군 GMC트럭 2대에 분승했는데 앞차는 백인 병사, 뒤차는 흑인 병사가 운전했다.

눈길에도 무난히 미시령 중턱을 지나 영마루가 보이는 구배(오르막)가 심한 고개에 이르자 앞차가 오르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이때 내가 탄 차의 흑인 병사가 우리 차를 세우고 "까땜" 이라 중얼거리며 앞차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차에 올라 차를 멈추게 하고 차를 몰아서 구배를 지나 올려놓고 내려오는데 우리 차가 슬며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나는 재치 있게 차의 오른쪽 난간을 안고 뛰어내렸다. 이 순간도 나는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뛰어 내리기는 했는데 내 몸은 차바퀴 밑으로 미끄러진다.

바로 그 순간이다. 흑인 병사의 재치 있는 동작과 기술, 미끄러지는 차에 오르지도 못하고 한쪽 발은 바닥에 한쪽 발로 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모양이다. 이리하여 우리 일행 모두는 또 제2의 인생길을 밟게 되었다. 차위에서 우리들 일행이 하는 말 이구동성으로 "흰둥이 보다는 깜둥이가 기술도 좋고 희생정신이 강하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고비를 넘겨 우리 일행은 무사하게 미시령 정상에 당도하니, 커다란 국방색 낡은 텐트 1개와 말끔한 텐트 2개와 같이 카추샤(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

는 미 육군에 배속 된 한국군인) 3,4명과 미군2,3명이 우리를 맞이한다. 우리는 우리 일행은 커다란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가운데에는 커다란 드럼통 나무난로 하나가 설치되어있고 양옆으론 10㎝ 정도 높이의 미송마루(침상)에 군용 모포가 안쪽으로 개져 놓여있었다. 이어 모두 밖에 나오니 미군 쓰리코터 1대가 도착하고 미군 서너 명이 내리는데 한 병사는 술에 취한 채 양주병을 입에 노상 대면서 부근에서 해골 2개를 주어다가 바위에 올려놓더니 M-2 카빈소총으로 드르륵드르륵 쏘아 깨트리며 고함을 지른다.

다들 겁에 질렸겠지. 우리 쪽으로 총부리를 돌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간이 콩알만 해지는 순간 내 눈엔 섬광이 인다. 저 해골은 인민군이나 국군의 유골일 것이다. 왜? 그곳은 전투가 치열하여 골짜기가 피로 물들어 벌건 물이 흘렀다고 하며 우리 국군의 희생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광경 속에서 나의 뇌리에는 무엇이 스쳤을까! 이 글을 읽어보는 분께서 임의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그곳에서 복무하는 카추샤는 우리를 인솔하는 병사와 미군을 위한 취사병이었다. 인솔 담당병사는 우리들끼리의 자치조직을 하게하니 반장 1명, 취사당번 2명을 선출했다.

우리에게 내리는 식품은 타개지도 않은 통밀과 왕소금 단 두 가지다.

우리 일행은 퍼지지도 않은 통밀 밥에 소금물만 멀겋게 끓인 소금국만 먹으면서 엄동설한에 3개월간 복무했다. 취사용구는 솥 대용으로 드럼통을 반 자른 것 2개, 양은 바케쓰(일본어:양동이) 2개, 한식기, 스픈 뿐이다.

취사장은 우리 텐트 뒤편이요, 우리가 사용할 변소는 등 너머 쌩쌩 삭풍이 몰아치는 그곳에 깊게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굵은 참나무 장태를 쌍으로 걸쳐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 용변토록 되어 있고 눈비가림도 없는 노천 그대로였다. 용변을 보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불그스레하게 팅팅 불은 통밀 그 자체가 대변이다.

그런 식생활 속에서도 오전 오후 하루 2회 용수와 연료용 디젤을 각각 1스빼아깡(스페어 캔)씩 광목천으로 멜빵을 만들어 짊어지고 미8군 통신소까지 운반하였으니 통밀 밥도 소화되고 열량이 충분했던 모양이다. 지금 생각하니 모두 거짓 같은 황당한 옛날이야기 같기도 하다. 지금 우리군의 특수요원들이 그런 지경 속에서 훈련할까?

우리는 밤마다 모포 1장을 3인이 덥고 누워 자는데 입담 좋은 중년 어른들의 음담패설로 밤을 새운다. 일본군에서의 얘기, 폐전으로 만주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일본 여자들의 얘기, 일본군 정신대 1명이 하룻저녁에 일본군 24명까지 상대해준다는 얘기, 나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별들과 같이 꿈만 꾸었다. 그뿐 아니다.

저녁이면 때때로 미군병사가 나를 불러내어 자기네 막사로 데려가서 나에게 복싱 글러브를 끼워주고 나를 복싱용 샌드백 역할을 하게한다. 맞아주다가도 한 뻔치 날리면 인정사정없는 무례한 행위를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너 몇 살이냐?" 물으니 20세란다. 상대의 미군은 키만 내보다 컸을 뿐 정식으로 하면 그 자를 다운시킬 것만 같았다. 저 자는 이국수만리 왜 여기서 나한테 분풀이 하는가? 도리어 그 자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또 가끔 미군이 없는 날이면 카추샤취사병이 나를 슬쩍 불러 가보면 이름도 모르는 음식을 차려준다. 고마운 동포의 정을 나누며 맛있게 먹고 나면 30분도 안되어 통밀만 쏟아 붓는 야전변소로 가야했다. 그래도 나는 좋게 여겼다.

어느 날은 기온이 영하 33°C 이하란다. 콧구멍에도 얼음덩어리, 눈썹에도 고드름, 소변을 보면 오줌이 땅에 닿자마자 얼어 오줌 얼음 순이 50㎝정도 솟아오른다. 이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일행 중 손양면 여운포리 노인 한분이 손이 얼어 헬리콥터로 후송하였는데 후문에 팔을 절단하였다고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손가락과 귀밑 목덜미에 동상을 입었었다. 그 후유증은 평생 이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3개월 복무를 마치고 이영수씨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날 이영수씨는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그분 부친의 구연 앞에 그대로 엎드려 대성통곡하시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울음바다를 이루기도 했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치르고 난 후 나는 그 후 그곳에서 6개월 더 복무했다.

〈당시 미 LST(아갈배) 모습〉

여름철이 되어 홍수로 인하여 미시령 도로가 유실되어 보급품 공급이 중단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카추샤의 인솔 하에 속초항까지 걸어 내려가서 미 LST[당시 아갈배 라 칭함]에서 보급품을 내려 짊어지고 미시령까지 힘들게 운반한 일도 있었으니 무더운 삼복 그런 지경에도 불평 없이 즐겨 소화했으니 이 무슨 청승이었나? 내 그 때 미시령 길을 오르내리면서 충통(忠通)이라 새겨진 바위의 글씨도 보았다. 이렇게 내 푸념을 늘어 놓다보니 미시령~향로봉에서의 복무 9개월의 복무가 끝이 났다.

• 육군 1101야전공병단에서의 노무자로서의 복무

1951년 12월 24일로 기억된다.

풀벌레 베짱이처럼 생긴 공병대 덤프트럭(일제 도요다) 뒷 문짝도 떨어져나간 트럭 맨 뒷자리에 걸터앉아 대포소리, 기관총소리 요란한 동부전선 전방으로 향한다. 날씨는 흐려 금방이라도 눈이 펑펑 내릴 것만 같은데 우선 도착한 곳이 죽왕면 문암역 광장이다.

그 곳 북쪽마을 삼포리 앞산 언덕이 민통선이란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한다. 민통선 통과를 위한 수속 절차로 머문 듯 했다.

날은 어두워졌는데 눈은 내리고 캄캄한 저녁 불빛이 새어나오는 천막 앞에서 차를 멈추고 일행은 천막 속으로 들어가니 제법 크리스마스트리로 장식했으니 우리 군의 여유도 느껴보면서 장교의 안내 설명을 듣는다.

저 대포소리, 기관총소리는 건봉사지구 전투 중임을 알리는 것이라며 곧바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고 말을 마친다.

다시 승차하니 나는 역시 맨 뒷자리 떨어질까 봐 양손을 바닥에 잔뜩 힘주어 밀착시키고 얼마를 간지 모르겠는데 물 흐르는 소리는 반대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소리, 대포소리, 기관총소리는 뒤쪽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거 어쩐 일인가? 전세 불리하여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불길하고 착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트럭은 정차하고 하차 명령이 떨어진다.

내 어디냐고 물으니 지명은 대지 않고 장교의 말이 지금 새벽 2시라고만 대답한다. 하늘을 쳐다보니 희미하게 구름 속에 달의 형체가 보이는 데 눈은 내리지 않은데 하얀 눈 위에 천막 3개가 있다.

나는 첫 번째 천막에 들어가서 자는 둥 마는 둥 날이 밝아 일어나보니 인제군 북면 용대리 용바위 바로 앞쪽 미시령 방향 제법 넓은 곳이었다. 날이 밝은 아침 점호하는데 나는 1101야공단 103대대 3중대 1소대 1분대에 배속된다. 내가 거처하는 천막 속 내 자리는 입구통로 좌측 첫 번째 자리 바로 취사용구 옆이 되다 보니 깔아놓은 멍석자리도 지지하게 젖은 자리다.

세끼 때마다 밥은 흰쌀밥이나 배식 량은 항고 속 뚜껑 반이 좀 넘을 정도에 부식은 콩나물국 때로 김치가 곁들인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빵은 10알씩 나눠 먹고 화랑담배도 열 가치 씩 나눠 준다. 이마저 제때에 보급되지 않으니 도로 보수 작업 중 미군 트럭이 지나 갈 때 미군들이 버리는 담배꽁초도 서로 다투어 주워 한 모금씩 빨곤 한다. 나는 당초부터 담배하고는 벽을 쌓았으니 담배와는 무관했으나 등가죽과 뱃가죽은 마주 닿는다.

눈길을 보수하면서 용대지구에서 눈 속에서 산열매를 찾아 따먹고 계곡의 너

래 반석에 떡을 친 자리를 발견 말라붙은 조각들을 긁어 먹기도 하면서 나는 산에 올라 미군용 도끼, 낫, 톱으로 나무를 잘라 내려 굴려 운반하는 일도 하고, 작업 중 하도 추워서 도로변 초가 3칸 오막살이집을 도끼로 한쪽 기둥을 쳐 넘어뜨리고서 불을 질러 몸을 녹이면서 현역병과 똑같이 복무에 임했다.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복무하다보니 감기가 덮친다. 의무병이 이따금 순회하고 있으나 감기약이란 아스피린 겨우 2정, 잠자리는 과하게 말해 질펀하니 감기는 찰떡 친구 내 몸에서 떠나지 않으니 내 몸이 먹여 살린다. 내가 전에 미시령에서 복무 할 때보다 더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이 같이 힘들게 복무하고 있는데 날보고 현지 입대하란다. 현지 입대가 다 뭐냐. 나는 기회만 있으면 미시령을 넘어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도망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느 쪽이 바른 판단이었는지 모르겠다. 왜? 야전공병이기는 하나 전투에는 임하지 않을 테니, 만약 현지 입대하였다면 지금은 참전용사의 대우를 받고 있을 테니까.

부대에서도 엄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부령 방향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계표지가 있는 인제 땅 산비탈에 온돌 움막 세 개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천막을 철수 할 때 나는 천막 밑에서 아기 주먹만 하게 부풀고 곰팡이가 허옇게 피어있는 건빵 한 개를 발견하고 남들이 볼 새라 얼른 입에 넣고 꿀컥 삼켰다. 아무 탈 없었다.

그날도 눈길 도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오후에 대대본부에서 온 군인이 "이종우!" 부른다. 앞에 나가니 "너는 지금 대대본부로 차출된다. 나를 따라 간다." 하지 않는가. 내 대답 "나 혼자서는 안 간다. 내와 같이 온 이준식과 같이 가면 가겠다." 하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그날 석양 무렵 인솔자와 우리 둘은 트럭에 올라 진부령을 넘어 간성 쪽으로 향하는데 아찔아찔하게 내리막이 긴 구배(오르막) 길을 내려오다 트럭이 고장을 일으켜 움직이지 못한다.

운전병은 차를 지키고 우리는 인솔자를 따라 진부령을 걸어 내려오면서 천야만야한 벼랑 밑을 내려다보니 미군 GMC트럭이 무려 8대나 계곡 눈 속에 박혀 있다. 물론 미군 트럭뿐이 아니겠지! 그 먼저 며칠 전 진부령 간성 쪽 첫 오르막에서 한국군 쓰리코터 1대가 추락했었는데 육군 소장 1명과 운전병이 즉사한 현장도 보았으니까.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더니 어두컴컴하여져서야 대대본부[간성향교가 있는 마을 건봉사로 들어가는 길목 도로변 넓은 곳]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을 다 마친 시각 인솔자의 저녁밥은 있었으나 우리 둘의 저녁밥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우리 둘을 굶기지는 않았다.

천막 속 식당은 장교 식당이라 먹다 남은 밥을 모아 주는데 그 양이 용대리 3중대에서 먹던 양의 3배는 된다. 그 때 대위 한분이 들어와 야전용 식탁 앞 야전의자에 앉으니 취사병이 양은 식기에 불룩하게 담긴 밥상을 차리니 그 장교는 다른 곳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 하면서 그 밥식기의 밥을 잔반통(구정물)에 버린다.

그것을 본 내가 벌떡 일어나 오른팔소매를 걷고 그 밥을 건지니 취사병이 달려와 그 밥 못 먹는다. 라면서 빼앗는다. 나는 먹어야 한다고 하니 주위에 있던 장교들이 "제들이 얼마나 배를 곯았으면 저러겠나?" 하니 취사병이 맑은 물에 헹궈서 주무로 그 밥도 게 눈 감추듯 해치웠다. 그 날 밤부터 며칠 동안 장교 막사에서 생활하고 났는데 어느새 우리 둘이 기거할 1칸 남직한 온돌방을 하나 꾸려준다.

낮에는 뜨끈뜨끈하게 장작불로 방바닥을 달구고 쉬기만 하고 밤에는 반코트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M-1 소총을 메고 도랑 건너 북쪽을 주시하면서 동초에 임했었다.

동초 슬 때에 몸을 데우기 위해 동초 슬 자리에 낮에 미리 장작불을 피워놓는다. 밤에는 불을 못 피운다. 그 이유는 낮에는 대한민국 세상, 밤에는 인민군 세

상이란다. 북쪽에서는 대포소리 기관총소리 여전한데 저녁때가 되면 남쪽 전라도 지방에서 동원된 노무자들이 각종 전략물자를 짊어지고 서쪽 능선을 따라 북쪽 방향으로 열을 지어 가는 광경은 지금도 선하다.

이렇게 3개월간 복무하다가 농사철이 되어 우리 둘은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왔다.

❖ 면서기로 있다가 준 교사자격증을 취득 강현학교로 초임 발령을 받다.

• 농사에 종사하면서 새로 가옥을 마련하다.

1952년 4월경 전방 지역에서 군무에 복무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를 도와 농업에 종사했다.

소로 논갈이 밭갈이 논농사 밭농사 모내기 김매기 정말 힘든 나날이었다.

제일 힘들었던 일은 모내기 때 우리는 정조식이라 상노인은 못줄을 붙들고 나는 복판 차지에 손길은 약삭빨라 모는 빨리 잘 심는데 허리가 아무리 아파도 펼 사이도 없었지만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다. 그 시절 모내기의 허리 통증이 지금 되살아나는 것인가? 세월 탓인가?

그럭저럭 농사를 지으면서 뙤짱(뗏장) 함석집에 기어드나들면서 살수는 없는 일,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의논하여 서면 용천리 광주 노씨 문중의 산판에서 재목감이 될 소나무를 구입하여 우리 마을에 와 살던 고성 피난민들을 대리고 작동하여 용천리 물레 방앗간이 있던 곳 바로 옛 가평 보 아래에 운반하고 그 곳에서 부터는 남대천 물길을 이용 작동한 나무를 물에 띠워 수여리 뒤까지 끌고 내려와 미리 줄을 메어놓은 곳에 걸린 목재를 건져 지게로 목도로 운반하여 건조시킨 후에는 피난민 중에서 녹고[붕어톱]기술자를 구하여 각자를 만들고 역시 고성피난민 중에서 목수 2명을 구하여 번듯한 8간 초가집을 수여리에서 처음 짓고 나니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였다.

• 손양면사무소 면서기가 되다.

평생 힘든 농사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길을 찾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려 마음먹었으나 아버지의 노령에 집안은 가난하니 내가 맏이로서 가정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에 정주영씨와 같은 생각은 못하고, 1954년 당시 속초 부월리에 있던 1군단사령부 민사처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더니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당시 손양면장 고연재씨와 부면장 이면수씨를 만나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손양면서기로 취직시키겠다고 나오라 하기에 너무 감사하여 그 다음날 손양면사무소 서기로 임명되어 산업지도요원으로서 손양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업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런 행운 속에서 나는 농촌 현장에 나가지 않을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주로 펜 글씨 연습만 하였으며 이때 손양면에서는 손양면승람지(巽陽面勝覽誌)를 편찬 발행하였는데 나는 옆에 앉아 구경은 잘하였다.

당시 손양면사무소의 위치는 지금 손양면사무소의 직전자리로서 내가 앉은 자리 뒤편 우측방향에선 천막 속의 손양초등학교 아동들의 왁자지껄 소리와 이형근 대장이 기증하였다는 일제 야마하오르간 소리가 날 안절부절 하게 했었다. 자꾸만 선생님이 되어 달려오라는 소리 같이 내 고막을 때린다.

그 무렵 내 앞에는 박태송씨가 설립 경영하는 유일한 군정하의 수복지구 양양지방의 유일한 소식지인 동해일보에 교원을 모집한다는 기사가 내 눈에 띠었다.

• 단기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국민학교 준교사자격증을 획득하다.

나는 인재고갈시기인 군정 하에서 교원을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고나서 망설임 없이 손양면장 고연재씨와 부면장 이면수씨 에게 신문기사내용을 보이면서 이에 응시해봄이 어떻겠느냐고 여쭈니 망설이지 말고 응시해 보라고 권하므로 용기를 얻어 당시 양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를 찾아가 우선 내가 공부하

고자하는 교과서를 비롯하여 참고도서를 빌려 번갯불에 콩 볶듯 며칠간 밤새워 공부하고 원서를 접수시키고 모집시험에 응시했더니 1번으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양군 제2차 단기교원 양성소 수료 기념 4287(1954).5.19〉〉

이어 손양면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양양군단기교원양성소에 입소하여 교사가 되기 위한 33일간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1954년 6월 19일자로 양양군단기교원양성소장 겸 양양군수 김주혁(金周赫) 명의의 제44호 수료 증서를 받고 수료했으며 또한 어렵게 제73호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획득하였다.

군정시기 준교사자격증 획득자중 1기생으로 양양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전광식(全光植) 선생 1명뿐 이었고, 2기생 중 양양출신은 내가 유일하며 피난을 나온 함경북도 청진사범출신 김모(金某)와 단 2명이라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오르간 실습을 못하고 오르간 건반을 종이에 그려 운지법을 익힌 점과 검정고시에서는 논문시험과목이 있어 처음대하는 것이어서 매우 당황한 점이었었다.

후대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1954년 6월 19일자로 양양군단기교원양성소 수료자 명단과 제2기 수료자 중 1차 임용자를 다음과 같음을 공개하는 바이다.

第二期短期教員養成所修了者名單 (自 4287. 5. 17 ~ 至 6. 19)

No	本　　籍	住　所	姓 名	生年月日	出身學校	備考
1	襄陽　甘谷	襄陽甘谷	鄭南敎	67. 12. 25	襄高二年	–
2	咸南,高原,上山,內洞	襄陽南門	崔寅相	61. 10. 5	高原高卒	–
3	咸南,端川,龍峴	束草大浦	金成圭	60. 6. 2	城津醫專	準
4	咸南,元山,新洞	襄陽連昌	金元一	55. 8. 5	淸津日鐵工	–
5	咸南,高原,上山,樂泉	降峴上福	金振鄕	65. 8. 10	元山工專	準
6	襄陽　舊校	襄陽舊校	徐一洙	69. 10. 29	厚浦高	–
7	咸北,吉州,金松	西面水上	金三龍	58. 2. 7	吉州土木專	準
8	咸南,新浦,東里	束草溫井	金厚情	64. 12. 4	北靑高卒	–
9	巽陽　上水余	巽陽水余	李鍾寓	68. 12. 18	襄高	準
10	襄陽　南門	降峴前津	李在豊	70. 8. 9	江陵師中	–
11	咸南,安邊,安道.於雲	束草四區	金東柱	60. 8. 17	安邊高卒	準
12	咸南,安邊,瑞谷,陵	束草論山	李義京	63. 4. 27	文川高卒	–
13	高城,外金剛,梓月	束草3區	崔星洵	67. 3. 6	高城高	–
14	咸南,新浦,新浦	束草3區	金貞潤	62. 4. 6	咸興師卒	–
15	巽陽　下旺道	降峴間谷	金鳳達	59. 10. 17	襄中	–
16	高城,巨津,盤岩	巽陽鰲山	李昌福	65. 6. 10	–	–
17	巽陽　柯坪	巽陽柯坪	咸準鎬	67. 6. 10	襄高	–
18	高城,杆城,塔洞	竹旺野村	咸貴鎬	57. 2. 25	高城高	–
19	巽陽　柯坪	巽陽柯坪	孫鍾燮	68. 3. 9	–	–
20	高城,內峴,麻車津	束草外谷峙	趙恒九	60. 4. 11	元山工專	–
21	巽陽　密陽	巽陽密陽	尹禹重	66. 9. 5	襄高	–
22	咸南,咸州,宣德,新興	束草里	李筆在	60. 4. 7	서울高啓中	–
23	巽陽　下陽穴	巽陽下陽穴	金根洙	65. 3. 10	縣北中	–
24	高城,內峴,草島	束草4區	張弘奎	66. 5. 20	서울培材高	–
25	咸南,永興,古寧,新坪	束草4區	安冕洙	67. 12. 4	咸興醫專	–
26	西面　上坪	西面上坪	金周興	67. 12. 23	–	–
27	咸北,明川,下古,荷坪	束草里	金　玄	55. 3. 24	咸師講習科	–
28	西面　龍泉	西面龍泉	金順起	67. 10. 1	襄中	準

No	本　　籍	住　所	姓 名	生年月日	出身學校	備考
29	咸南,北靑,新浦,三里	束草4區	金瀅碩	54. 1. 17	北靑農校	–
30	咸興市豊湖里	束草1區	朴璟錫	60. 4. 24	咸興中卒	準
31	咸南,利原,文星	束草4區	許　淵	55. 2. 5	間島東興中	–
32	高城,杆城,沙上	竹旺三浦	南基義	68. 5. 12	杆城中卒	–
33	高城　中里	巽陽上旺道	崔相機	63. 9. 23	高城高	–
34	黃海,長淵,樂道,三川	降峴降仙	李成鎭	59. 3. 18	海州師卒	–
35	高城,縣內,明波	束草4區	黃得培	56. 3. 28	서울高等英數	–
36	高城,外金剛,長○	土城我也津	金鎭錫	56. 5. 9	金剛中卒	–
37	西面　上坪	束草1區	金明濟	62. 7. 16	서울漢城高	–
38	束草1區	束草1區	姜順五	67. 7. 10	襄高卒	準
39	西面　上坪	西面上坪	趙洪植	65. 10. 11	襄高	–
40	咸南,咸州,雲興	束草4區	韓炳鳶	65. 12. 25	咸農專	準
41	咸南,安邊,瑞谷,上一	土城城垈	嚴仁善	59. 8. 13	元山工專	–
42	襄陽　月里	襄陽南門	安貞姬	69. 5. 17	襄中卒	–
43	咸南,文川,長白	竹旺松岩	金順姬	69. 4. 29	東光中卒	–
44	降峴　金風	降峴金風	林貞玉	70. 4. 3	襄中卒	–
45	高城,巨津,龍下	竹旺松岩	卓仙玉	69. 11. 9	東光中卒	–
46	高城　東里	襄陽南門	徐順禮	67. 12. 17	高城高	–
47	襄陽　造山	襄陽造山	崔瓊姬	68. 11. 29	襄高	–
48	高城,巨津,草溪	竹旺三浦	李順姬	68. 4. 9	東光中卒	–
49	元山　臥牛	束草2區	韓永基	67. 11. 8	元山女高	–
50	西面　龍泉	降峴釘岩	李貴姬	69. 12. 2	襄中卒	–
51	竹旺　野村	竹旺松岩	金順德	69. 6. 18	東光中卒	–
52	降峴　沏淄	降峴沏淄	金基順	62. 8. 24	平壤師大	–
53	巽陽　上水余	巽陽水余	李順姏	68. 3. 16	襄中卒	–

(專任講師)

長箭　土城 天津　金 淳 寬　東光中學校

降峴　降峴 枕橋　金 南 珏　襄　國　校

제2기 수료자 중 1차 임용된 자(1954. 6. 30)

양양국민학교	김성규		
강현국민학교	이종우	김순덕	
도리국민학교	조항구		
속초국민학교	박경석		
천진국민학교	김동주		
백촌국민학교	임정옥		
오호국민학교	서일수	안면수	김 현
	이상 11명		

• 교직생활

1954년 6월 30일자로 국민학교 준교사로서 강현국민학교에 초임하였었다.

강현국민학교에 부임한지 3일째 되는 날인 7월 3일이 거군적(擧郡的) 행사인 연구발표회가 개최되는 날이었다. 장학진에서의 주문은 성공적인 연구발표회를 위하여 촉박하게 특별히 발령한 것이니 최선을 다하여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함으로 나는 호랑이도 무서워 할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와 다름없었다. 첫날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밤을 새워가면서 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실내 환경을 정리하니 일신된 환경을 선보이게 했다.

결과론적으로 성공적인 연구발표회가 되었다고 강평하니 '신임교사 이종우의 역할이 한몫 있었다.' 고 찬사를 한다. 이후 나는 이 말을 되새기면서 고개는 들지 않고 어린이들의 눈빛만 주시하면서 백묵가루만을 날렸다.

당시 장학사는 최경하(崔慶夏) 교장은 김주형(金周亨) 선생이었으며 이형근 1군단사령관이 기증한 오르간으로 음악수업을 전개하니 설레게 하던 회포가 슬슬 풀려갔었으며 방과 후 활동으로 합창부원 지도에서 2부합창도 지도하였다.

8 · 15광복기념행사 등 국경일기념행사와 면단위 행사는 강현학교 교정에서 거행하는바 국민의례에는 반드시 내가 오르간 반주로 애국가를 제창하게 하였

다.

나는 물치천 제방 밑 물치리 첫 집에 하숙하고 있었는데 1954년 9월 13일 큰 홍수로 육군 공병대에서 설치한 물치천 콘크리트교량의 교각이 주저앉았으므로 헌병이 민간인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을 때,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를 건너가 물에 잠겨가는 학교에 가야한다고 애원하여 통행을 허락받아 다리를 건너 헤엄치다시피 하여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탄피상자로 제작한 학적부 함과 태극기함을 내려 광목천으로 만든 창문 커튼을 벗겨 단단히 묶고서 멜빵을 만들어 짊어지고 장산리 쪽으로 올라가려고 운동장에 나오니, 당시 장산리 비행장 위쪽에 주둔하고 있던 수송부대의 중장비를 실어 나르는 크고 기다란 대형추래라가 내려오다가 학교정문 앞에서 정차하더니 우의를 입은 장교 1명이 내게 다가와서 상항을 물어보므로 "태극기와 학생들의 학적부 유실을 방지하고 영구보존하게하기 위하여 장산리 쪽으로 대피시키는 길이다."라고 하니 "학교가 떠내려갈 상태는 아니니 되 교무실에 드려 놓고 나와 차를 타자." 고 권하므로 내가 짊어졌던 것을 교무실 다른 서상(書箱)위에 올려놓고 나와서 그 장교와 같이 차를 타고 무사히 철길 둑 밑 배수로를 넘어 왔었다.

나로서는 이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에 나의 뇌리에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깊이 박힌 것이리라. 15명의 교직원 중에서 나만의 행위였다.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 애향심, 애교심, 교육신념이 강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누추한 교단생활이라 하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당시는 전화의 잿더미 속이라 모든 물자는 귀했으며 구하기도 어려웠었다.

그러므로 피복은 검정물들인 군복을 입었었고, 보수는 교원 공무원 공히 소두(小斗)로 쌀 4말, 보리쌀 4말이 전부로서 면사무소에서 배급받아 하숙비도 지불하고 그 나머지로 생활했다.

그 해 7월 3일 연구발표회가 끝난 후 군의 지원으로 학교교사를 증축하는데 지원부대는 공병대로 1개 소대병력이 파견지원 했는데 그 부대 소대장 김모(金

某) 소위와 가까이 지냈었다.

나도 병력의무를 필해야 교직생활도 계속 영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김 소위에게 육군 장교가 되는 길을 물으니 광주보병학교에 입교하는 길이 있다고 자세히 안내하기에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과목인 영어 실력을 기르고자 고교 영어교과서를 구하여 독학으로 영어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얼마가 지났을까?

1954년 11월 17일 군정이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으로의 민정이양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민정이양으로 군정이 마감하니 교육환경과 교육인사에 대변혁이 이루어졌다.

군정시기 수복지구에서 나름대로 헌신하던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명예도 없이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새롭게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의 교원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나를 비롯하여 준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몇 명, 대한민국 국군으로 참전했던 교사 몇 명, 춘천사범과 강릉사범 출신 교사 몇 명, 일제강점기 훈도출신 간부교원 몇 명, 여교사들만 임시교사로 임용되니 이들 교육인력으로는 수복지구 양양의 교육을 감당 할 수는 없었으므로 38°선 이남에서 부족 교원을 충원하여 양양교육의 기틀을 새롭게 펴나갔다.

2. 행적 소회록(行績 所懷錄)

■ 전 양양교육청 교육장 고 김종극(故 金鍾極, 111세)

〈이 수기는 고 김종극 선생의 『풍상구십평생 행적소회록(風霜九十平生行績所懷錄)』중 일부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 **설악산 마등령을 넘어 5일 동안 걸어서 춘천에 도착했다.**

나는 1905년 강현면 중복리 서당집 김좌배(金佐培) 공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자인 맏형[김종섭(金鍾燮) 서당훈장]에게 한문을 배워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16세가 되던 1920년 맏형의 권유로 남궁억 양양군수가 군행리 구 객사(舊 客舍)에 설립(1905년)한 현산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

〈춘천사범시절 암록강철교 수학여행〉

이듬해인 1921년 12월 4학년 2학기 말 야간에 현산학교가 불에 타고 그 앞에 있던 양양의 명물인 태평루(太平樓)가 전소되어, 3학기부터 구교리에 건설한 새 학교로 옮겨서 다녔다.

그 후 보통학교(현산학교)를 졸업하고, 19세 때인 1923년 3월 중복리 집을 떠나 설악산 마등령을 넘어 주막여인숙에서 숙식을 하며 5일 만에 춘천에 도착, 그해 4월 춘천사범학교 응시시험에 합격하여, 1925년 3월 25일 춘천사범학교 제1회로 졸업하고 공립보통학교 훈도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925년 3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근무지를 지정받은 울진군 매화보통학교를 시작으로 홍천보통학교, 원주보통학교, 원주 황둔간이학교, 춘천학곡간이학교를 거쳐 1942년 교직생활 17년 만인 37세에 첫 교장 발령지로 회양군 이포학교 교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고향인 양양 강현인민학교 교장으로 전근 되어 재직하였다.

1947년 6월 월남 후 강릉성덕학교와 묵호학교에 재직하고 연곡 학교에 온지

10개월 만인 6월 25일 아침식사 후 학교주변 공지에 깨 모종을 하느라 라디오도 듣지 않고 모종을 하고 있는데, 6 · 25동란이 터져 아침 10시가 되니 북쪽 인구 방면의 피난민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우리 식구도 피난길에 올라 강릉 안인과 옥계를 거쳐 정선 임계, 평창 미탄, 제천, 영주, 안동, 영천, 대구, 경주, 울산, 부산까지 피난생활을 이어갔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그 해 11월 10일 수복명령이 내려져 전쟁 중 부산으로 대피중인 묵호 운수국(運輸局) 소속 수송선을 타고 11월 30일 묵호에 도착하였다.

12월 2일 강릉 주문진 주영학교로 임지를 지정받고 근무를 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 제2차 피난생활을 울진에서 하고 돌아온 후 `51년 4월 초에 수복이 되어 `51년 5월 1일에 개교를 한 주문진 솔밭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천학교로 부임하게 되었다.

❖ 강릉교육감으로부터 양양수복지구로 전출을 권고 받다.

1953年 2月 11日에 강릉교육감 최준길이 사천으로 출장 와서 나와 조용히 이야기 할 시간을 가졌다. 나를 보고 수복지구(收復地區)인 양양(襄陽)에 전출할 의향을 묻는다. 나는 즉각 강릉에서 나 같은 인물이 필요하면 그냥 두고 그렇치 않거든 내 보내라. 그러나 나의 자신은 전출할 의향이 없다고 똑 잘라 말하고 헤어졌다. 즉 나의 뒤를 희망운동(希望運動)하는 자가 있기에 고향인 양양으로 가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집에 와서 도인사계장 안경모에게 양양 입주의향을 전달하고 귀향을 결심하여 양양학교로 전출하게 되었다.

校監 : 洪廷杓. 朴榮成

教師 : 沈興燮. 朴命均. 權赫南. 沈相信. 權吳詵. 崔燉弼. 崔允植. 洪順子. 崔○○

❖ 양양국민학교 시절에 얻은 영광의 별명인 돈 벌거지 교장

6 · 25한국전쟁이 휴전과 동시에 38°이북에 군정(軍政)이 실시되어 모든 기관이 군정 하에 예속(隷屬)되어 교육도 사령관인 군단장이 통할(統轄)되어 공무원의 임면권도 장악하였다.

교원의 임면도 우익(右翼)인사로 채용하여 국민의 제도에 준하였다. 그러나 1955년 3월에 군정이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에 복구하여 수복지구에 공무원도 대거 남에서 입북하여 과거 유임자(留任者)들과 마찰이 심하여 입북한 자들도 곤경에 처하였다.

나는 양양국민학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도임하였다. 나는 월남을 하여 강릉객지에서 교육생활을 하였기에 지역사회와는 생소하며 또 공산지역이기에 이념적(理念的)으로 합치(合致)하는 편이 적다. 주민들은 흔연(欣然)히 국민의 품속으로 들어 온 것을 감읍(感泣) 할 것으로 여겼으나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았다.

첫째, 교직원들의 생활이 불안정이었다.

이남에서는 사친회에 보조를 받아서 궁색은 면하였으나 수복지구에서는 사친회 성립이 전혀 불가능한 위치였다. 나는 유지 몇 분과 합의하에 사친회를 조직하였으나 납부성적이 부진하여 개중에는 반대의 태도를 가진 자가 많았다.

그들은 공공연히 절규한다. 왈(曰)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에 부담이 없다는데 무슨 사친회비냐고 회비가 납부되지 않아 교육자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공산치하에서는 교원은 특대(特待)에 배급도 특별하여서 일반민보다는 곤란치 않았다 하여 선생들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조회 때마다 돈 얘기를 독려하고 독촉을 하니 나에게 영광의 별명이 '돈 벌거지 교장' 이라 하였다.

둘째로는 주택난이다.

6 · 25때 회신(灰燼)하였기 주택이 없다. 교장도 선생들도 남의 집에 세를 들어 방 한 두간으로 만족하였다. 교사는 군정시대에 여차 직하면 군막(軍幕)사용으로 어두움 속의 교사였다. 그러나 가교사는 3 · 8선 지방의 가교사보다는 나

은 편 이었다.

셋째 상이군인들의 행패이다.

상이군인이라는 명예를 몸에 걸고 물품의 강매이다. 태극기와 학용품 등의 강매가 심하였다. 이야기인 즉 국군이 진격 시는 재력의 탈취, 정조의 유린 등 적국 패전지에서 하는 불법행동이 신성한 국군을 모독하는 불순분자도 많아 전쟁 초기에는 욕설도 많이 들어 대한민국 국군들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넷째 산에 삼림(森林)들이 없어졌다.

군정시에 적국의 소유물로 여기고 나무를 벌목을 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토색분자(討索分子)도 많아 독산(禿山)이 되었다. 이 지역은 공산주의의 불모시대를 거쳐 군정시대에 민정수복이라는 정신적으로도 혼선이 일고 생활도 거의 입에 풀칠을 할 정도이다. 피난민이 대거 입주하여 생활력이 강한 주민들의 경제력을 좌지(左之)하게 되어 암암리에 반항을 하는 기색도 보였다. 우리는 겨우 봉급과 사친회비보조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니 겨우 걸색(乞色)을 면하였다

❖ **양양 교육에 전력을 다하다.**

첫째 민주사상의 앙양(昂揚)에 힘을 썼다.

둘째 국어 정신함양(精神涵養)

셋째 전 교과 성적 앙양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정하고 교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운영에 힘을 쓰니 실적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도에서 양양학교를 수복지구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그 해 3월 연구발표회를 가졌고, 전 직원이 교육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비교하면 운니지차(雲泥之次)라 하겠다.

이 시기에 나는 1년간 성내리에서 세를 얻어 행랑살이를 하다가 군행리 에서

피난민이 사는 두 칸짜리 초가집을 사서 이주하였다. 밭을 일궈 아침에는 똥지게를 지면서 호박농사를 짓고, 아내는 돼지를 키워 살림에 보탰다.

또 교육청 토지 200평에 콩과 감자를 심어 자족을 도모하고 250여 평의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된 것도 모르고 생활을 유지했다.

〈연구발표를 주관하는 김종극 교장〉

❖ 군수 교육감(郡守 敎育監)과의 마찰

첫째 하루는 군에서 호출이 왔으나 나는 즉시 출두하지 않았다. 이유인즉 수복지구 행정공노표창 이라한다. 나의 불응으로 대노한 군수교육감은 시말서(始末書)를 내라고 한다. 나는 시말이고 무엇이고 군수가 교육자를 호출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이유를 반박하였다.

나는 교육청계통이기에 불응하고, 교육청에서 부르면 당연히 출두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교육감이면 교육과장을 통 할 것이지 하니 교육청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며 이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두 번째는 음력 정월 휴일이다. 나는 음력휴일로 2일간 휴업하고 과세(過歲)하라고 하였다. 군수가 나를 보고 무슨 까닭으로 휴업을 하느냐 하면서 또 시말서를 내라하나 나는 불배(不背)하였다.

이남에서도 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였고, 부모동족(父母同族)이 노는데 학생들이 공부가 되느냐고 하였다. 이 일로 나는 고분고분 하지 않고 군수는 어찌하여 군민을 이틀간이나 휴업을 하고 집에서 다 노는데 학생들이 어찌 공부가 되겠는가 하니 군수가 내무과장을 불러 무른 즉 내무과장이 왈(曰) 군수 명의로

2일간 휴업을 통보하였다고 하니 군수도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다. 나의 이 일로 군수는 교육감으로의 호평을 받지 못했다.

나의 출신지는 양양이나 외지에서 교육생활을 많이 하였기에 친지와 친척들의 거래가 없었기에 객지나 다름없다.

과거의 친구들인 최용달(崔容達), 최용원(崔容遠), 최용대(崔容大), 이겸열(李謙烈), 강○○(姜○○),등 적색분자(赤色分子)들이라 거개(擧皆) 입북(入北)을 하였기에 어 쩔 수 없는 노릇이고, 특히 최용대(崔容大), 김종성(金鍾聲), 김종학(金鍾鶴), 김봉면(金鳳冕)도 잠적(潛跡)을 하니 상대하여 말할 것도 없으니 누가 있어 나를 도와줄 친구들도 없다.

중견인물(中堅人物)들은 내가 타 지역에서 교직생활을 한 관계로 나를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나 역시 외교수완이 부족하여 외빈내허(外賓內虛) 하기에 교제할 형편이 못된다. 하여간 돈으로 교제함이 친밀의 첩경(捷境)인 것이다.

생면부지의 교육자가 많았다. 남에서 입주한 교원은 적고 거개(擧皆)가 군정시대(軍政時代)에 채용한 자들이다. 따지고 보면 인공치하(人共治下)의 종사자와 피난민중 과거 이북에서의 교육종사자들이다.

교육회장(敎育會長)투표에 나는 부회장이 되고 회장은 과거 군정시대의 인물이며 양양이 광역(廣域)한 까닭에 생면부지의 교육자가 많고 민정이양(民政移讓) 입주자가 적은 까닭이다.

3. 6 · 25한국전쟁사와 군정 시 체험수기

■ 전 강현면총무계장 장영철(張英哲, 73세)

❖ 내 고향은 원산 철산리

우리가 산 곳은 원산시내 철산리 마을 이였다. 때는 겨울철이다. 방안은 난방 장치가 잘 안되어서 인지 땔감이 부족해서 인지는 몰라도 몹시 춥게 지냈던 것으로 생각난다. 우리 집 옆에는 소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목탄 자동차에 살림을 실고 아침 일찍 원산을 출발하여 금화로 이동하는데 밤이 깊어서야 금화에 도착 하였다. 가는 동안 몇 차례 숯을 사서 차량운행 연료로 사용하였고 몇 번이고 차량이 고장이 나서 가는 도중에 고생이 많았다. 그 시절에는 목탄으로 운행하는 목탄차가 있었고 그나마도 극히 적은 대수에 차량 고장이 자주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처음 인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우리 집에는 가끔 손님이 찾아왔다 알고 보니 나의 여섯째 할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는 4촌 형제지간인 장성준으로 당시 김일성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금화에서의 생활이 2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원산으로 이사 온다. 그때는 경원선 열차를 이용 하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원산 무역소 소장으로 우리 집은 원산시 충성리에 과거 일본인이 살던 일식 주택으로 다다미방이었다. 일본식 다다미방은 두껍고 단단한 매트리스식 방바닥 자리로 바닥의 찬기를 없애고 위풍은 작은 난로로 추운겨울을 지내는 방법 이였다.

집에서 북쪽으로 약 200m에는 송도 해수욕장으로 가는 언덕길에는 오래된 벚 나무 가로수가 봄이면 벚꽃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그 옆에 도당 청사가 있었고 원산에서는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근무하는 관청이었다. 우리 집에서 서쪽으로 약 200m거리에는 원산에서는 가장 큰 적십자 병원이 있었고 주변 도로는 아스콘 포장도로로 원산 중심가 같다. 나는 4촌 석준 형이 양양에서 원산에와 공업전문학교에 다니는데 기숙사에 놀러가기도 하고 송도 해수욕장에도 가본 적이 있다.

나는 원산 13인민학교 2학년 양자 누나는 4학년일 것이다.

가끔씩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우리 집에 모여서 공부 하는 것을 보았다. 언

젠가는 5-6명 정도의 학생이 우리 집에 모여서 자습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동료 학생1명을 앞에 놓고 다른 학생들이 지난날의 잘못한 행위와 학교 소년단의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하여 엄하게 질책하며 공세를 하여 그 학생은 질책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학생 자아비판인 것이다.

당시 북한은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 교육이 철저했고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자율적으로 고취시켰고 인민 학교에서는 소년단이라는 조직에 학교는 물론 사상적 교육이 철저하였다.

이에 불응하는 이탈자에 대해서는 자아비판이라는 공개비판으로 지금 말하는 왕따를 시킨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고 집단 체제화하고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에 불편 불만이 표현될 수가 없다.

모든 생물체는 먹이를 주는 자에게는 복종하게 마련이다. 당시 북한은 모든 일을 집단체제화 하고 식량은 국가가 주는 배급제도와 사상과 성분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조직과 충성심을 강화하고 도둑 폭력범죄 사고 같은 기사는 잘 알리지 않는다.

❖ 전쟁의 발발

1950년 경인년 6월은 가뭄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남한을 안심 시켰다.

북한 땅의 소련군을 철수 시키고 남한의 미군을 철수 시키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자주 평화를 부르짖으며 비밀리에 전쟁 준비를 하였다.

남쪽에서는 북한의 전쟁준비 가능성의 정보를 일부수집 했으나 짧은 기간 비상체제를 하였을 뿐 군부에서는 만일 북한이 남침하면 국군은 총공세로 북침하여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 대 전과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며

호언장담하여 북한이 비웃음을 하게 하였다. 비상이 해제되고 군인은 태평하게 장병들을 모내기 휴가 보내고 장교들은 토요일 외출이 많았다.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이하 군 고위 간부들은 6월 24일 저녁에 육군회관 낙성식 파티로 술에 취해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전쟁발발 비상벨에 잠이 깨어 났을 정도였다.

북쪽에서는 인민의 사상교육 결속과 훈련된 군인으로 남침을 계획하고, 북한군은 탱크 240여대 전투기 170여대 병력 20여만으로 '폭풍' 이라는 공격명령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지역에서 분산하여 38°선 전역에 전쟁선전 포고도 없이 남침하였다. 남쪽에는 탱크, 전투기도 전무하고 훈련용 연습기 20여대만 있을 뿐 무기력한 군인과 정치는 민주정권 수립으로 계파간의 사상과 정치사욕 갈등으로 남한 혼자 남침을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남한 땅을 빼앗기는 불미스러운 당시의 현실이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80여일 만에 낙동강 하구를 경계로 대구, 포항, 부산을 제외하고는 남한 땅 전부를 북한이 점령하였고 그나마도 유엔의 도움으로 방어선을 지탱했으며,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이 비밀리에 인천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으로 맞이하였다.

전쟁이 일어나도 원산 시내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민들의 모습이나 시가지의 거리에서는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저 거리의 게시판에 한국 지도를 붙여놓고 시민들이 모여서 구경할 따름이었다. 지도에는 전쟁 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며칠 후에는 대전까지 또 몇일후에는 전주 광주로 하더니 낙동강까지 화살 표시로 전쟁의 성과만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은 매일같이 남한이 거의 점령되어 곧 통일이 될 것이라면서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만 보았다. 나는 그때 9살 이였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른다.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술렁이던 시민들이 두세 달 후에는 전승 지도도 없어지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사라지는 것

이다. 마침내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9월 초경 인 것 같다.

남쪽 비행기가 원산 상공을 자주 날면서 원산시에 대한 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어른들은 사전에 알았겠지만 나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유엔군이 한국을 지원하여 미국 비행기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9월15일 인천상륙과 9월28일 서울을 탄환하고 북진하는 것이었다. 유엔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한 한국의 위기를 돕기 위하여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 맥아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각국이(16개국) 한국전에 전투병인 지상군 해군 공군 등을 파병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나라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필리핀, 태국, 그리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들이며, 또 5개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의 나라들이 의료품을 지원하므로 21개국이 우리를 도왔다.

1950년 10월 1일 한국 3사단 백골부대의 선봉으로 동해안 기사문리 38°선을 제일먼저 탄환으로 전 지역에서 북진을 계속 하였다. 원산 시내의 폭격은 하루에도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주요 건물과 공장에 매일같이 화염이 싸이게 하였다. 특히 원산시내의 석유 화학 공장에는 계속된 폭격으로 일주일간이나 불에 타고 있었다. 시민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폭격을 피해 산으로 피신하여야 했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폭격이 더 심했다. 어느 날 인가 B29폭격기와 전투기가 시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도 몇 개의 포탄이 떨어져 그 위력이 집을 흔들고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창문이 포탄위력에 깨어지며 집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연일 계속되는 공습에 하는 수 없이 원산에서 10여리 떨어진 농촌 마을인 당하리라는 곳에 피난을 갔다.

양지쪽 산 아래 외딸게 몇 집 있는 곳에서 방을 얻으려 하였으나 피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방을 얻지 못하고 주인집의 승낙을 얻어 집 처마 옆에 널빤지 나무로 잠잘 수 있게 만들고 그곳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아버지는 10여리나 되는 원산시내로 걸어서 출퇴근 하시고 어머니는 가끔씩 원산에 가서 식량을 운반해 와서 식생활을 이어 간다. 누나와 나는 당분간이나마 산 넘어 이웃 마을인 와우리 인민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족의 전쟁으로 인한 최초의 피난살이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시발점이 될 줄이야 누가 알리요. 이곳은 시골이므로 폭격기는 자주 날아도 폭격은 하지 않았다. 수없이 계속되는 공습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원산을 점령할 시기가 된 것이다.

❖ "국제시장" 영화를 보며 과거를 회상

〈1953.1.10 국제시장 화재현장 모습〉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일찍 집에 오시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 엄청난 불행 이였다. 아버지는 오늘 밤 중에 인민군으로 입대 하게 되어 일찍 집에 온 것이다. 불과 몇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인민군에 입대 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이는 원산시가 곧 유엔군에게 점령당하는 때가 온 징조였다.

급하게 모집하는 인민군 징집이다. 아버지는 34세이다. 피난살이 중에 어린 자식 넷을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우리에 대한 책임도 없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없다.

이날 밤 어린 자식들을 잠재워 놓고 부자간의 인사도 없다. 이 밤중에 아버지를 멀리 배웅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슬플 뿐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운명의 날이 아닌가. 어머니는 혼자서 많이 울었을 것이다. 전쟁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에 대해 어머니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1950년 9월 27일(음력 8월 16일) 맑은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생이별하는 슬픈 부부의 두 얼굴을 비춰 주었을 것이다. 서로가 반대방향으로 걸어야만하고 점점 멀어 저 가는 두 남녀의 걸어가는 모습은 밝은 달빛 이였건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심장이 요동치며 아주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우리 엄마 아빠의 그날 밤, 서로 다른 운명의 날, 이튿 날 아침 어머니는 우리들과 같이 아침상을 차려 놓고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는 철부지였지만 슬프게 바라보았다.

그 후 어머니는 우리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굳건하여 점점 강해지셨다. 우리는 집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다. 식량도 아버지 때 남겨둔 것 얼마 안 될 것이다. 타향에는 도움 받을 사람도 별로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피우다가 남겨둔 담배를 거리에서 팔아 보았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가시고 13일후 1950년 10월 10일(음 8월 29일) 국군3사단이 먼저 원산지역을 점령하였다. 전쟁은 후퇴하면 패잔병이요 점령하면 개선장군인 것이다.

이곳 시골에도 많은 국군이 들어오고 있었다. 점령하기 전날 심한 폭격이 있었을 뿐 점령 당시에는 이곳 마을에서 전투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인민군 패잔병 2명이 산에 숨어 있다가 국군을 환영하는 민간인에게 총을 쏘아 민간인 몇 명이 죽고 인민군은 국군의 사격에 의하여 사살 되었다.

인민군이 집 뒤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숨겼다는 오해를 받아 이지역의 젊은 남자 3명이 국군에 의해 총 한방에 3명이 한꺼번에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 차후에 국군 장교가 주민들에게 사과는 하였지만 전쟁 중에 사람의 생명은 천하기 한이 없다.

원산시내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하고부터는 비행기 공습이 없어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였다. 인민군은 전쟁초기 남침 할 때만 전투기를 사용하였고 유엔군이 지원하고부터는 제공권을 잃었다.

당하리 피난살이 거의 두 달이 되었을까 날씨는 점점 추워졌다. 우리는 원산으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나 있을 곳이 없어 고향의 고모라고 하는 할머니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

〈1950.10.1 38°선을 돌파하는 국군〉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일 38° 선을 돌파한 후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26일 평북 초산의 압록강을 바라보는 전과를 올렸다. 10월29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군의 사기를 올렸으나 북한군을 지원하는 중공군이 갑작스럽게 밀려와 유엔군은 겨울철 산악의 추위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많은 손실을 보며 후퇴가 계속된다.

약 2개월이 지났을까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원산을 후퇴 한다. 유엔군은 원산항을 이용하여 군함을 타고 후방으로 이동한다. 군인은 항시 폐전으로 후퇴한다는 말을 잘 안한다. 작전상 후퇴라고 한다. 원산 시내에는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하였다. 원산을 후퇴하여 인민군과 중공군이 밀려오면 원자탄을 사용한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원산 시민들은 남쪽으로 피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

흥남에도 중공군의 전세에 몰려 주둔한 국군과 유엔군이 10만여 명, 남으로 피신하기 위해 모여든 피난민 9만여 명 전투장비 차량 1만 7천여 대 수많은 각종전투물자들을 1950년 12월 12일 유엔군의 흥남 철수 명령 후 130여척의 군함과 수송선을 통원하여 정원을 수십 배 초과하면서 거제도까지 12월 24일 완전 철수함으로서 6 · 25전쟁이 나은 인간 대탈출의 성공 이였다.

군함을 타고 남하한 피난민은 부산의 국제시장 및 자갈치 시장이 피난민의 생활 터가 되였고 걸어서 남하한 피난민은 동해안일대와 특히 속초의 청호동에 거주하며 함경도 아바이 마을 촌을 이루었다. 이때를 38°선을 지키지 못하고 서울을 두 번째로 후퇴한 1951년 1월 4일을 일사후퇴라고 말한다.

나는 2015년 1월 5일 속초 극장에 가서 처와 같이 영화 '국제시장' 을 과거를 회상하며 관람하였다. 이 영화는 나의 과거와 너무나도 유사하였다.

나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 손을 잡고 어린나이에 형제들과 같이 12월 11일 걸어서 원산을 출발하여 양양까지 15일간의 피난길로 어려운 여건 속에 오늘에 이루면서 1남 3여의 장남으로 살아왔고, 영화 국제시장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이별하고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같이 군함에 매달려 3일간의 항해로 부산에 도착하여 국제시장에서 가난을 극복하며 장남으로서 가족을 지키며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눈물겨운 전쟁사의 드라마가 감회가 깊었다.

❖ 도루묵 알을 씹어가며 적은리에 도착

때는 12월 11일(음력 11월 3일)겨울이어서 날씨가 추웠다. 우리 가족은 남쪽 고향으로의 피난길에 나섰다. 어머니는 등에 메는 가방에 옷 몇 벌과 쌀과 식량을 지고 누나는 조그마한 솥 냄비 그릇을 머리에 이고 나는 이불을 지고 동생 선자는 걸어서 동생 성연이는 손잡고 걷다가 또는 업다가 하면서 고향까지 가야한다고 양양 땅 적은리를 향하여 피난길에 나섰다.

원산을 뒤로하고 수많은 피난 인파속에서 떠나는 과정에 남아있는 일부 시민들은 폐허의 원산 시내에서 양곡창고 탈취와 빈집털이 갈취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고 온 우리 집 재산도 다 가져갔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33세, 누나는 11세, 나는 9살, 선자동생은 8살, 성연동생은 5살, 때는 겨울철 가야할 양양까지는 500리 길이다.

죽고 죽이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때로는 인민군도 만나고 때로는 국군도

만나면서 고향으로 가야만 산다는 신념 하나로 걸어야만 하였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과 때죽음을 당한 시체도 보면서 걸었다. 처음에는 피난민들이 도로를 가득 누비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잘 걷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이 외로이 걸어야만 하였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는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위해 사냥하는 것과 같은 한 민족 인간끼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남하하는 피난길에 가져오던 아버지의 옷을 군인에게 빼앗기고 식량이 떨어지면 옷과 바꾸어 식량을 충당하였다. 많이 가는 날에는 5십리, 날씨가 춥거나 우리들이 잘 걷지 못하는 날에는 3십리길, 때로는 방에서 자고 때로는 부엌에서 자면서 원산을 출발하여 안변과 통천을 거쳐 고성을 지나 금강산을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 간성을 지나고 대포를 지나 동해안 길을 따라 도루묵 알을 씹어가면서 비틀 걸음으로 고향땅인 적은리에 도착한 것이 15일이 걸렸다.

잘 걷는 사람이면 5일 만에 오는 길을 보름동안 추위에 걸었다. 원산에서 양양까지 걸어서 오는 동안 우리가족을 잠자게 하여주신 신세진 분들 너무나 고맙고 다들 잘살고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 적은리 에서의 수난

여기 강현면 적은리는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친척 가족도 있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큰댁이 살고 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사촌 형제도 있어서 오랜만의 만남에 반가웠으나 우리 가족이 아버지도 없이 가진 것 없이 빈 몸으로 고향에 온 것은 큰댁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큰 부담 이였다. 어차피 우리는 우선 큰댁에 있어야만 하였다. 그런데 또 어이없는 불행이 닥쳐왔다.

고향에 와서 큰댁에 있은 지 10여일 정도 있었는데 계속된 전쟁은 중공군과 인민군의 강세로 국군은 계속된 후퇴로 이곳 고향에도 후퇴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국군이 후퇴 하면서 개인 집에 불을 지르고 마을에다 총질을 하는 것

이다.

가족들은 마을 앞 도랑거리에 피신을 하며 화염에 휩싸인 검은 연기와 함께 집들이 타는 모습만 바라볼 뿐이었고 적은국민학교도 이때 타 버린 것이다.

40여 호가 넘는 집중에서 단 3채만 불에 안탔으며 태양은 마을이 불타는 화염에 반사되어 벌겋게 보이는 것이었다. 엄청난 재산의 무자비한 손실이다.

이때가 1951년 1월경이다. 국군이 두 번째로 38°선을 사수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후퇴 하는데 이때를 1 · 4후퇴라고 한다.

전쟁 중에 밀고 밀리는 접전 지역에서는 선량한 양민이 억울하게 죽어 가는 사례가 많다.

점령한 군인들이 점령지의 주민에 대하여 불순 세력과 사상 점검 등 적군에 유리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 못된 병사들이 저지르는 행동이다. 그래서 접전지역의 젊은이는 그 마을을 피하였다가 조용할 때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때 돌아오지 못하면 가족과 이별 또는 이산이 된다. 사실상 당시 무식한 일반 주민들은 사상에 관심이 없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비극적이고 두려운 전쟁만 없었으면 하는 것이 그때 그들의 바람 이었다.

전쟁은 전쟁만의 고통 그것이 아니다. 때로는 집을 잃고 때로는 재산을 잃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난과 질병과 불량한 환경이 전쟁과 같이 간다. 나도 장질부사라는 전염병에 걸려 나른하고 떨리고 오랜 기간 병고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회복되어 살아났다.

마을을 불 살리고 국군이 후퇴한 후 적은리는 또 북한군 정치가 되었다. 큰댁과 우리는 잿더미가 된 큰댁 집터를 정리하고 그곳에 움막집을 짓고 큰댁 5식구 우리5식구 하여 10명이 불편한 한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인민군들은 또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군이 있을 때 마을 지도자와 그 일에 협조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이 마을 창고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한다면서 그들을 처벌하자고 주민의 강

제 동의를 받아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을 마구 때리게 하여 한 사람이 맞아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주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함은 물론 오늘날까지 이 마을에 가장 치욕적인 오명을 남게 하였다.

운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귀중한 목숨이 순식간에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니 이것이 사람마다 다른 운명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을주민이 맞아죽는 모습을 보는 현실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감히 짐작할만한 생활이 아니던가!

국군과 유엔군은 두 번째로 다시 북진이 시작되었다. 인민군 치하에서는 미군 전투기의 공습이 심하여 집집마다 땅속에 방공호 1개씩을 가지고 있다. 남쪽 비행기만 뜨면 재빨리 땅굴 방공호 속에 피신하는 생활이 당시는 습관화 되어 있었다.

1951년 봄이다. 이곳에 또 다시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진격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당시 큰아버지는 41세 인민재판을 보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다. 또 무슨 불운이 생길까 염려하여 잠시 피신하였다가 국군이 돌아와 마을이 평온해지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시며 북쪽으로 떠나가신 후 오늘날까지 되돌아오지 못하므로 큰댁과 우리 두 가족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슬하에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전쟁은 북쪽 지금의 휴전선 지역에서 소강상태로 계속 되었고 후방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편이였다. 그러나 움집에서의 불편함은 여전했지만 불안감은 차츰 나아졌다. 농사일을 준비해야 할 봄철이 다가 왔다. 우리는 큰아버지도 없는 큰댁에 계속 있을 수 없었다. 농사 경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식량도 별로 없다. 원산에서 온지 4개월여 된 것 같다.

❖ 송현리 정자골 외가에서의 더부살이

어머니는 염치를 불구하고 식구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외갓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외가는 옛날 월리에서 살다가 손양면 송현리 정자골에 살고 있으며 농지도 많고 농사를 많이 지어 잘 사는 편이다. 외갓집도 집이 불에 타고 깨진 기와와 흙을 석어 담처럼 쌓아서 집을 만들고 살고 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두 분하여 다섯 식구다. 여기에 우리 식구까지 하여 10식구다 아무리 가까운 딸과 외손자들이라고 하여도 좋을 리가 없으련만 외할아버지는 절대 내색하지 않고 우리를 거두어 주셨다.

배 골리지 않게 먹이려고 가끔씩 밥그릇을 확인 하면서 많이 먹어라. 밥을 더 많이 지어라 하면서 무척이나 신경 쓰는 바람에 외할머니와 다투기도 하였다. 외할머니도 고마운 분이다. 배다른 딸 식구 챙기느라 고생도 하고 많이 베풀어 주셨다. 밥도 외가 식구보다 우리 식구가 더 많이 먹었다.

옛날에 가난한집 자식은 허기 끼가 있어 개걸을 더 쓰고 부잣집 자식은 몸에 기름 끼가 있어 밥을 적게 먹는다더니 사실인 것 같았다.

나는 외삼촌과 같은 나이로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 밥은 많이 담아도 다 먹는데 외삼촌은 나보다 적게 담아도 조금씩 남기곤 한다. 나는 어린 나이지만 얻어먹는 입장에서 주인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이 무척이나 미안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난다.

나뿐이 아니라 우리식구 모두가 그러 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고기 장사도 가끔 다녔다. 어느덧 외가에서 1년이 지나 새로운 봄이 왔다.

❖ 새로운 출발과 전쟁의 종결

어머니는 우리 식구가 외가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독립해서 살 계획을 결심했다. 경험이 없는 농사를 지어야 하나 장사를 하여야 하나 망설이다가 농사짓기를 결심하고 적은리에 토막집을 짓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논 1,000평과 북에

들어간 친척 밭 몇 백 평을 개간 경작 하면서 살아갈 생각이다. 나를 외가에서 학교 다니게 남겨놓고 누나와 동생들을 데리고 적은리로 농사지으러 갔다.

1952년 봄이다. 북쪽에서는 계속 전쟁 중이나 소강상태의 전투다. 우선 큰 큰 댁의 불탄 빈터에 집을 만들기 위하여 인근에서 헐어내는 헌집나무를 구하고 부족한 나무는 산에 나무를 베어서 약 5평정도의 부엌과 방을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게 되었다. 이때 적은리는 거의가 움막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1년 반을 친척집에서 신세지고 살았는데 이제 작으나마 내 집 장만을 하고 농사일도 시작 하였다.

우리 논 1,000평은 전쟁 중에 휴경지가 되어서 농사일을 처음 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힘들었다. 외가 할아버지가 소와 인부를 보내어 논도 갈아주고 모심는 일도 도와주고 하여 겨우 논에 모를 심었다. 비료도 없고 거름도 없지만 묵은 논이어서 벼가 잘 자란다.

당시는 모두가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특히 기반이 없는 우리에게는 거택 구호라는 가난한 자의 정부 구호 대상이었다.

어머니와 양자 누나는 정부에서 주는 밀, 옥수수가루의 구호 배급과 쑥 나물과 죽을 끓여 먹어가면서 논에 김매기를 하였는데 잘 먹지 못하고 허리 굽혀 김을 매니 얼굴이 붓고 일어서서 하늘을 보면 어지러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는 다들 어려운 생활 이였지만 모든 일은 서로가 협조하고 이웃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인심은 자랑스러운 삶이었다,

아무튼 그해 가을에는 경작한 농사가 추수가 되어 위쪽 방에 벼 가마니가 쌓이게 되니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첫 번째의 수확이고 1952년이었다.

지난 농사기간 동안에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장 고생이 많았고 어렵게 지내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외아들과 장남이라는 이유로 외가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손양면 학포 마을 회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외삼촌과 지금도 생각나는 당시의

친구들과 군인 장교부인인 여자 담임선생의 가르침, 그 후 손양국민학교 운동장 나무 그늘에서 일 년 간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서 농사지어 수확이 끝난 후에 적은리에 돌아와 이때부터 온 식구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어머니와 누나의 고생에 너무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휴전협정 논의모습 1951.10.11〉

1953년 3월 5일 소련 스탈린의 사망과 오랜 전쟁에 지친 유엔군과 북한군 진영은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 휴전협정을 재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국민을 설득 하였으나 우리대통령의 휴전반대와 한국국민의 휴전반대 북진통일 대모와 연일 대중 집회가 계속 되였다,

유엔은 휴전을 예고하고 북한의 유엔군 포로와 남한의 북한군 포로교환을 한국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함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분노하여 미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1953년 6월 18일 24시를 기하여 부산, 광주, 논산, 마산, 영천, 부평, 대구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2만7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을 유엔 몰래 석방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엄청난 사태의 한국 대통령의 반발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미국 국무차관보 로버트슨이 방한했고 여러 차례 한국과 미국의 협상 끝에 1953년7월12일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동의하고 휴전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953년 7월 27일이다. 판문점에서는 전쟁 후 159차례나 남과 북이 회담 끝에 이날 22시를 기하여 휴전협정 조약이 성립되어 휴전이 되었다.

막판 전쟁은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쌍방이 오랜 기간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며 주로 불모고지, 백마고지, 저격능선, 수도고지, 백석산, 피의능선, 가칠봉 351

고지 등에서 남과 북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은 3년 1개월 2일(1129일)만에 민족 통일도 없고 승패도 없이 쌍방이 많은 손실을 보면서 휴전으로 종결 되었다.

그 후 국군 공병대가 적은국민학교도 지어주어 나는 금풍리 개인집 사랑방에서 공부하다가 적은국민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누나도 늦게나마 학교에 다녀 적은국교 1회로 졸업하고 나는 2회 졸업생이다. 1954년 9월에 내가 국민학교 5학년 13세 때이다.

그해 비가 억수로 많이 와서 영동지방 일대는 대 홍수로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더욱이 전쟁기간에 나무를 가꾸지 않고 마구 베어내어 집을 짓거나 화목으로 벌채되어 모든 산들이 벌거벗어 흙만 남아 비만 오면 산 흙이 흘러내려 도랑에 쌓여 논둑과 제방이 터지기 일쑤이다. 우리는 운이 없게도 우리 논과 임차 논이 제방이 터져 수확을 앞둔 벼가 흙에 매몰되어 50%이상의 수확이 감소됨은 물론 유실된 제방과 매몰된 농지를 복구 하는데 가을부터 겨울까지 너무나 힘이 들었다. 당시에는 국가에서 복구 지원은 없었고 소와 지게, 리어카, 삽 등 재래식으로 오랜 기간 복구 작업 이였다.

이때 홍수를 갑오년 홍수 또는 9 · 13홍수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우리 집 경제는 차츰 나아지기 시작하여 내가 중학교 갈 때와 고등학교 입학 할 때면 주위 사람들의 권유와 어머니께서 어려운 생활에서도 어렵게 결정하여 한 달에 쌀 1말 값의 학비를 내면서 우리보다 형편이 좋고 부모가 다 있는 집 자녀도 학교를 안 보내는데 어머니의 강한 교육열 관계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였다.

우리 형편에 경제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소비를 절약하고 근면 성실하게 노력한 원인도 있지만 외가의 도움이 컸었다.

그간에 외가에서 천 평이 넘는 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주셔서 송아지가 자라서 농사일을 하게하고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

지를 키워 팔아서 저축한 결과다.

1952년 농사를 시작하여 30여년이 지난 1980년 이후에는 답 4,500평 전 1,000여평을 자경하여 적은리 마을에서 상위권 경작농이 되었다.

❖ 오늘이 있기 까지

나는 1942년 일본 식민지 시절에 태어났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광복을 맞이했으나 38°선 이라는 분단국으로 이곳 북쪽은 조선의 정치 하에서 살아야 했었고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과 가난의 고통을 오랫동안 겪어야만 하였다. 3년이 넘는 전쟁의 결과는 남과 북이 폐허의 땅과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또 분단의 휴전선을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광복 후 분단의 세월이 70년이 지났고 한국전쟁의 발발이 65년이 흘러갔다.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이 성립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되면서 그 후유증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닌 대립의 나라가 되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 31명의 북한공비들이 서울 청와대습격, 1968년 10월 30일~11월 2일 120명의 무장공비의 삼척 울진 침투사건, 1976년 8월 18일 휴전선 판문점부근의 미루나무제거 도끼만행 사건, 1983년 10월 11일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폭파로 대통령 수행원 17명 사망사건, 2010년 3월 26일 해군 천안 함 폭파와 당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휴전선의 후유증으로 도발하는 세계유일의 분단의 비극이 이어가고 있는 나라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한국전 바로 6 · 25전쟁을 잘 모르고 또 잊혀져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지금세대의 부모님들이 겪은 비극의 역사에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꼭 알아야한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바로 반대쪽 우리와 접하고 있는 인근에서 전쟁을 도발한 자가 있다는 사실이 낯선 얼굴이 아니다.

만일 우리의 동맹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었다면 대한민국도 자유도 민주도 존재하지 못하고 3대 세습독제와 가난한 북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꼭 한번 생각해 보자.

4. 6 · 25한국전쟁 및 군정 체험수기

■ 전 양양군재향군인회회장 최지훈(崔祉勳, 81세)

❖ 1950년 4월 인민군들이 소련제 탱크와 말이 대포를 끌고 집결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나는 양양고급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당시 양양은 38°선 이북으로 인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치하에 있었으며, 인민군 3대대와 4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해 4월부터 양양에 소련제 탱크와 말이 끄는 대포를 앞세우고 인민군들이 속속들이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6월 25일 새벽, 여명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에서는 남침을 강행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아무런 대비가 없던 남한정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인민군은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남한 전역을 완전 함락할 기세였을 때였다.

❖ 1950년 추석 무렵 광업소, 현북중, 양양중학교를 미군기가 포격을 했다.

9월 중순경, 함종악 선생님[수복 후 양양국민학교장 역임]이 수업이 끝난 보도시간에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미군과 국방군이 인천에 상륙을 하는 것을 우리 인민군 전사들이 모두 격퇴시켰다는 것이다.

며칠 동안이나 그 말씀을 반복하였고 학생들도 수군 수군대던 그 이야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소식을 우회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다.

며칠 뒤 B29 폭격기가 양양광업소 뒷산에 폭탄 15발을 투하하였고, 9월 26일(음 8월 15일) 추석이 되었는데, 오전 수업 중에 현북중학교를 폭격하여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관내 학교들은 모두 휴교령이 내려졌다.

휴교 중에 서면 수리의 외가에 가 있을 때 10월 1일 국군에 의해 양양이 수복되었으므로 10월 2일 집에 내려와 학교에 가 보았더니 2층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중학교는 소화탄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있었다.

❖ **시내는 포사격권내여서 남대천을 건너 월리까지 피란지시가 내려졌다.**

양양을 수복한 국군은 거리에 넘쳐났고 헌병들이 오고가는 군용트럭들을 교통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생전 처음으로 흑인을 직접 보았다. 인공치하에 있던 양양이 수복되자 10월 10일경, 학생들도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헌병들과 함께 월남하였다가 돌아온 서북청년단을 도와 주민질서 계몽활동도 하였다.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고 하루아침에 전방에서 후퇴하여 다시 양양에 모이게 되었다.

12월 27일경, 수도사단 북진 때 헌병을 따라갔던 정병화가 나를 찾아왔다. 전황을 물었더니 국군이 몰리고 있으니 피난 갈 준비를 하라고 말해주었다. 며칠 후 시내는 포사격권내에 있으니 남대천을 건너 적어도 월리까지만 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우리 식구는 쌀과 고추장 이불 등을 우차에 싣고서 30일, 월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남쪽으로 피난하라는 지시에 따라 왕도리, 여운포리를 지나 현남 남애리에 도착했는데, 북쪽하늘을 쳐다보니 검은 연기가 시커멓게 솟아올랐다. 뒤에 오는 피난민들에게 물으니 군인들이 민가를 모두 태워버렸다고 하는데 그

때가 1951년 1월 2일경으로 기억된다.

❖ **부친 대신 내가 학생모를 쓰고 우차를 끌었다.**

그 후 우리가족은 강릉, 삼척을 가다 쉬어가며 20여일을 우차를 끌고 호산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얼마 지나 호산국민학교에 주둔해있던 군인들이 찾아와 우차로 산에 나무를 실으러 가자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전방에 부역으로 끌려갈 염려가 있어 내가 대신 학생모를 쓰고 우차를 끌었다.

군인들의 취사용 화목을 운반해준 덕에 국군이 밥과 부식 때로는 쌀도 주어 우리 식구는 그나마 식량 걱정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38°선 이북 주민들은 남한 돈 한 푼 없이 피난길을 떠났으므로 먹고 살 길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문전걸식으로 살아야했다.

그 후 3월 말경, 양양의 북쪽까지 국군이 진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오기위해 호산을 출발하여 4월경, 강릉에 도착하여 8 · 15해방 후 월남하여 강릉에 살던 문재호씨 댁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헌병대에 근무하는 정병화가 날 찾아왔다.

❖ **밀기울에 산나물을 섞어먹다가 풀독에 몸이 부어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친구의 얘기는 민간인은 38°선 이북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것이고, 양양은 모두 타버렸으며 우리 집도 잿더미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날 나는 친구 정병화가 사주는 자장면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5월 중순경, 38°선 통행이 풀려 집에 돌아와

〈당시 방역활동중인 모습〉

보니 정말 우리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모든 생활은 곤궁하기 그지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장티푸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대민진료와 예방접종 등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전후방 교대로 사단병력이 주둔함으로 이곳 주민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 초근목피로 살아가야할 형편이었으며, 밀기울에 산나물을 섞어 먹다 풀독이 올라 얼굴과 몸이 부어오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복지구의 이곳 주민들에게는 혹독한 시기였다.

❖ 최전방 GOP고지까지 올라가 위문공연을 하면서 러시아 댄스를 추었다.

나는 거처를 마련하려고 아버지와 토담집을 짓고 있던 어느 날, 군 한청(한국청년단)에 근무하는 정병화가 감찰부장 김여수 명의로 된 호출장을 갖고 날 찾아왔다. 나는 정병화와 함께 당시 불에 타지 않았던 마을인 손양면 학포리 박증길 씨 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던 군 한청에 갔더니, 전쟁 전 고급중학교의 김명환 국어선생님이 계셨다.

당시 군 한청단장은 최찬오, 부단장이 최성호, 감찰부장이 김여수, 선전부장은 김명환 이었는데 김명환 선생님께서는 6 · 25사변 1주년을 기념해서 제1군단의 지시로 위문단을 조직하는데 협조하라는 말이었다.

1947년 초급중학교 2학년시절이던 나는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사용하던 군표 화폐[戰時나 占領地에서 군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긴급통화]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로 교환하면서 주민계몽활동을 위해 중학교에 연예부를 만들었을 때, 댄스부에 들어가 김운봉 선생님께 소련병사 춤을 배웠다.

후일 김운봉선생님은 서북청년단 조직사건으로 고재철, 안재성, 김주철 등과 수감되기도 했으며, 그때 음악부 지도는 안진혁 일명 안딩글 선생이었다.

위문단원은 약 30여명정도로 나와 김기선은 여학생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러시아 댄스를 추었다. 우리는 군악대와 함께 제1군단 사령부에서 공연을 시작하여 전방, 수도사단, 3사단, 11사단 등 최전방 GOP [일반전초 : 남방한계선 철책선의 소대단위초소] 고지에도 올라가 위문했으며, 8월 15일 경 공연을 끝냈다.

❖ 양양남대천에서 황어를 잡으려고 깡을 터지다 치안대원에게 얻어맞았다.

1952년 봄, 양양 남대천에 황어가 많이 올라오자 친구들과 함께 TNT[속칭 깡이라고 했음]를 터뜨려 고기잡이를 하던 중, 치안대원에게 붙잡혀 같이 잡던 친구들 모두 무척 많이 얻어맞았다. 악질적으로 우리를 때리던 치안대원에 대한 복수심이 발동한 나는 그 후에 8240 미 극동사령부 스케논부대[속칭 낙하산부대]에 입대하였다.

매일 고된 낙하산훈련과 해상침투 등 유격훈련을 받던 어느 날 아버지가 면회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화폐교환[1953년 2월 조선은행권 '원' 에서 한국은행권 '환' 으로 100:1로 인당 2,000환으로 한정 교환한 제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 생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나는 그 무렵 적지로 출동 대기 중 이였으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아버지는 그냥 집으로 가셨다.

❖ 미 극동사령부 낙하산부대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군에 입대했다.

그 후에도 힘든 훈련을 계속 받았고 전선으로 출동할 날만을 기다렸을 무렵, 1953년 7월 27일 갑자기 휴전이 됐다는 것이었다. 휴전 후 8240 예하부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부대에서 양양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 있어 찾아봤더니 최선문과 김남한 외 여러 친구들이 왔었다.

그해 1953년 4월, 양양고등학교가 신설되어 양양에서 속초고등학교를 다니던 정범화, 김남한, 신정섭, 김명호, 이우균, 이도형, 안학선 등이 양양으로 전학하

여 최선문, 이구행, 정병화, 장성온 등과 함께 양양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를 친구들로부터 듣고 나는 그들을 너무 부러워했다.

1953년 12월 중순경, 부대에서 2박 3일의 외박을 허가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의 만류로 귀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1954년에 양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57년 양양고등학교 3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였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특수부대생활을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1957년 9월, 다시 한국군에 입대하여 1960년 5월 만기제대로 병역을 필했으며, 6 · 25 참전과 함께 이중의 군 생활을 하였다.

5. 나의 6 · 25한국전쟁 참전수기

■ 전 무공수훈자회 양양군지회장 최홍제(崔弘濟, 87세)

❖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에 자진 입대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우리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38°선 이북은 쏘련군이 진주 점령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진주 점령하여 혼미를 거듭하던 중 쏘련군은 조선은 자치능력이 없다며 신탁통치를 들고 나오고 남한은 통일조선을 주장, 또 다시 남북이 갈등이 심화되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 덕수궁에서 수차 개최되었지만 서로 의견대립 결열 남한의 좌익 세력들은 신탁통치를 찬성 우파세력은 이를 반대 서로 대립 속에 연일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이곳 대전역 광장에서 좌익계의 찬탁 집회가 대대적으로 거행 되던 날 공주에서 살던 나는 학교 선후배들로 구성된 우익세력들은 곤봉으로 무장 타 지역에서 모여든 우익단체와 합류하여 곤봉을 휘두르며 집회를 완전 봉쇄 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우리일행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국가의 앞날이 공산화가 의심된다며 대전 비행장에서 창설된 국군의모체인 국방경비대 제2연대에 자진입대하며 군 생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도처에서 좌익 불순분자들은 파업 폭동을 일으켜 처음으로 김천 폭동 진압을 마치고 수색에서 창설된 특수부대인 수색학교에 입교, 교관은 미군이 총검술 대검던지기 폭약 연결법 기타 유격전법 등을 배우고 그때 대원들은 이북에서 월남한 서북청년 출신들로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왕성 하였고 육본 직할부대로 서울 유격대라고 명명하였다.

❖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 전투에 참가하다.

38°선 접경지에서는 연일 북한군이 침입 교전상태였다. 우리부대는 가장 교전이 심한 옹진지구에 출동했다. 해주는 북괴군 사령부가 있는 요충지다. 우리부대는 이를 폭파할 목적으로 기습하여 적 차량과 식량창고를 불태우고 포로 2명은 잡고, 그 여세를 몰아 더 깊숙이 침투 유격전을 전개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철수 하라는 명령으로 적 포위망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귀환 부대를 정비 후, 공비출현으로 위협을 받는 전자도 임실에서 순천 간의 철도 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6 · 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해안에 있던 제3사단 22연대와 23연대에 편입 전투 중 낙동강전투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부대는 낙동강 최후의 방위선으로 철수하였는데 3사단 김석원 준장은 철수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육본에서 군수물자를 싣고 온 LST 수송선 4척을 보내와 야음을 이용 전 사단이 포항 구룡포로 철수하게 되었다.

부족한 병력은 학도 지원병으로 보충되어 구룡포 초등학교에서 사단장의 군장 검사 시 김석원 준장은 내 앞에 와서 "소대장 용감하게 생겼다며" 나를 칭찬하자 나는 "육군소위 최홍제 입니다." 라고 하자 곧 UN군이 상륙하는데, 그전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고지를 점령 하여야하는데 갈만한 소대장이 없단 말이여" 하며 나를 쳐다 보자 나는 이 최 소위가 하겠다고 하자 "어 그래하며 그럼 이따 만나자" 며 어깨를 툭툭 치며... 연단에 올라가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였다.

❖ **김석원 제3사단장의 훈시에 모든 장병들이 감명을 받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사단장 김석원이다. 우리 부모형제들은 평소 먹을 것 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국가에 세금을 바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들에게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세금을 냈다. 저 바다를 보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후퇴 할 곳도 없다."

"만약 사단장이 후퇴하면 느이들은 M-1소총으로 날 쏴라 ... 그 대신 느이들이 명령 없이 후퇴하면 차고 있던 군도로 뽑아들고 목을 치리다. 그리고 느이들은 중고등학교를 다 다녔고 복장도 미 작업복에다 소총도 우수한 M-1소총에다 식사도 인민군보다 더 잘 먹는다. 싸우다 탄알이 떨어지면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총검으로 찌르고 총검이 부러지면 입으로 물어뜯어라" 는 훈시에 모두 감명을 받았다.

얼굴은 팔자의 카이젤 수염에 잠바스타일에 철모는 큰 왕별이 달려있고, 그리고 군인의상징인 일본도를 차고, 허리에는 유사시 자결용인 조그만 모젤 권총과 신발은 돌격 시에 신는 오가다비차림과 눈은 반작반작한 왕 눈에 나무랄 데가 없는 멋쟁이 장군이다.

❖ **국가를 위해 용감히 싸워다오 행운을 빈다.**

사단장 실에 불려간 나는 "국가를 위해서 용감히 싸워다오 행운을 빈다." 는 격려의 한마디를 하달 받고 나는 바삐 공격준비를 위해 서둘렀다.

중대로 돌아온 나는 아직 어린 채 피지 못한 꽃 봉우리들이 아직 총도 제대로

쏘아보지 못한 학생들이지만 싸우겠다는 의지가 보이며 서둘러 공격대기지점에 도착했다.

우선 사병들에게 안도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훈련이 안된 학병을 심리적으로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하라는 말이 떠올라 먼저 소대원들에 "내 고향은 공주인데 나는 이미 각오한 몸 이다."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국가를 위해 잘 싸우다 전사하였다고 전해주기 바란다." 며 각오를 다졌다. 하느님 저는 이미 각오 하였습니다. 이 병사들은 다 귀여운 아들들입니다 모두 임무를 수행하고 모두 무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나오며 내가 선두에서 공격할 터이니 나를 엄호하며 뒤따르라고 약속하고 공격 시작 약 2시간 만에 걸쳐 적진 앞에 도달 우선 수류탄을 한발 던지고 한발을 마저 던지기위해 수류탄 안전핀을 깨물어 뽑는 순간 포탄이 먼저 작열 내 몸은 공중에 둥실 떠 실신하게 되었다.

순간 황금 찬란한 금빛이 눈앞에 스쳐가는 장면을 목격 앗 하고 소리치며 실신되고 말았다. 잠시 후 정신이 들자 수류탄생각이 나 정신을 차리니 배로 덮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몸을 굴렀다가 일어나서 돌격을 하자 뒤따르던 소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고지 점령 임무를 완수하기에 이르렀다.

❖ 남편에게 주려던 떡 보따리를 내던지고 울부짖는 미망인.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상을 입고 부산 제3육군병원에 5개월간 입원 하는 동안 병원은 부산 남일 초등학교는 전상환자로 인산인해로 복도까지 발 디들 틈도 없었다.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진동하는 아비규환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다. 특히 중공군의 개입으로 야기된 1 · 4후퇴로 전상환자들은 환부가 얼어 새까맣게 썩어가는 팔다리를 야간작업으로 톱으로 잘라낸 팔다리가 매일 3-4가마니에 담아 실어내는 참상은 언론필설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우선 환자를 들것으로 실려 오면 잘라내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고 마취 후 썩어 가는 팔 다리는 잘라내고 입원실로 돌아오면 마취에서 깨날 무렵이 되면 손이 잘려있고 다리가 없으면 내 다리를 내놓으라고 여기저기서 고성 통곡을 한다.

그러다가 결국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하고 지치다가 그친다. 두 다리 무릎 관절 위를 절단한 환자를 면회 온 젊은 부인의 경우 울다가 울다 본인도 모르게 살아도 못살아 하며 실신하는 장면, 시골에서 면회 온 젊은 부인 환자들은 가족이 면회왔나하고 운동장에서 서성대다가 한 동네 친구부인을 만나 내 남편은 어데 있느냐며 물어보자 슬금슬금 피한다.

그 이유는 어제 숨을 거두고 영현을 모신 천막에 있으니 피할 수밖에 없어 못 들어가게 말리지만 통할 일이 없다. 확인하고 남편에 먹이려고 가져 온 떡보다 리를 공중에 내던지고 꽁꽁 얼러붙은 운동장에 때굴때굴 둥그는 이 슬픔 뭐라고 하야 되는지?

나는 이런 장면을 보고 더 이상 병원에 머물 수 없어 적과 싸워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퇴원신청을 하였지만 미완치 상태라 안 된 다는데 결국 부산동래 온천에서 일주일간 요양 후 퇴원하기로 하고 정양원으로 옮겼다.

나의 전상 부위는 좌족 관절 및 우 하퇴 부 우골반부 우 흉부 파편장이여서 모두 기동 하는데 중요 부위다. 우 하퇴 부는 파편이 상위로 10㎝ 이동 우골반부는 파편이 네 개가 잔류중이며 불편하며 밤에는 통증이 심하지만 살아있다는 자체만 해도 행복하며 감사 할뿐이다.

❖ 육군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후 대위로 진급 중대장이 되다.

정양원에서 요양이 끝날 쯤 해서 서울유격대 시절 같이 근무한 전우가 현재 우리부대가 창설중이니 같이 가자기에 따라간 부대가 제5사단 이였다. 전차공격대대가 창설중이라 몸이 아직 불편하여 행정업무인 대대부관으로 근무하다 몸이 불편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육군보병학교 초등군사반 과정에 입교 수료

후, 대위로 진급 중대장으로 사병들의 강병 육성에 정력을 다하였다. 교육 시 한 사병이 "전차가 나타나 3.5인지 로켓 포 발사 시 폭염과 흙먼지가 나면 적 전차에서 90미리 직사포로 쏘면 우리는 한방에 날아가는데요." 한다.

그래서 정확히 전차의 무한궤도와 엔진부위를 명중시키고 재빨리 이동 하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며, 방법은 딱하나 대전차지뢰를 등에 메고 호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차가 나타나면 전차 밑에 기어들어가 전차를 폭파 하는 것이며, 또한 전차가 통과할 지점에 미리 대전차지뢰를 매설 해놓고 기다리면 전차들은 우리를 제일 무서워한다. 라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그 후 전차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임무의 아쉬움만 남기고 직업전환을 하게 되었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통일 전망대 앞 351고지에 검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해 연일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 이어졌다.

❖ 빼앗고 뺏기는 전투에 351고지가 5cm나 낮아졌다.

전차공격 대대는 해체되자 나는 제27연대 제55수색중대장에 보직되어 대원들과 수색을 나갔다가 인민군 두 명이 침투 엄습하는 것을 사살하고 소지품을 조사하니 지리산 빨치산본부로 가라는 사령장을 소지하고 가던 중이었다.

〈1953년 4월 고성 351고지 앞의 최홍제 소령〉

우리 부대는 적이 공격하면 적의 측면으로 찔러서 공격 사살하는 역할을 해서 351고지 전투에서 27연대 예비대를 투입 사단에서 전투경험이 많은 고참 중대장 4명을 차출하여 전투에 나갔다.

53년 1월에 휴전이 임박 하였다는 사실이 감지되였는데 왜 5사단을 전투경험이 부족한 ○○사단과 임무교대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이 치열한

전투로 351고지는 피아간 포격으로 5cm가 흙먼지로 공중에 날아갔을 거라 생각을 해보며 치열한 전투에서 산화하신 전우들의 명복을 빈다.

우리 중대는 351고지 옆에 무명고지에 배치되어 적이 351고지를 공격해오면 역습으로 몰아내고 그 일대를 수색하며 병력이 많이 손실될 경우 병력이 보충될 때 까지 지켜 주어야한다. 연일 계속되는 전투로 351고지하면 그 부근에서가 장 전략적인 고지다.

그렇기 때문에 산 내부는 요새화되어 적이 대대적인 공격이 감행될 때는 진내사격 즉 배치된 병력은 신속히 진지내로 대피하고 시한포탄으로 고지상공에서 폭발하는 사격이 실시되며 동해안에 배치된 미 순양함에서도 함포사격과 예광탄으로 지원 사격도 해주며 한미 협동작전이 잘 이루어진 곳 이기도하다.

351고지는 현동부전선의 가장 중요한 고지이며 김일성이도 351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곳이다.

특히 휴전을 앞두고 서로 전략적인 요충지 확보에 혈안이 된 351고지가 52년 7월 10일 351고지가 북괴군에 탈취 되여 재탈환에 실패하자 전투경험이 많은 중대장으로 임명하고 당시 도요다 트럭을 야간 라이트를 켜고 고지 하단부에 진입 나갈 때는 소등하고 수차 반복 대병력이 투입을 기만 하여 7월 12일 재탈환에 성공 하였고, 53년 1월 20일 제5사단과 ○○사단과 임무 교대 후 중동부전선으로 이동 후 53년 6월 다시 북괴군에 피탈 6차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실패 결국은 351고지를 적에 내주고 후사 면으로 철수하였다.

〈고지 탈환 작전 모습〉

53년 1월 적과 피아간 치열한 전투 포격으로 고지 5cm가 흙먼지로 날아간 상태라고하며 휴전

을 눈앞에 두고 왜 사단의 교대가 이루어 졌을까? 거듭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비록 빼앗겼지만 이 351고지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먼저 산화하신 전우들에게 삼가 명복을 빈다.

❖ 지리산 공비토벌대 중대장으로 전임되었다.

나는 부대가 임무 교대 전 공비출현으로 치안상태가 불안한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부대가 양양에서 창설되자 아쉬움을 남기고 지리산으로 떠나야했다.

5사단은 전투경험이 많은 부대인데 중동부인 화천에 배치 15사단과 교체하였다. 당시 윤필용 대위가 "최 대위, 공비토벌 부대로 가.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 후방으로 가!" 라고 하였으나, 나는 "부대원과 맹세해서 갈수 없다." 라고 버텨보았지만 발령이 나서 갔는데 갈 때 책[보병 대대 교본]을 가지고 갔는데 사병이 그 교본을 찾으러 와서 하는 말이 부중대장이 중대장을 맡았는데 포탄이 떨어져 전사했고, 당번병도 호에 있던 여러 전우가 전사했다고 말했다. 내가 있었으면 내가 전사했을 것이다. 순간에 운명이 바뀐 것이다.

지리산 공비토벌 연대가 새로 창설되었다. 연대 부관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부관을 안 하고 일선 중대장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육본 직할로 1~3대대 7중대장과 2대대 부대장이 입원하여 대대장 대리를 맡았다.

지리산 남원, 산청, 구례, 노고단에서 빨치산들이 양민을 잡아다 경찰과 내통한다고 잡아다 목을 자르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걸고 매달아 놓았다.

빨치산을 잡으려고 지리산을 이 잡듯 헤집고 다녔다. 땅속에 굴을 파고 위장하고 그 속에 살면서 낮에는 숨어살고 밤에는 마을에 내려와 약탈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생포해야하는데 생포하면 잡힌 놈들이 수색안하고 햇볕만 쬐고 이만 잡더라 하고 일러바치면 지휘관이 문책을 당한다. 생포하면 나도 죽을 수 있으니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살하라고 명령 하달하였다.

❖ **소령으로 예편한 후 내곡리에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살게 되었다.**

내가 양양과 인연이 된 것은 양양 사람들은 전쟁터로 다 나가고 남자가 없을 때인데 공비토벌을 하려고 서면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마을 이장이 병이 나서 군의관을 불러 주려고 하다가 그보다는 강릉병원에 가면 낫겠다 싶어 마침 강릉병원으로 가고자 했으나 그 아버지는 "군의관이 고치는 병이 아니고 딸을 보면 병이 나아지겠지" 하여 그때 마침 강릉병원의 간호사인 그의 딸이 "원장님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하여 2박 3일 동안 집으로 보내주어서 지프차에 태워 오가면서 정이 들어 잘 해보라 해서 아버지가 날짜를 잡아서 결혼하였다.

그리고 공비 토벌 때도 아내와 같이 갔다. 공비 가족도 치료해 주고 약도 주고 담요도 주었더니 공비가 가족이 걱정되어 와 보니 현실이 좋아 귀순한 사례도 있었다. 그 후 아내는 비 전투대원 참전자로 지정되었다.

1960년 12월 30일 소령으로 예편하여 내자가 외동딸이어서 내곡리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살았다.

❖ **30대 초반에 2년간 양양면장을 지냈다.**

1961년 6월 초순 강원도지사가 양양면장에 임명하여 2년간 근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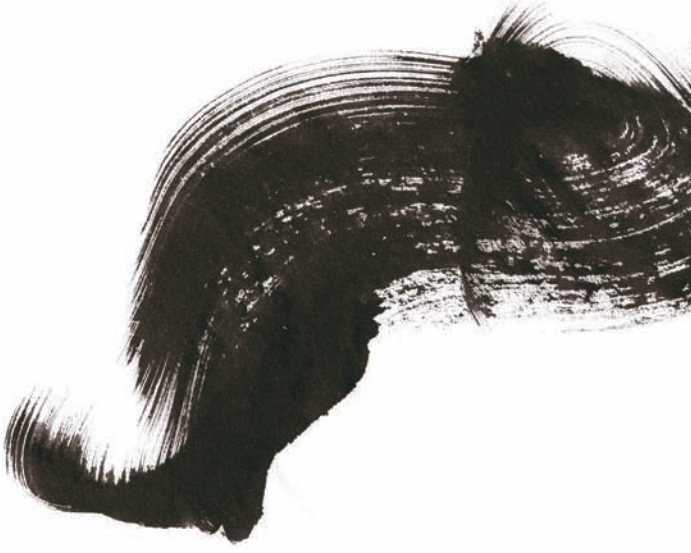
그 당시 지방자치를 할 때인데 월급도 재대로 못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루는 상급부서에서 시찰을 나와 보고서를 차드로 작성하여 브리핑을 잘하였더니 만 누군가가 새파란 놈이 와서 면장을 한다고 말이 있었다.

나는 "야! 우리 같은 군인들이 죽기로 싸워서 이 나라를 찾은 거야" 호통을 치며 당당하게 2년간 근무를 한 후 보안사 일도 하였다.

퇴임 후 김인기 국회의원이 도와 달라고 하여 국회에 가서 비서관을 4년간 근무하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 하는 업무를 하였다. 양양에는 월북자가 많아 강릉에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상훈으로는 화랑무공훈장 외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한국전쟁 시기
양양군의 군정 통치에 대한 고찰

발행인 :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집필자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편집인 :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영
발행처 : 양양문화원
인쇄처 : 대양프리컴
발행일 : 2015년 12월

비매품